

#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사도행전

ACT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8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 사도행전 1장

ACT-001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올려다보던 눈을 땅끝으로 돌리는 장. 들려 올라가신 자리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약속으로 남고, 빈 자리는 다시 채워진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감람산(12절) → 다락방(13절)으로 옮겨간다. 올려다봄(야외) → 둘러앉음(실내).
- 시간 배경 = 부활 후 사십 일(3절), 오순절을 앞둔 "몇 날이 못 되어"(5절).
- 인물 명단이 소품처럼 박힘 — 열한 사도(13절), 여자들·마리아·예수의 아우들(14절).
- "아겔다마=피밭"(19절), 시편 69·109편 인용(20절), 제비(26절).
- 1-2절이 앞 책(누가복음)을 되짚으며 두 책을 잇는다.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위를 올려다봄으로 열리고("하늘을 쳐다보거늘", 10절), 시선이 내려와 둘러앉음으로 닫힘.
- '기다림'의 공기 — "성령을 기다리라"(4절).
- 승천(큰 사건) → 다락방 모임 → 빈 자리 채움의 순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 예수의 행하심으로 열림.
- 26절: "제비 뽑아 맞디아를 얻으니 ...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 사람의 채움으로 닫힘.
- 떠나가시는 한 분 → 다시 채워지는 열둘. 약속을 받고 채비를 갖추는 흐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사도들 / 흰 옷 입은 두 사람(10) / 여자들·마리아·아우들(14) / 베드로(15) / 요셉·맞디아(23).
- 물음과 답의 어긋남 —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이까"(6) ↔ "때는 알 바 아니다"(7).
- 핵심 사상 = 증인 —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 땅끝까지 증인"(8절). 책 전체의 설계도.
- 증인의 자격 —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한 자, 부활의 증인(21-22절).
- 기도와 제비가 한 장면에 — "마음을 아시는 주여"(24) → 제비(klêros, 26).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앞 책 되짚음, 사십 일 보이심, "성령을 기다리라".
- 컷 2 (6-8): "이때니이까", "때는 알 바 아니다", "땅끝까지 증인".
- 컷 3 (9-11): 들려 올라가심, 구름,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

- 컷 4 (12-14): 다락방, 열한 사도·여자들·마리아, 한마음 기도.
- 컷 5 (15-26): 베드로 일어섬, 유다의 일·시편, 자격, 두 후보, 기도, 제비 → 맛디아.

## 6 – (1) 원어 카드

- dynamis(δύναμις) — 권능. 8절 "권능을 받고".
- martyrs(μάρτυς) — 증인. 8·22절. 후대에 '순교자'로 자라남(배경).
- epangelia(ἐπαγγελία) — 약속. 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2·5·8·16절 거듭.
- analambanō(ἀναλαμβάνω) — 들러 올려지다. 2·11·22절(승천).
- klēros(κληρος) — 제비·몫·기업. 26절.
- apostolos(ἀπόστολος) — 보냄받은 자, 사도. 2·26절.

## 6 – (2) 문학 구조

- 승천(1-11) → 다락방·기도(12-14) → 빈 자리 채움(15-26)의 세 묶음.
- 8절의 동심원 — 예루살렘 → 유대 → 사마리아 → 땅끝. 책 전체의 지리적 설계도.
- "하늘을 보다/오시리라"(9-11)가 올라감·오심을 한 모양으로 묶음.
- 베드로의 시편 인용(20절) — 시 69:25, 시 109:8.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아겔다마=피밭"(19절)은 아람어 지명을 누가가 헬라이어 독자에게 풀어 준 대목 — 배경.
-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12절)은 안식일 보행 거리 관습(약 1km) — 배경.
- 제비뽑기는 구약의 직무·기업 분배 방식(레위·여호수아)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8 ↔ 행 2(오순절)·8(사마리아)·13(땅끝) — 동심원의 펼쳐짐.
- 행 1:11 ↔ 눅 24:50-51 (승천 장면)
- 행 1:20 ↔ 시 69:25 / 시 109:8 (유다의 직분)
- 행 1:5 ↔ 행 11:16 (요한의 물세례 ↔ 성령세례)
- 행 1:1 ↔ 눅 1:1-4 (데오빌로, 두 책의 연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물음에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말씀을 마치시자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가린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들에게 흰 옷 입을 두 사람이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한 사도와 여자들과 마리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베드로가 백이십 명 가운데 일어나 유다의 일을 시편으로 풀고, 부활의 증인이 될 한 사람을 세우자 한다. 요셉과 맛디아를 세워 기도한 뒤 제비를 뽑으니 맛디아가 뽑혀 열한 사도의 수에 든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성령이 임하시면 — 땅끝까지 증인, 채워지는 자리"
- 초벌 부제: "올려다보던 눈을 땅끝으로, 그리고 채워지는 자리"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일 보행 거리·아겔다마·시편 인용·동심원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8절의 "땅끝까지 증인"이 선교 구호로 굳지 않도록 → 동심원 지리 구조만 기록.
- 제비뽑기(26절)를 의사결정법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기도와 제비의 병치만 보존.
- "때는 알 바 아니다"(7절)의 종말 논의는 보류, 물음·답의 어긋남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장은 들려 올라가신 자리에서 올려다보던 눈을 땅끝으로 돌리고, 빈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사십 일의 보이심으로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동심원처럼 펼쳐 둔다. 그 한 분이 구름에 가려 올라가시자 무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만,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는 음성이 시선을 땅으로 내려놓는다. 그들은 다락방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베드로의 일어섬과 제비뽑기로 빈 자리가 다시 채워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감람산(12) → 다락방(13). 사십 일(3), 오순절 앞뭉(5). 인물 명단·아겔다마(19)·시편(20)·제비(26).
2 첫 느낌·분위기	올려다봄 → 둘러앉음. '기다림'의 공기. 승천 → 모임 → 채움.
3 시작과 끝	시작 — 예수의 행하심(1). 끝 — 맛디아의 채움(26). 떠나심 → 채워짐.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사도 / 두 사람(10) / 여자들·마리아 / 베드로 / 요셉·맛디아. 사상 = 증인(8). 기도와 제비.
5 장면 컷	컷 1 기다리라(1-5). 컷 2 땅끝 증인(6-8). 컷 3 승천(9-11). 컷 4 다락방(12-14). 컷 5 맛디아(15-26).
6 의문·발견·정보	"본 그대로 오시리라"(11). 백이십 명(15). 아겔다마=피발(19). klēros·제비의 위치.
7 동영상	사십 일 → 약속 → 승천 → 다락방 기도 → 빈 자리 채움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성령이 임하시면 — 땅끝까지 증인, 채워지는 자리". 부제 — "올려다보던 눈을 땅끝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산과 다락방을 걸으며 하늘만 쳐다보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올려다봄에서 땅끝으로:** 무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만(10절), 천사의 음성과 8절의 약속이 시선을 땅끝의 증인됨으로 돌린다. 올려다봄과 나아감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약속과 권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4절, epangelia)과 "권능을 받고"(8절, dynamis)가 성령으로 묶인다. 기다림과 보냄이 한 약속 안에 있다.
- 결 3 — 빈 자리의 채움:** 떠나가심 뒤에 유다의 자리가 비고, 기도와 제비로 맛디아가 채운다. 본문은 떠남에서 채움으로 정돈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오순절, 약속의 성취), **행 8**(사마리아), **행 11:16**(요한의 세례 ↔ 성령세례).
- 다른 권 — **눅 24:50-51**(승천), **시 69:25 / 109:8**(유다의 직분, 20절 인용).
- 정경 흐름 — 1:8의 동심원(예루살렘→유대·사마리아→땅끝)은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로, 책의 진행을 미리 펼쳐 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사십 일의 가르침을 들으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구름이 가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는 음성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채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하늘을 쳐다보다 시선을 내려놓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수께서 사십 일 보이시고 들려 올라가신다

- [x]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 [x]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가 시선을 내려놓는다
- [x] 다락방에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한다
- [x] 베드로가 일어나 빈 자리를 말한다
- [x] 기도와 제비로 맞디아가 뿔힌다
- [x] 끝은 채워진 열둘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성령의 약속.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여자들과 마리아"(14절)가 명시되는가?**

- 열한 사도만이 아니라 더 넓은 무리가 함께 기다린다고 적힌다.
- 명시에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7절)는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가?**

- 회복의 '때'를 묻는데, '증인됨'으로 답이 옮겨간다.
- 묻는 결과 답하시는 결의 어긋남만 기록.

**Q3. 후보의 자격(21-22절)은 왜 그 기간으로 정해지는가?**

-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가 기준이 된다.
- 기간 설정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기도와 제비(24-26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한 뒤 제비를 뿔는다.
- 두 방식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제비뿔기는 왜 이후 다시 나오지 않는가?**

- 2장 오순절 이후 성령이 직접 이끄신다.
- 위치의 변화만 관찰로 남기고, 의미는 보류.

**Q6. "본 그대로 오시리라"(11절)의 '그대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올라가심과 오심이 같은 모양으로 묶인다.
- '그대로'의 내용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장

ACT-002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기다리던 자리에 약속이 임하는 장. 바람과 불과 방언이 한 무리에 쏟아지고, 베드로의 한 설교가 흠어진 말을 다시 한 마음으로 모은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한곳"(1절, 실내) → 모여드는 무리의 거리(6절, 바깥)로 열린다.
- 시간 배경 = 오순절(pentekoste, 유월절 후 오십 일째), 순례자가 모이는 절기.
- 감각 소품 — "바람 같은 소리"(2절), "불의 혀"(3절). 둘 다 '같은'이 붙은 비유.
- 나라 명단(9-11절): 바대·메대·엘람·메소보다미아·갑바도기아·본도·아시아·애굽·리비아·로마·그레데·아라비아.
- 골재 — 요엘(17-21절), 시편 16편(25-28절), 시편 110편(34-35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쏟아짐 — "홀연히 ... 급하고 강한 바람"(2절). 기다림은 길고 임함은 순간.
- 소리가 무대를 채움 — 바람 소리, 무리의 소리.
- 표적(바람·불·방언) → 설교 → 삼천·일상의 순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 모임으로 열림.
- 47절: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더해지는 무리로 닫힘.
- 백이십(1:15) → 삼천(41절). 작은 모임이 큰 모임으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성령 / 사도와 무리 / 각 나라 경건한 유대인(5) / 조롱하는 자(13) / 베드로(14) / 찢린 무리(37).
- 반응의 갈림 — 놀람(7) ↔ 조롱(13).
- 핵심 사상 = "이는 곧 ... 이것이라"(16절). 사건을 옛 본문으로 읽음.
- 결론 —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36절).
- 명령 — "회개하고(metanoia) 세례를 받으라(baptizo)"(38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오순절, 바람·불·방언.
- 컷 2 (5-13): 각 나라 무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놀람과 조롱.
- 컷 3 (14-21): 베드로 일어섬, 요엘 인용.

- 컷 4 (22-36): 예수의 십자가·부활·승귀, 시편 16·110편, "주와 그리스도".
- 컷 5 (37-47): 찢림, 회개·세례, 삼천, 떡을 떼는 공동체.

## 6 – (1) 원어 카드

- pneuma(πνεῦμα) — 성령·바람. 2·4·17·38절.
- glossa(γλῶσσα) — 혀·방언. 3·4·11절.
- pentekoste(πεντηκοστή) — 오순절(오십). 1절.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 생각의 돌이킴. 38절(동사 형태).
- baptizo(βαπτίζω) — 세례를 주다. 38·41절.
- koinonia(κοινωνία) — 교제·나눔. 42절.
- epangelia(ἐπαγγελία) — 약속. 33·39절.

## 6 – (2) 문학 구조

- 표적(1-13) → 설교(14-36) → 결과(37-47)의 세 묶음.
- 베드로 설교의 세 인용 — 요엘(지금), 시편 16편(다윗 ≠ 부패), 시편 110편(주의 우편).
- 36절이 설교의 정점("주와 그리스도"), 38절이 명령("회개·세례").
- 42·44-47절이 공동체 요약(가르침·교제·떡·기도·통용).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오순절은 추수 절기(맥추절)이자 순례 절기 — 각 나라 유대인이 모이는 때(배경).
-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29절)는 베드로 당대의 지리적 사실 진술(배경).
- 9-11절 지명은 1세기 디아스포라 분포 — 흩어진 유대인의 지리(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17-21 ↔ 율 2:28-32 (영을 부어 주심)
- 행 2:25-28 ↔ 시 16:8-11 (음부에 버리지 않음)
- 행 2:34-35 ↔ 시 110:1 (내 우편에 앉으라)
- 행 2:39 ↔ 행 1:8 (먼 데 사람 / 땅끝까지)
- 행 2:1-4 ↔ 행 1:4-5 (약속하신 성령)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오순절에 다 같이 한곳에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각 나라에서 온 무리가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듣고 놀란다. 베드로가 일어나 "이는 요엘이 말한 것"이라 풀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편으로 증언하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다. 마음에 찢린 무리가 "어찌할꼬" 문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한다. 그날 삼천이 더해지고, 그들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에 힘쓰며 날마다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떤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는 곧 요엘이 말한 것 — 바람·불·방언, 그리고 모임"

- 초벌 부제: "기다림 위에 임한 약속, 흩어진 말을 다시 모으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오순절 절기·디아스포라 지명·다윗 묘·시편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방언"(4절)을 은사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음 → 듣는 이에게 닿는 방향만 기록.
- 44-45절의 재산 통용을 제도론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표적 뒤 일상의 위치만 보존.
- 38절의 "세례"를 구원론 도식으로 굳히지 않음 → 명령의 순서(회개→세례→선물)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장은 기다리던 자리에 바람과 불이 임하고, \*흩어진 말이 한 설교로 모여 날마다 더해지는 무리\*에 이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오순절의 한곳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로 열린다.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각 나라 무리가 자기 난 곳 말로 듣는다.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과 시편으로 "이는 곧 그 말씀의 성취"라 풀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한다. 마음에 찢린 무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삼천이 더해지고,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상의 공동체로 단한다. 바벨에서 흩어진 말이, 여기서 한 마음으로 모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한곳(1, 실내) → 거리(6). 오순절(pentekoste). 바람·불의 혀(2-3). 나라 명단(9-11). 요엘·시편 골재.
2 첫 느낌·분위기	쏟아짐 — 급하고 강한 바람(2). 소리가 무대를 채움. 표적 → 설교 → 일상.
3 시작과 끝	시작 — 한곳에 모임(1). 끝 — 날마다 더해짐(47). 백이십 → 삼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성령 / 사도·무리 / 각 나라 유대인 / 조롱하는 자 / 베드로 / 찢린 무리. 사상 = '이는 곧 ...'(16). 결론 — 주와 그리스도(36).
5 장면 컷	컷 1 바람·불·방언(1-4). 컷 2 각 나라 무리(5-13). 컷 3 요엘 인용(14-21). 컷 4 십자가·부활(22-36). 컷 5 삼천·공동체(37-47).
6 의문·발견·정보	듣는 이에게 향한 방언(6). 다윗의 묘(29). 삼천(41). 재산 통용(44-45). glossa의 위치.
7 동영상	오순절 → 바람·불·방언 → 요엘 인용 → 십자가·부활 → 회개·세례 → 삼천·떡 떼는 공동체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는 곧 요엘이 말한 것'. 부제 — '기다림 위에 임한 약속, 흩어진 말을 다시 모으다'.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다락방과 거리를 걸으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쏟아짐과 잦아듦:** 급하고 강한 바람(2절)으로 열린 장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46절)의 일상으로 닫힌다. 큰 표적과 조용한 나눔이 한 장에 있다.
- 결 2 — 사건을 본문으로 읽다:**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곧장 "이는 곧 요엘이 말한 것"(16절)으로 읽는다. 표적이 풀이를 부르고, 풀이가 본문으로 돌아간다.
- 결 3 —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각 나라의 말이 각자에게 들리고(6절), 한 설교가 삼천을 한 무리로 모은다(41절). 흩어진 말이 다시 한 마음에 닿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4-5·8**(약속하신 성령, 땅끝), **행 4:31-35**(다시 충만·통용), **행 10:44-46**(이방에 임한 성령).
- 다른 권 — **골 2:28-32**(영을 부어 주심, 17-21절 인용), **시 16:8-11 / 110:1**(부패하지 않음·우편, 25-35절 인용), **창 11**(흩어진 말, 배경 대비).
- 정경 흐름 — 1:8의 약속이 2장에서 처음 성취되고, "먼 데 사람"(39절)이 이후 사마리아·이방으로 펼쳐질 길을 미리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기다리던 자리에서 갑작스런 소리를 듣는다.
- **멈춤 1:**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내 난 곳 말로 들리는 놀라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우리가 어찌할꼬"(37절)라는 찢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기다림 끝의 임함은 나 한 사람에게도 닿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오순절에 바람과 불과 방언이 임한다
- [x] 각 나라 무리가 자기 말로 듣고 놀란다
- [x] 베드로가 요엘과 시편으로 "지금"을 푼다
- [x]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증언이 정점이다
- [x]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따른다
- [x] 그날 삼천이 더해진다
- [x] 끝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임한 약속.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하필 '불의 혀'와 '방언'인가?

- 바벨의 흩어진 말(창 11장)이 떠오르나, 본문은 그 연결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 표상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방언은 말하는 쪽인가 듣는 쪽인가?

- 6절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고"라 한다.
- 방향이 듣는 이에게 향하는 것만 기록, 성격 규정은 보류.

### Q3. 베드로는 왜 다윗의 무덤을 언급하는가(29절)?

- 다윗과 그리스도를 가르는 근거로 쓰인다.
- 그 논증 무게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4. "이 약속은 ... 모든 먼 데 사람"(39절)은 누구까지인가?

- 1:8의 "땅끝까지"와 같은 결로 놓인다.
- 범위의 끝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 Q5. 삼천(41절)은 어떻게 단숨에 더해지는가?

- 백이십(1:15)에서 한 설교로 자란다.
- 증가의 동력은 보류, 숫자의 위치만 관찰로 남김.

### Q6. 재산 통용(44-45절)은 표적의 결과인가 별도의 결인가?

- 표적·설교 뒤 곧바로 일상의 나눔이 온다.
- 두 결의 관계는 보류, 병치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3장

ACT-003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구걸하던 손이 일어나 걷는 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마디 뒤에 못 걷던 발이 곧 힘을 얻고, 그 놀람이 솔로몬 행각의 한 설교로 이어진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hieron) — 미문(2절) → 성전 안(8절) → 솔로몬 행각(11절).
- 시간 배경 = "제 구 시 기도 시간"(1절), 오후 세 시 성전 기도 시각.
- 소품 — "은과 금"(6절), 곧 힘을 얻는 "발과 발목"(7절).
- 인물의 처지 — "나면서 못 걷는 이 ... 메고 와서 구걸하게"(2절).
- 골재 — 조상의 하나님(13절), 모세의 "그 선지자"(22절, 신 18장), 아브라함 언약(25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 사람에게 좁혀짐 — 큰 무리(2장)에서 미문 앞 한 사람으로.
- '올라감과 일어남'의 공기 — 성전에 올라감(1절), 뛰어 서서 걸음(8절).
- 표적 → 모인 무리 → 베드로의 풀이.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베드로와 요한이 ... 성전에 올라갈새" — 두 사람의 올라감으로 열림.
- 26절: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 복 주시려고" — 보내심과 복으로 닫힘.
- 한 사람의 발 → 모든 백성의 돌이킴. 좁혀졌다 넓어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베드로·요한 / 못 걷는 사람 / 메고 온 사람들(2) / 놀란 백성(11). 설교 안 — 빌라도·살인자·조상.
- 시선의 마주침 — "우리를 보라"(4) ↔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5).
- 핵심 사상 = 이름과 믿음 — "그 이름을 믿으므로 ... 성하게"(16절).
- 부름 — "회개하고 돌이키라"(19절, metanoia).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제 구 시, 미문, 메어 온 못 걷는 자.
- 컷 2 (4-8):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없으나 ... 걸으라", 뛰며 찬송.
- 컷 3 (9-11): 백성의 놀람, 솔로몬 행각에 모임.
- 컷 4 (12-16): "왜 놀라느냐", 생명의 주, 이름·믿음.

- 컷 5 (17-26): 회개, 만물 회복의 때, 모세·선지자·언약, "먼저 너희에게".

## 6 — (1) 원어 카드

- hieron(ἱερόν) — 성전. 1·2·3·8절.
- onoma(ὄνομα) — 이름. 6·16절(거듭).
- pistis(πίστις) — 믿음. 16절.
- archehos(ἀρχηγός) — 생명의 주, 앞서 이끄는 이·창시자. 15절.
- metanoia(μετάνοια) — 회개, 돌이킴. 19절(동사).
- kairos(καιρός) — 때. 19·21절("유쾌하게 되는 날·회복하실 때").
- apokatastasis(ἀποκατάστασις) — 만물의 회복. 21절.

## 6 — (2) 문학 구조

- 치유(1-11) → 설교(12-26)의 두 묶음.
- 16절이 치유 해석의 정점("그 이름을 믿으므로 ... 성하게").
- 설교의 구약 축 — 조상의 하나님(13), 모세 "그 선지자"(22), 아브라함 언약(25).
- "왜 놀라느냐"(12절)가 표적을 사람에게서 본문으로 돌리는 전환점.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제 구 시"(1절)는 성전의 정해진 기도·제사 시각(오후 세 시) — 배경.
- "미문"은 성전 안뜰로 드는 큰 문으로 전해짐(이름의 정확한 위치는 전승) — 배경.
- "솔로몬 행각"(11절)은 성전 동편 회랑, 사람이 모이던 공간 —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3:6 ↔ 행 4:10 (그 이름으로 성하게 됨, 재진술)
- 행 3:13 ↔ 출 3:6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
- 행 3:22-23 ↔ 신 18:15-19 (그 선지자)
- 행 3:25 ↔ 창 22:18 (네 씨로 말미암아 복)
- 행 3:15 ↔ 행 2:24·32 (살리심·증인)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 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메어져 와 구걸한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찬송한다. 백성이 놀라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자, 베드로가 "왜 놀라느냐, 우리 권능으로 한 줄 아느냐" 하고,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살리셨으며 "그 이름을 믿으므로 성하게 되었다" 한다. 이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며, 모세와 선지자와 아브라함 언약으로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복 주시려 한다" 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 일어나 걷고, 솔로몬 행각에서 풀리다"
- 초벌 부제: "한 사람의 발에서 모두의 돌이킴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제 구 시·미문·솔로몬 행각·구약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은과 금은 없으나"(6절)를 청빈 교훈으로 굳히지 않음 → 기대와 받음의 어긋남만 기록.
- 치유(7-8절)를 능력 과시로 일반화하지 않음 → "왜 놀라느냐"(12절)가 사람에게서 본문으로 돌림만 보존.
- "만물 회복"(21절)의 종말 논의는 보류 → 한 사람의 치유와 만물 회복의 병치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3장은 미문 앞 구걸하던 손이 \*은과 금은 없으나\*의 한마디 뒤에 일어나 걷고, 그 놀람이 솔로몬 행각의 한 설교로 풀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제 구 시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한 사람으로 좁혀진다. "우리를 보라"는 시선의 마주침 뒤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찬송한다. 놀란 백성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자 베드로가 "왜 놀라느냐" 하며 표적을 자기 권능에서 조상의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돌리고, "그 이름을 믿으므로 성하게 되었다" 한다. 이어 회개와 만물 회복의 약속이 모세·선지자·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발에서 모두를 향한 보내심으로 넓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성전(hieron) — 미문(2) → 성전 안(8) → 솔로몬 행각(11). 제 구 시(1). 은과 금(6). 못 걷는 자(2).
2 첫 느낌·분위기	한 사람으로 좁혀짐. 올라감과 일어남. 표적 → 모인 무리 → 풀이.
3 시작과 끝	시작 — 두 사람의 올라감(1). 끝 —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26). 한 발 → 모든 족속.
4 등장인물·상황·사상	베드로·요한 / 못 걷는 자 / 메고 온 이들 / 놀란 백성. 시선의 마주침(4-5). 사상 = 이름·믿음(16).
5 장면 컷	컷 1 미문·구걸(1-3). 컷 2 일어나 걸으라(4-8). 컷 3 행각에 모임(9-11). 컷 4 왜 놀라느냐(12-16). 컷 5 회개·언약(17-26).
6 의문·발견·정보	서다·걷다·뛰다·찬송(8). 우리를 보라(4). 제 구 시·미문(배경). '그 이름'·'믿음' 거듭(16).
7 동영상	제 구 시 미문 → 일어나 걸으라 → 걷고 뛰며 찬송 → 솔로몬 행각 → 왜 놀라느냐 → 회개·언약·보내심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제 — '한 사람의 발에서 모두의 돌이킴으로'.
9 동영상 안 겹기·기도	미문과 행각을 걸으며 바라보던 눈을 들어 올린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좁혀짐과 넓어짐:** 큰 무리(2장)에서 미문 앞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가, 26절의 "모든 족속"으로 다시 넓어진다. 한 발의 회복이 모두의 약속에 닿는다.
- 결 2 — 사람에게서 본문으로:** "왜 놀라느냐"(12절)가 표적을 자기 권능에서 조상의 하나님·그 이름으로 돌린다. 사건이 곧 옛 약속의 풀이가 된다.
- 결 3 — 시선의 마주침:**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5절)이 "우리를 보라"(4절)와 마주친다. 돈을 향하던 눈이 사람과 마주치고 일어남으로 옮겨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22-24**(살리심·증인), **행 4:7-12**(그 이름으로 성하게, 재진술), **행 14:8-10**(루스드라의 못 걷는 자).
- 다른 권 — **출 3:6**(조상의 하나님, 13절), **신 18:15-19**(그 선지자, 22절), **창 22:18**(네 씨로 복, 25절).
- 정경 흐름 — 미문의 표적이 4장의 공회 심문을 부르는 불씨가 되고, "그 이름"(6·16절)이 4:12의 "다른 이름 없다"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구걸하며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다.
- **멈춤 1:** "우리를 보라"는 말에 눈이 마주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은과 금은 없으니"라는 어긋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발에 힘이 도는, 걷고 뛰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기대했던 것 너머의 것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올리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제 구 시 미문에 못 걷는 사람이 구걸한다
- [x] "은과 금은 없으나 ... 일어나 걸으라"
- [x]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찬송한다
- [x] 백성이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 [x] "왜 놀라느냐", 그 이름을 믿으므로 성하게 되었다
- [x]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부름이 따른다
- [x] 끝은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의 약속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그 이름.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우리를 보라"(4절)가 먼저인가?

- 곧장 고치지 않고 시선부터 맞춘다.
- 그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은과 금은 없으나"(6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기대한 것(돈)과 받은 것(일어남)이 어긋난다.
- 어긋남만 기록, 청빈·재물론으로의 일반화는 보류.

Q3. "왜 놀라느냐"(12절)는 표적을 어디로 돌리는가?

- 사람의 권능에서 조상의 하나님과 그 이름으로 돌린다.
- 전환의 방향만 기록, 능력론은 보류.

Q4.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17절)는 무지와 책임을 어떻게 두는가?

- 무지 가운데 한 일이라 하면서 회개를 부른다.
- 둘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5. 한 사람의 치유 뒤에 왜 "만물 회복"(21절)이 오는가?

- 한 발의 회복 뒤에 만물의 회복이 따라 놓인다.
- 두 회복의 관계는 보류, 병치만 관찰.

Q6. 모세의 "그 선지자"(22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의 말과 겹쳐진다.
- 지시 대상은 답하지 않고 겹침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4장

ACT-004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잡혀 선 자리가 증언의 자리가 되는 장.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한마디가 위협 앞에서 굳고, 풀려난 무리는 다시 모여 한마음으로 나눈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 뜰(1절) → 공회 한가운데(7절) → 모인 동류의 자리(23절).
- 시간 배경 =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3절), 하룻밤 옥에 갇힘.
- 권력의 명단(6절): 안나스·가야바·요한·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
- 소품 — "버린 돌"(11절, 시 118편), 끝의 "밭과 값"(34·37절, 바나바).
- 골재 — 시편 118:22(11절), 시편 2편(25-26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막아섬 — "말할 때에 ... 잡으매"(1·3절). 찬송이 잡힘으로 끊김.
- '담대함'의 공기 —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랍게"(13절).
- 위협 → 풀려남 → 다시 모임.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백성에게 말할 때에 ... 잡으매" — 막힘으로 열림.
- 37절: "밭을 팔아 ...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 내어놓음으로 닫힘.
- 잡힌 두 사람 → 나누는 온 무리. 막아섬에서 내어놓음으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베드로·요한 / 제사장·사두개인(1) / 공회·대제사장 문중(5-6) / 나은 사람(14) / 모인 무리.
- 물음이 증언으로 — "누구의 이름으로"(7) → 성령 충만한 답(8).
- 핵심 사상 = 그 이름과 구원 —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12절).
- 부딪침 — 사람의 금함(18) ↔ "말하지 않을 수 없다"(20).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잡힘, 옥, 믿는 자 오천.
- 컷 2 (5-12): 공회 한가운데, "버린 돌", "다른 이름 없다".
- 컷 3 (13-22): 담대함에 놀람, "부인 못 함", "말하지 말라" ↔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컷 4 (23-31): 한마음 기도(시 2편), "담대히 말하게", 진동·성령 충만.

- 컷 5 (32-37): 한마음 한뜻, 통용, 부족한 자 없음, 바나바의 발.

## 6 — (1) 원어 카드

- parrhesia(παρρησία) — 담대함, 거리낌 없이 말함. 13·29·31절.
- onoma(ὄνομα) — 이름. 7·10·12·17·18절(거듭).
- soteria(σωτηρία) — 구원. 12절.
- lithos(λίθος) — 돌. 11절("버린 돌").
- despotes(δεσπότης) — 대주재, 주인. 24절(기도의 첫 부름).
- charis(χάρις) — 은혜. 33절("큰 은혜").
- homothymadon(ὁμοθυμαδόν) — 한마음으로. 24절.

## 6 — (2) 문학 구조

- 심문(1-22) → 기도·공동체(23-37)의 두 묶음.
- 12절이 심문 답변의 정점("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 기도(24-30)의 축 — 대주재 호칭 → 시편 2편 →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 32·34-35절이 공동체 요약(한마음·통용·필요를 따라 나눔), 2:44-45의 재진술.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던 무리 — 2절의 빌미(부활 가르침)와 맞물림(배경).
- 공회(산헤드린)는 유대 최고 의결·재판 기구 — 5-6절의 구성(배경).
- "건축자의 버린 돌"(11절)은 시편 118:22의 인용 어구(배경, 문학).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4:11 ↔ 시 118:22 (버린 돌, 머릿돌)
- 행 4:25-26 ↔ 시 2:1-2 (이방이 분노함)
- 행 4:12 ↔ 행 3:6·16 (그 이름으로)
- 행 4:32-35 ↔ 행 2:44-45 (한마음·통용)
- 행 4:13 ↔ 눅 22:54-62 (전에 부인하던 베드로 ↔ 담대함, 대비)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잡아 옥에 가두나, 믿는 자가 약 오천이 된다. 이튿날 공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묻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으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한다. 공회는 담대함에 놀라고 표적을 부인 못 하면서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나, 두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풀려난다. 동류에게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구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다. 무리가 한마음으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며, 바나바가 발을 팔아 발 앞에 둔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 잡힌 자리가 증언의 자리로"
- 초벌 부제: "잡힌 두 사람에서 나누는 온 무리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두개인·공회·시편 인용·옥에 갇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12절)를 논쟁 구호로 굳히지 않음 → 심문 답변의 자리만 기록.
- 위협 앞 기도(29절)를 담대함 비결로 일반화하지 않음 → 위협 제거가 아닌 담대함을 구한 결만 보존.
- 재산 통용(32-35절)을 제도론으로 굳히지 않음 → 위협 직후 나눔의 위치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4장은 잡혀 선 자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증언의 자리가 되고, 풀려난 무리가 담대함을 구해 한마음으로 나누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말하던 두 사람이 잡혀 옥에 갇히는 막힘으로 열린다. 공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묻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답한다. 공회는 표적을 부인 못 하면서도 이름을 금하나, 두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풀려난다. 동료에게 돌아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위협의 제거가 아니라 담대함을 구하니 모인 곳이 진동한다.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며, 바나바의 발로 달린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성전 뜰(1) → 공회 한가운데(7) → 모인 동료(23). 이튿날까지 옥(3). 버린 돌(11). 바나바의 발(37).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막아섬 — 말할 때에 잡힘(1:3). 담대함의 공기(13). 위협 → 풀려남 → 모임.
3 시작과 끝	시작 — 잡힘(1). 끝 — 발 앞에 둠(37). 잡힌 두 사람 → 나누는 온 무리.
4 등장인물·상황·사상	베드로·요한 / 사두개인 / 공회·문중 / 나의 사람 / 모인 무리. 물음이 증언으로(7-8). 사상 = 그 이름·구원(12).
5 장면 컷	컷 1 잡힘·오천(1-4). 컷 2 다른 이름 없다(5-12). 컷 3 말하지 않을 수 없다(13-22). 컷 4 한마음 기도(23-31). 컷 5 통용·나눔(32-37).
6 의문·발견·정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앎(13). 부인 못 함 ↔ 금함(16·18). 사두개인(배경). 오천(4). 바나바(36-37).
7 동영상	잡힘·옥 → 누구의 이름으로 → 다른 이름 없다 →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마음 기도·진동 → 통용·나눔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부제 — '잡힌 두 사람에서 나누는 온 무리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공회와 모인 자리를 걸으며 막아서는 말 앞에서 본 것을 닫지 않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막아섬과 증언:** "잡으매"(3절)로 닫힌 입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12절)는 증언으로 열린다. 잡힌 자리가 곧 말하는 자리가 된다.
- 결 2 — 금함과 말함:** 공회의 "말하지 말라"(18절)와 두 사람의 "말하지 않을 수 없다"(20절)가 한 자리에서 부딪친다. 본문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질문으로 남긴다.
- 결 3 — 위협과 한마음:** 기도는 위협 제거가 아니라 담대함을 구하고(29절), 그 뒤 무리는 한마음으로 나눈다(32절). 바깥의 위협과 안의 나눔이 한 장에 묶인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3:6·16**(그 이름으로, 표적의 빌미), **행 5:17-42**(다시 잡힘·매질·담대함), **행 2:44-45**(한마음·통용, 재진술).
- 다른 권 — **시 118:22**(버린 돌, 11절), **시 2:1-2**(이방의 분노, 25-26절), **눅 22:54-62**(전에 부인한 베드로, 13절 대비).
- 정경 흐름 — 4장의 위협이 5장의 더 큰 위협으로 자라고, "담대함"(parrhesia)이 사도행전 전체의 증언 자세로 이어진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말하던 중에 막아서는 손에 잡힌다.
- **멈춤 1:** 공회 한가운데 세워진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말하지 말라"는 금함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막아서는 말 앞에서도 본 것을 닫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위협을 겪어보시는 주 앞에서 담대함을 구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말하던 두 사람이 잡혀 옥에 갇힌다
- [x] 공회기 "누구의 이름으로" 묻는다
- [x]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 [x] 표적을 부인 못 하면서도 이름을 금한다
- [x]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x] 한마음의 기도로 모인 곳이 진동한다
- [x] 끝은 한마음의 통용과 나눔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담대함.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13절)?

-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가 담대함의 곁에 놓인다.
- 출처의 결만 기록, 비결화는 보류.

#### Q2. 공회는 왜 부인 못 하면서 금하는가(16·18절)?

- 표적을 인정하면서 이름은 막는다.
- 인정과 금지의 모순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 Q3. "말하지 않을 수 없다"(20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사람의 금함과 본 것의 말함이 부딪친다.
- 부딪침만 기록, 순종론은 보류.

#### Q4. 기도는 왜 위협 제거가 아니라 담대함을 구하는가(29절)?

- 위협을 거두어 달라 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게 해 달라 한다.
- 구함의 방향만 기록, 까닭은 보류.

#### Q5. 위협 직후에 왜 나눔이 오는가(32-35절)?

- 바깥의 위협과 안의 나눔이 한 장에 놓인다.
- 두 결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병치만 보존.

**Q6. 무명의 무리 가운데 왜 바나바가 호명되는가(36-37절)?**

-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함께 한 이름이 솟는다.
- 호명의 까닭은 보류, 위치만 관찰.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5장

ACT-005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감추던 거짓이 드러나고 막던 손이 풀리는 장. 한 부부의 숨김이 무너진 자리에 두려움이 깔리고, 갇힌 사도들은 풀려나 다시 서며, 한 바리새인의 한마디가 공회를 멈춰 세운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공동체 안(1-11절) → 솔로몬 행각·옥(12-18절) → 공회(21-27절).
- 시간 배경 = "세 시간쯤 지나"(7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21절).
- 소품 — "밭 값"(1-2절), "그림자"(15절), "옥문"(19절).
- 인물의 처지 — 메어 온 병자·귀신 들린 자·예루살렘 부근 무리(15-16절).
- 골재 — 드다·갈릴리 유다의 옛 봉기(36-37절, 가말리엘의 충고).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서늘함 — "크게 두려워하니라"(5-11절) 반복.
- '드러남'의 공기 — 감춘 것이 밖으로 나옴(3-4절).
- 잡힘 → 풀림(19) → 다시 잡힘·매질(40)의 반복.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소유를 팔아 ... 감추매" — 한 부부의 숨김으로 열림.
- 42절: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 멈추지 않는 증언으로 닫힘.
- 무너지는 두 사람 → 멈추지 않는 무리. 숨김에서 그치지 않음으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나니아·사비라 / 베드로 / 청년들(6-10) / 사도들 / 병자·무리(15-16) / 사두개인(17) / 천사(19) / 공회 / 가말리엘(34).
- 같은 물음 두 번 — "이것뿐이냐"(8절), 부부에게 반복.
- 핵심 사상 = 사람이냐 하나님이나 — "하나님께 거짓말"(4절), "하나님께 순종"(29절).
- 충고 — "버려두라 ... 무너지지 무너뜨릴 수 없을지"(38-39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감춘 값, 성령을 속임, 쓰러짐, 두려움.
- 컷 2 (12-16): 표적·기사, 그림자, 다 나옴.
- 컷 3 (17-26): 옥, 천사가 옆, 다시 성전에서 가르침.
- 컷 4 (27-32): 공회, "하나님께 순종", 증인됨.

- 컷 5 (33-42): 가말리엘, 매질, 기쁨, 그치지 않는 가르침.

## 6 — (1) 원어 카드

- phobos(φόβος) — 두려움. 5·11절(거듭).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3·9·32절.
- ekklesia(ἐκκλησία) — 교회. 11절("온 교회").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12절("표적과 기사").
- angelos(ἄγγελος) — 천사. 19절.
- peitharcho(πειθαρχέω) — 순종하다, 따르다. 29·32절.
- boule(βουλή) — 꾀·계획. 38절("이 사상이").

## 6 — (2) 문학 구조

- 공동체(1-11) → 표적·풀림(12-26) → 공회(27-42)의 세 묶음.
- "크게 두려워하니라"(5·11)가 첫 묶음을 봉인하는 후렴.
- 29절이 공회 답변의 정점("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 가말리엘의 두 갈래 결론(38-39)이 공회 장면을 매듭.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가말리엘은 당대 이름난 바리새인 율법 교사 — 34절(배경).
- 드다·갈릴리 유다는 흠어진 봉기 사례로 인용 — 36-37절(배경).
- 사두개인의 시기(17절)는 부활 증언과 맞물린 갈등 맥락(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5:19 ↔ 행 12:7-10 (천사가 옥문을 열, 베드로)
- 행 5:29 ↔ 행 4:19-20 (사람보다 하나님께)
- 행 5:30-32 ↔ 행 2:23-24·32 (살리심·증인)
- 행 5:1-11 ↔ 행 4:34-37 (밭 값, 바나바와 대비)
- 행 5:34 ↔ 행 22:3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나니아가 아내와 함께 밭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오니,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하며 앞드려 쫓아 죽고, 세 시간 뒤 삽비라도 쓰러진다.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한다.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이 많이 일어나 병자를 메고 나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다 낫는다. 사두개인이 시기하여 옥에 가두나 천사가 옥문을 열어 "성전에서 말하라" 한다. 다시 끌려와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하니 공회가 죽이려 하나, 가말리엘이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낫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권한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도 능욕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치지 않고 가르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 숨김이 드러나고 막힌 문이 열린다"
- 초벌 부제: "숨김이 드러난 자리에서 그치지 않는 증언으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가말리엘·드다·갈릴리 유다·사두개인 시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아나니아·삽비라(1-11절)를 현금 교훈으로 굳히지 않음 → 판 것이 아니라 속인 일을 짚은 결만 기록.
- 그림자 치유(15절)를 능력 도구론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기대가 그림자에까지 미친 위치만 보존.
- 가말리엘의 충고(38-39절)를 처세 원리로 굳히지 않음 → 두 갈래로 열린 채 닫힌 결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5장은 \*감춘 거짓이 드러나 두려움이 깔리고, 갇힌 사도들이 풀려나 다시 서며, 한 바리새인의 한마디가 공회를 멈춰 세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4장의 한마음 나눔 안에서 한 부부의 숨김으로 열린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하매 두 사람이 쓰러지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한다. 사도들의 표적이 거리로 번져 그림자에까지 기대가 미치고, 시기 한 사두개인이 옥에 가두나 천사가 문을 열어 다시 성전에 세운다.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답하니 죽이려 하나, 가말리엘이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낫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권한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도 기뻐하며 그치지 않고 가르친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공동체 안(1-11) → 솔로몬 행각·옥(12-18) → 공회(21-27). 세 시간(7)·새벽(21). 발 값·그림자·옥문.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서늘함 — 크게 두려워하니라(5:11). 드러남. 잡힘 → 풀림(19) → 다시 잡힘·매질(40).
3 시작과 끝	시작 — 한 부부의 숨김(1). 끝 — 그치지 아니하니라(42). 무너짐 → 멈추지 않음.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아나니아·사비라 / 베드로 / 사도 / 병자·무리 / 사두개인 / 천사 / 공회 / 가말리엘. 사상 = 사람이냐 하나님이나(4:29).
5 장면 컷	컷 1 감춘 값·두려움(1-11). 컷 2 표적·그림자(12-16). 컷 3 옥·천사(17-26). 컷 4 하나님께 순종(27-32). 컷 5 가말리엘·매질(33-42).
6 의문·발견·정보	판 것 ≠ 속인 것(4). 풀려 다시 성전으로(19-20). 그림자(15). 4장과 다른 결과(40). 가말리엘(배경).
7 동영상	감춘 값·쓰러짐 → 두려움 → 표적·그림자 → 옥·천사 → 하나님께 순종 → 가말리엘·매질 → 그치지 않는 가르침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부제 — '숨김이 드러난 자리에서 그치지 않는 증언으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공동체와 옥과 공회를 걸으며 감추어 둔 마음을 그대로 들고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숨김과 드러남:** 감춘 값(2절)이 곧 드러나고(4절), 그 자리에 두려움이 깔린다(5:11절). 본문은 판 것이 아니라 속인 일을 짚는다.
- 결 2 — 닫힘과 열림:** 옥문이 잠기고(18절) 천사가 연다(19절). 막힌 문이 열려 다시 위협한 자리로 보내진다.
- 결 3 — 막음과 그치지 않음:** 매질(40절)과 죽이려는 의논 뒤에도 끝은 "그치지 아니하니라"(42절)로 닫힌다. 막음이 멈춤을 만들지 못한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4:34-37**(발 값, 바나바와 대비), **행 4:19-20**(사람보다 하나님께, 재진술), **행 12:7-10**(천사가 옥문을 열, 베드로).
- 다른 권 — **행 22:3**(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으로 다시 등장), **수 7**(감춘 것의 드러남, 배경 대비).
- 정경 흐름 — 5장의 매질이 6-7장의 스테반 순교로 위협이 자라는 길을 열고, 가말리엘의 충고가 그 위협을 잠시 멈춰 세운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나눔의 자리에서 한 부부의 숨김을 본다.
- **멈춤 1:** 감춘 것이 드러나 쓰러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잠긴 옥문이 새벽에 열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답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막음이 증언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감추어 둔 마음을 그대로 들고 주 앞에서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낸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 부부가 값을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다
- [x] "성령을 속였다" 하매 쓰러지고 온 교회가 두려워한다
- [x] 표적이 번져 그림자에까지 기대가 미친다
- [x] 옥에 갇히나 천사가 문을 연다
- [x]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 [x] 가말리엘이 "버려두라" 권한다
- [x] 끝은 매 맞고도 그치지 않는 가르침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그치지 않음.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베드로가 짚는 것은 판 것인가 속인 것인가(4절)?

-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는 판 것이 아니라 속임을 짚는다.
- 둘의 갈림만 기록, 헌금론은 보류.

Q2. 천사는 왜 풀어 주고 다시 성전에 세우는가(19-20절)?

- 멀리 보내지 않고 다시 위험한 자리로 보낸다.
- 그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3. 같은 공회인데 왜 4장은 풀려나고 5장은 매를 맞는가(40절)?

- 같은 자리, 다른 결과가 놓인다.
- 차이의 까닭은 보류, 대비만 관찰.

Q4. 그림자에까지 기대가 미치는 것(15절)은 무엇을 보이는가?

- 병자를 메고 나와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란다.
- 기대의 폭만 기록, 도구론은 보류.

Q5. 매와 기쁨이 한 절에 같이 있는 것(41절)은?

- 능욕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 두 절의 병치만 보존, 까닭은 보류.

Q6. 가말리엘의 두 갈래 결론(38-39절)은 무엇을 열어 두는가?

- "무너질 것이요 ... 무너뜨릴 수 없겠고"가 단정 없이 닫힌다.
- 열린 채 닫힌 결만 관찰로 남김.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6장

ACT-006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섬김이 나뉘어 말씀이 자라는 장. 원망이 일곱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되고, 일을 나누자 말씀이 더 흥왕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한 사람이 거짓 고발 앞에 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공동체 안(1-6절) → 회당(9절) → 공회(12절).
- 배경의 두 무리 — 헬라파와 히브리파(1절), 말과 출신이 갈림.
- 소품 — "매일의 구제·공궤"(1-2절), 일곱 이름 명단(5절, 다 헬라식).
- 회당 명단(9절): 리버디노·구레네·알렉산드리아·길리기아·아시아.
- 고발 문구(13-14절): "거룩한 곳과 율법", "이곳을 헐고 ... 규례를 고치겠다".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안의 마찰 — "원망이 있으니"(1절). 바깥 위협이 아닌 안의 불만.
- '나눔과 자람'의 공기 — 일을 나누니 "말씀이 왕성"(7절).
- 안의 정돈(1-7) → 바깥의 충돌(8-15).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 원망이 있으니" — 늘어남과 마찰로 열림.
-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 한 사람의 얼굴로 닫힘.
- 여럿의 불만 → 고발 앞 한 사람. 무리에서 한 얼굴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열두 사도 / 헬라파·과부들 / 온 무리 / 일곱(5) / 스테반 / 회당 사람들(9) / 거짓 증인(13) / 공회.
- 두 일의 분담 — "공궤할 수 없다"(2) ↔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4).
- 핵심 사상 = 택하여 세움 —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3절), 무리가 고르고 사도가 안수.
- 충만의 거듭 — 성령·지혜(3), 믿음·성령(5), 은혜·권능(8), 지혜·성령(10).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 많아짐, 헬라파의 원망.
- 컷 2 (2-4): 무리를 부름, 분담, "일곱을 택하라".
- 컷 3 (5-7): 택함·안수, 말씀 왕성, 제사장 무리도 복종.
- 컷 4 (8-10): 스테반의 표적, 변론, "당하지 못함".

- 컷 5 (11-15): 매수·거짓 증인, 공회, 고발, "천사의 얼굴".

## 6 — (1) 원어 카드

- diakonia(διακονία) — 섬김·구제. 1·4절(집사 diakonos와 한 뿌리).
- logos(λόγος) — 말씀. 2·4·7절.
- sophia(σοφία) — 지혜. 3·10절.
- charis(χάρις) — 은혜. 8절("은혜와 권능").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3·5·10절.
- plethos(πλῆθος) — 온 무리. 2·5절.
- martyrs(μάρτυς) — 증인. 13절("거짓 증인", 어근).

## 6 — (2) 문학 구조

- 정돈(1-7) → 충돌(8-15)의 두 묶음.
- 7절이 첫 묶음의 매듭("말씀 왕성·제사장 복종").
- "충만"의 후렴(3·5·8·10)이 일곱과 스테반을 한 결로 묶음.
- 13-14절의 고발 문구가 7장 설교의 골격을 미리 짠다.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헬라파/히브리파는 언어·출신이 갈리는 두 유대인 무리 — 1절(배경).
- 일곱 이름이 다 헬라식인 점은 본문에 드러난 사실 — 5절.
- "리버디노 회당"(9절)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회당으로 전해짐(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6:5 ↔ 행 8:5-8 (일곱 중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 행 6:8-15 ↔ 행 7장 (스테반의 답·순교)
- 행 6:13-14 ↔ 행 7:48-50 (성전·거룩한 곳에 대한 답)
- 행 6:7 ↔ 행 4:4·5:14 (제자 수의 자람)
- 행 6:1 ↔ 행 2:44-45·4:34-35 (구제·나눔의 공동체)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가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다고 원망한다. 열두 사도가 무리를 불러 "말씀을 제쳐 두고 공회할 수 없으니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한다. 무리가 기뻐하여 스테반과 빌립 등 일곱을 세워 안수하니,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다. 일곱 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큰 표적을 행하고, 회당 사람들이 변론하나 그 지혜와 성령을 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회로 끌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 고발한다. 공회가 주목하니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 섬김이 나뉘어 말씀이 자라다"
- 초벌 부제: "여럿을 세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얼굴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헬라파·히브리파·리버디노 회당·헬라식 이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일곱 택함(3-6절)을 직제론으로 굳히지 않음 → 두 일을 다 귀히 둔 결만 기록.
- "말씀이 왕성"(7절)을 성장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마찰이 자람으로 이어진 위치만 보존.
- 고발 문구(13-14절)를 율법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음 → 다음 장 답의 빌미라는 위치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6장은 \*안의 원망이 일곱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 말씀이 자라고, 충만한 한 사람이 거짓 고발 앞에 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제자가 늘면서 생긴 헬라파의 원망으로 열린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 두고 공궤할 수 없다" 하며 충만한 일곱을 세우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다. 그 일곱 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고, 회당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성령을 당하지 못하자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인을 세운다. 공회로 끌려간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묘사로, 여럿을 세운 자리가 한 사람의 얼굴로 좁혀지며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공동체 안(1-6) → 회당(9) → 공회(12). 헬라파·히브리파(1). 매일의 구제(1-2). 일곱 이름·고발 문구(5·13-14).
2 첫 느낌·분위기	안의 마찰 — 원망(1). 나눔과 자람(7). 안의 정돈 → 바깥의 충돌.
3 시작과 끝	시작 — 늘어남·원망(1). 끝 — 천사의 얼굴 같더라(15). 무리 → 한 얼굴.
4 등장인물·상황·사상	열두 사도 / 헬라파·과부 / 무리 / 일곱 / 스테반 / 회당 사람들 / 거짓 증인 / 공회. 사상 = 택하여 세움(3). 충만의 거듭.
5 장면 컷	컷 1 원망(1). 컷 2 분담·택하라(2-4). 컷 3 안수·왕성(5-7). 컷 4 표적·변론(8-10). 컷 5 매수·고발(11-15).
6 의문·발견·정보	두 일을 다 귀히 됨(2-3). 마찰 → 흥왕(7). 제사장도 복종(7). 구제자가 표적으로(8). 헬라파/히브리파(배경).
7 동영상	원망 → 분담·일곱 택함 → 안수·왕성 → 스테반의 표적·변론 → 매수·거짓 증인 → 공회·천사의 얼굴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부제 — '여럿을 세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얼굴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모임과 회당과 공회를 걸으며 빠진 한 사람을 보지 못하던 눈을 연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마찰과 자람:** "원망이 있으니"(1절)로 열린 장이 "말씀이 왕성하여"(7절)로 이어진다. 안의 마찰을 정돈한 자리에서 도리어 자람이 온다.
- 결 2 — 두 일의 분담:** "공궤할 수 없다"(2절)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4절)가 두 일을 가르되, 충만한 사람을 세워 둘 다 귀히 둔다.
- 결 3 — 여럿에서 한 얼굴로:** 일곱을 세운 장이 스테반 한 사람의 표적과 고발로 좁혀지고(8·12절), 끝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15절)는 한 얼굴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7장**(스테반의 답·순교, 직결), **행 8:5-8**(일곱 중 빌립의 사마리아), **행 4:4·5:14**(제자 수의 자람).
- 다른 권 — **행 7:48-50**(성전·거룩한 곳에 대한 답, 6:13-14의 빌미), **출 18:13-26**(짐을 나눔, 배경 대비).
- 정경 흐름 — 6장의 일곱 세움이 교회의 일을 나누고, 스테반의 고발이 7장 순교와 8장의 흠어짐·확장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늘어난 무리 안에서 빠진 과부의 원망을 듣는다.
- **멈춤 1:** 두 일을 가르고 일곱을 세우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나누었더니 도리어 자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변론을 당하지 못해 매수로 바뀌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빠진 한 사람을 보는 데서 일이 시작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빠진 한 사람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제자가 늘며 과부 구제에서 빠진 원망이 생긴다
- [x]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하며 일곱을 세운다
- [x] 나누었더니 말씀이 왕성하고 제사장도 복종한다
- [x]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을 행한다
- [x] 변론을 당하지 못해 거짓 증인을 매수한다
- [x] 공회로 끌려가 거룩한 곳·율법을 거슬렀다 고발당한다
- [x] 끝은 천사의 얼굴 같은 한 사람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충만한 한 사람.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사도들은 공회를 가벼이 여기는가(2절)?

-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면서도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한다.
- 두 일을 다 귀히 둔 결만 기록, 경증론은 보류.

Q2. 왜 원망(1절)이 말씀의 흥왕(7절)으로 이어지는가?

- 마찰이 정돈을 부르고, 정돈 뒤에 자람이 온다.
- 연결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3.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7절)는 무엇을 보이는가?

- 막던 쪽에서 따르는 이가 나온다.
- 의외의 무리의 등장만 기록, 까닭은 보류.

Q4. 구제를 맡은 스테반이 왜 표적·변론으로 나가는가(8절)?

- 맡은 일과 하는 일이 한 사람 안에서 넓어진다.
- 넓어짐만 관찰, 직무론은 보류.

Q5. 변론에서 왜 고발로 수단이 바뀌는가(10-11절)?

- 당하지 못하자 매수와 거짓 증인으로 바꾼다.
- 수단의 바뀐만 기록, 동기 판단은 보류.

Q6. "천사의 얼굴 같더라"(15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고밭의 자리에서 얼굴 묘사로 멈춘다.
- 묘사의 내용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7장

ACT-007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긴 이스라엘 역사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되는 장.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를 거슬러 읽고, 돌에 맞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는, 한 청년 사울이 그 곁에 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공회(1절) → (설교 안) 메소보다미아·애굽·미디안·시내·가나안 → 성 밖 돌 던지는 자리(57-58절).
- 시간 배경 =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솔로몬의 성전(47절)까지 수백 년.
- 소품 — "증거의 장막"(skene, 44절), 솔로몬의 "집"(47절), "옷"(58절, 사울의 발 앞).
- 인용 — 아모스(별 신 레판, 42-43절), 이사야 66장(하늘은 보좌, 49-50절).
- 마지막 말 —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59절),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60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잔잔함에서 격함으로 — 2-50절 역사, 51절에서 어조가 꺾임.
- '거슬러 올라감'의 공기 —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되짚음.
- 말(2-53) → 죽음(57-60) → 한 청년(58)의 순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것이 사실이나" — 대제사장의 물음으로 열림.
- 60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 자니라" — 용서·잠뚱으로 닫힘.
- 묻는 공회 → 죽는 성 밖. 심문에서 용서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스테반 / 대제사장·공회 / (설교 안)아브라함·요셉·모세·여호수아·다윗·솔로몬 / 돌 던지는 무리 / 증인 / 청년 사울(58).
- 듣는 자리가 찌르는 자리로 — "들으라"(2) → "성령을 거스르는도다"(51).
- 핵심 사상 = 거할 곳과 거스름 —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48절),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53절).
- 반복 결 — 보냄받은 자(요셉·모세)가 거듭 거절당함(9:27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물음, 아브라함의 부르심·언약·할례.
- 컷 2 (9-19): 요셉이 팔림, 애굽 총리, 기근, 압제.
- 컷 3 (20-43): 모세 — 배척·미디안·떨기나무·출애굽·금송아지·거스름.

- 컷 4 (44-50): 장막·솔로몬의 집,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 컷 5 (51-60): 반전, 이 값, 하늘 열림·인자, 돌, 두 마지막 기도, 사울.

## 6 – (1) 원어 카드

- diatheke(διαθήκη) – 언약. 8절("할례의 언약").
- skene(σκηνή) – 장막. 44절("증거의 장막").
- naos(ναός) – 성전·전. 48절(손으로 지은 곳의 절).
- pneuma(πνεῦμα) – 성령. 51·55·59절.
- sklerotrachelos(σκληροτράχηλος) – 목이 곧은. 51절.
- doxa(δόξα) – 영광. 55절("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 koimao(κοιμάω) – 잠들다(죽음을 잠으로). 60절.

## 6 – (2) 문학 구조

- 설교(2-53) → 반전·순교(54-60)의 두 묶음.
- 역사를 따라가는 축 – 아브라함(2-8) → 요셉(9-16) → 모세(17-43) → 성막·성전(44-50).
- 48-50절이 성전 고발(6:13-14)을 거꾸로 돌리는 정점.
- 59-60절의 두 기도(자기·그들)가 순교 장면을 매듭.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증거의 장막"(44절)은 광야의 이동식 성막 – 솔로몬의 고정된 집과 대비(배경).
- 성 밖에서 돌로 침(58절)은 신성모독에 대한 처형 방식의 정황(배경).
- "인자가 서신 것"(55-56절)은 다른 곳의 "앞으신"과 어휘가 다름(문학적 사실).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7:49-50 ↔ 사 66:1-2 (하늘은 보좌, 땅은 발등상)
- 행 7:42-43 ↔ 암 5:25-27 (별 신 레판)
- 행 7:60 ↔ 눅 23:34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 행 7:58 ↔ 행 8:1·9:1 (청년 사울, 이후 다시 등장)
- 행 7:48 ↔ 행 6:13-14 (성전 고발에 대한 답)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묻자 스테반이 "들으라"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푼다. 요셉이 팔려 애굽 총리가 되고 온 족속이 내려간 일, 모세가 배척받아 미디안으로 갔다가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아 백성을 인도했으나 광야에서 거둬 거슬렀음을 말한다. 증거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르러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사야로 매듭짓고, "목이 곧은 자들아,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돌린다. 무리가 이를 갈 때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친다. 스테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뒤 잠들고, 곁에 청년 사울이 옷을 지키며 선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 거슬러 읽은 역사가 마지막 말로"
- 초벌 부제: "거슬러 읽은 역사가 한 사람의 마지막 말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증거의 장막·성 밖 처형·아모스·이사야 인용·"서신 인자")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긴 역사 설교(2-50절)를 요약 교리로 굳히지 않음 → 거슬러 읽은 흐름과 반복 결만 기록.
-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48절)를 성전 폐기론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고발을 거꾸로 돌린 위치만 보존.
- 순교(59-60절)를 본받음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음 → 두 마지막 기도의 병치만 관찰.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거슬러 읽은 역사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되고, 둘에 맞으며 그들을 위해 빌며 잠드는, 그리고 한 청년이 곁에 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사실이냐"는 물음에 스테반이 "들으라" 하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풀어나가는 데서 열린다. 요셉이 팔리고 모세가 배척받는, 보냄받은 자가 거듭 거절당하는 곁이 역사 속에 반복된다.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르러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매듭짓고, 성전을 묻던 고발을 거꾸로 돌려 "너희

가 의인을 죽였다" 한다. 무리가 이를 갈 때 하늘이 열려 "서신 인자"를 보고, 성 밖에서 돌에 맞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뒤 잠든다. 그 곁에 청년 사울이 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공회(1) → 설교 안 메소보다미아·애굽·미디안·가나안 → 성 밖(57-58). 아브라함~솔로몬. 장막·성전·옷(44·47·58).
2 첫 느낌·분위기	잔잔함 → 격함(51에서 꺾임). 거슬러 올라감. 말 → 죽음 → 한 청년.
3 시작과 끝	시작 — 이것이 사실이냐(1). 끝 —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자니라(60). 심문 → 용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스데반 / 공회 / 아브라함·요셉·모세·솔로몬 / 돌 던지는 무리 / 사울(58). 사상 = 거할 곳·거스름(48·53).
5 장면 컷	컷 1 아브라함(1-8). 컷 2 요셉(9-19). 컷 3 모세(20-43). 컷 4 장막·성전(44-50). 컷 5 반전·순교·사울(51-60).
6 의문·발견·정보	보냄받은 자의 거듭 거절(9·27). 곤장 변명 없음. 증거의 장막(배경). '서신' 인자(55-56). 사울의 발 앞 옷(58).
7 동영상	사실이냐 → 아브라함·요셉·모세 → 장막·성전 → 손으로 지은 곳 아님 → 반전·하늘 열림 → 돌·두 기도·사울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부제 — '거슬러 읽은 역사가 한 사람의 마지막 말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공회와 성 밖과 청년이 선 자리를 걸으며 던지는 손들을 향해 빈 마지막 말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거슬러 읽음:** 아브라함(2절)에서 솔로몬(47절)까지 한 민족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며, 성전을 묻던 고발에 하나님의 거할 곳으로 답한다. 역사 자체가 답이 된다.
- 결 2 — 거듭되는 거절:** 요셉(9절)과 모세(27절)에게 보냄받은 자가 거절당하는 결이 반복되고, 51절에서 그 결이 듣는 자리로 돌려진다. 옛 결이 지금에 겹친다.
- 결 3 — 격함과 용서:** 돌에 맞는 격한 자리에서 마지막 말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절)다. 자기를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란히 잠뚝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6:13-14**(성전 고발, 답의 빌미), **행 8:1·9:1**(청년 사울, 이후 박해자·사도로), **행 22:20**(스데반의 피, 바울의 회고).
- 다른 권 — **사 66:1-2**(하늘은 보좌, 49-50절), **암 5:25-27**(별 신 레판, 42-43절), **눅 23:34**(그들을 위한 용서, 60절 대비).
- 정경 흐름 — 7장의 순교가 8장의 큰 박해와 흠어짐을 불러, 1:8의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장이 박해를 통해 열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사실이냐"는 물음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아브라함부터 멀리서 시작하는 긴 역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하늘이 열려 "서신 인자"를 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돌을 던지는 손들을 향해 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그들을 위해 비는 마지막 말 앞에 서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사실이냐"는 물음에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푼다
- [x] 요셉·모세가 거듭 거절당한다
- [x]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 [x] "목이 곧은 자들아, 의인을 죽였다" 돌린다
- [x] 하늘이 열려 "서신 인자"를 본다
- [x] 돌에 맞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다
- [x] 끝은 곁에 선 청년 사울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마지막 말.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고발에 곧장 변명하지 않고 긴 역사부터 푸는가?**

- 답을 미루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멀리 와 시작한다.
- 그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2. "보냄받은 자가 거절당함"은 왜 반복되는가(9·27절)?**

- 요셉·모세에게 같은 결이 되풀이된다.
- 반복만 기록, 그 함의는 보류.

**Q3.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48절)는 무엇을 돌리는가?**

- 성전을 묻던 고발을 거꾸로 돌린다.
- 돌림의 방향만 기록, 성전론은 보류.

**Q4. "인자가 서신 것"(55-56절)은 왜 "앞으신"과 다른가?**

- 다른 곳의 "앞으신"과 어휘가 다르게 박힌다.
- 어휘의 다름만 관찰, 까닭은 보류.

**Q5. 두 마지막 기도(59-60절)는 왜 나란한가?**

-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가 잇닿는다.
- 두 기도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순교 장면에 왜 청년 사울이 박히는가(58절)?**

- 옷을 지키는 자로 한 이름이 갑자기 놓인다.
- 이름의 등장만 보존, 이후 연결은 보류.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8장

ACT-008 · 역사서(신약) · 헬라어

흠어진 자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엔 큰 기쁨이, 시몬에겐 사려는 손이, 광야 길엔 입히는 한 두루마리가 있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1:3절) → 사마리아 성(5절) →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26절) → 아소도~가이사랴(40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스테반의 장사와 "큰 박해"(1절). 흠어짐이 깔린다.
- 소품 = 물·세례(12:36-38절), 사도의 안수(17절), 돈(18절), 병거와 두루마리(28절), 이사야 본문(32-33절).
- 인물 배경 = 시몬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자(9-11절), 내시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자 (eunouchos, 27절).
- euangelizo(복음을 전하다)가 4·12·25·35·40절에 거듭 나온다.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무거움(박해·잔멸)하고 곧 전환(흠어진 자들이 전함). 무거움→기쁨.
-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 박해 다음의 기쁨.
- 무대가 도시(사마리아)에서 길(광야)로 옮겨가며, 빌립이 두 만남의 가운데에 선다.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지니라" — 흠어짐으로 열림.
-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 전파로 닫힘.
- 강제로 흠어진 자리가 여러 성으로 복음을 퍼뜨리는 자리로 바뀐다. 내시도 빌립도 길 위에 있는 채로 끝 (39-40절).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사울(1:3) / 빌립 / 사마리아 무리 / 마술사 시몬 / 베드로·요한(14) / 주의 사자(26) / 에디오피아 내시(27).
- 시몬의 어긋남 — 믿고 세례 받았으나(13) 권능을 돈으로 사려 함(18-19). 베드로의 책망(20-23).
- 내시의 깨달음 —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31),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킴이냐"(34), 곧 세례를 청함(36).
- "하나님의 선물" dorea(20절). 사마리아의 성령 받음은 안수 뒤(15-17절, 시차 기록).

- "깨달다" ginosko – 30절(읽는 것을 깨닫느냐)과 31절 대답이 짝.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스테반 장사, 큰 박해, 사울의 잔멸, 흠어진 자들이 전함.
- 컷 2 (5-13): 빌립의 사마리아 전파, 표적, 큰 기쁨, 시몬도 믿고 세례.
- 컷 3 (14-25): 베드로·요한의 안수와 성령, 시몬의 돈 제안과 책망.
- 컷 4 (26-35): 광야 길, 병거의 내시, 이사야 읽음, 빌립이 예수를 전함.
- 컷 5 (36-40): 물·세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감, 내시는 기쁘게·빌립은 여러 성으로.

## 6 – (1) 원어 카드

- diaspeiro(διασπείρω) – 흠다·흠뿌리다. 1·4절 "흠어지니라".
- euangelizo(εὐαγγελίζω) – 복음을 전하다. 4·12·25·35·40절 거듭.
- chara(χαρά) – 기쁨. 8절 "큰 기쁨이 있더라".
- magos(μάγος) / mageia(μαγεία) – 마술사 / 마술. 9·11절(시몬).
- dorea(δωρεά) – 선물. 20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 eunouchos(εὐνοῦχος) – 내시. 27·34·36·38·39절.
- ginosko(γινώσκω) – 깨달다·알다. 30절 "읽는 것을 깨닫느냐".
- harpazo(ἄρπάζω) – 낚아채다·이끌어 가다.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 6 – (2) 문학 구조

- 발단(1-4) → 사마리아(5-25) → 광야 길(26-40)의 세 묶음.
- 두 인물의 대조 – 권능을 사려는 시몬(18-19) vs 본문을 묻는 내시(31-34).
- "전하다" euangelizo 후렴이 장 전체를 꿰며 시작(4)과 끝(40)을 잇는다.
- 위로부터의 인도 두 번 – "주의 사자"(26), "성령이 이르시되"(29).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오랜 거리가 있던 곳 – 박해로 흠어진 복음이 그 경계를 넘는 자리로 본문이 보고 함.
- "내시"(eunouchos)는 외국 왕실의 고위 관리.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쿠시) 여왕의 칭호(27절, 배경).
- 32-33절은 이사야 53:7-8 인용 – 내시가 읽던 본문이 그대로 적힘.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8:1 ↔ 행 7:58-60 (스테반의 장사 / 사울)
- 행 8:3 ↔ 행 9:1-2 (사울의 잔멸 → 다음 장 회심)
- 행 8:32-33 ↔ 사 53:7-8 (도수장의 양, 인용)
- 행 8:14-17 ↔ 행 2:1-4 (성령 받음의 결)
- 행 8:5 ↔ 행 1:8 ("사마리아...땅 끝까지"의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스데반의 장사 뒤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다. 사울이 집집을 뒤져 옥에 넘기는 동안, 흩어진 이들은 도리어 복음을 전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이 따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마술사 시몬마저 믿고 세례를 받는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한다. 무대가 광야 길로 바뀌어, 주의 사자가 빌립을 가사 길로 보낸다.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에서 이사야를 읽다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이까" 한다. 빌립이 그 본문에서 예수를 전하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푼다.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빌립은 여러 성을 전하며 달린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흩어진 자리에 큰 기쁨 — 사려는 손과 묻는 입"
- 초벌 부제: "흩어짐이 전파가 되고, 묻는 한 사람이 길 위에서 기뻐하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마리아·간다게·이사야 인용·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사마리아의 성령 받음 시차(15-17)가 교리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시간 순서만 기록.
- 시몬의 "믿음"(13)과 "사려는 손"(18-19)의 긴장은 본문 보고로만 보존, 판단은 보류.
- "주의 영이 이끌어 감"(39, harpazo)은 어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8장은 박해로 흩어진 자리가 도리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큰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무거운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하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다. 그 기쁨의 한가운데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이 있고, 광야 길 위엔 본문을 읽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라 묻는 한 사람이 있다. 사려는 손과 묻는 입이 같은 장 안에 나란히 놓고, 묻던 자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1) → 사마리아 성(5) → 가사 광야 길(26) → 아소도~가이사랴(40). 소품 = 물·세례·안수·돈·병거·이사야 두루마리. euangelizo가 장을 켜다.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움(박해)에서 기쁨(8절)으로. 도시에서 길로. 빌립이 두 만남의 가운데.
3 시작과 끝	시작 — 흩어짐(1절). 끝 — 여러 성의 전파(40절). 흩어짐이 전파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사울 / 빌립 / 시몬 / 베드로·요한 / 내시. 시몬의 어긋남(18-19)과 내시의 깨달음(31)의 대조. dorea·ginosko.
5 장면 컷	컷 1 박해·흩어짐(1-4). 컷 2 사마리아·기쁨(5-13). 컷 3 안수·시몬(14-25). 컷 4 광야·이사야(26-35). 컷 5 세례·이끌려 감(36-40).
6 의문·발견·정보	성령의 시차(15-17). 위로부터의 인도 두 번(26·29). 35절의 출발점. 39절의 급한 거두심(harpazo).
7 동영상	박해·흩어짐 → 사마리아의 기쁨 → 시몬 책망 → 광야의 내시 → 세례·이끌려 감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흩어진 자리에 큰 기쁨 — 사려는 손과 묻는 입". 부제 — "흩어짐이 전파가 되고, 묻는 한 사람이 길 위에서 기뻐하다".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성과 광야 길을 걸으며 흩어진 자리에서 입이 열리는 것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흩어짐에서 전파로:** 강제로 흩어진 자들이(1절) 도리어 두루 다니며 전한다(4절). 막으려던 박해가 길을 낸다.
- 결 2 — 사려는 손, 묻는 입:** 시몬은 권능을 돈으로 사려 하고(18-19절), 내시는 본문 앞에서 "어찌 깨달았어이까" 묻는다(31절). 같은 장이 두 손을 나란히 둔다.
- 결 3 — 길 위의 기쁨:** 도시의 큰 기쁨(8절)이 광야 길 한 사람의 기쁨(39절)으로 이어진다. 무리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지되 기쁨은 줄지 않는다.

####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7:58-60** (스데반의 장사·사울), **행 9:1-2** (사울의 잔멸 → 다음 장 회심), **행 1:8** ("사마리아...땅 끝까지").

- 다른 권 — 사 53:7-8 (도수장의 양, 32-33절 인용).
- 정경 흐름 — 1:8의 "사마리아"가 여기서 처음 채워지고, 내시를 통해 "땅 끝"으로 향하는 결이 열린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박해로 흩어진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박해 다음에 입한 "큰 기쁨"(8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권능을 사려는 손(18절)이 책망받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31절) 묻는 입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막으려던 흩어짐이 길을 냈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입되 깨닫지 못하던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한다
- [x]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다
- [x] 시몬이 권능을 돈으로 사려다 책망받는다
- [x] 광야 길에서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다
- [x]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가 묻는 자리가 된다
- [x]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 [x] 빌립은 여러 성을 전하며 끝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흩어짐의 길.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사마리아의 성령은 안수 뒤에야 임했는가?

- 세례(12)와 성령 받음(17) 사이에 시차가 있음.
- 시간 순서만 기록하고,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시몬의 "믿음"(13)과 "사려는 손"(18-19)은 어떻게 함께인가?

- 믿고 세례 받았다 한 자가 권능을 돈으로 사려 함.
- 두 모습의 병치만 기록, 판단은 보류.

#### Q3. 왜 빌립은 성에서 광야 길로 보내졌는가?

- 무리가 기뻐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로(26절).
- 인도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31)의 무게는?

- 읽되 깨닫지 못하는 자리.
- 묻는 결과 답하는 결의 만남만 기록.

Q5. 왜 빌립은 세례 직후 급히 이끌려 갔는가?

-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39).
- harpazo의 급함은 까닭 없이 위치만 보존.

Q6. 흠어진 박해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 강제된 흠어짐(1)과 자발적 전함(4)이 한 자리에.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9장

ACT-009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위협을 토하던 손이 다메섹 길의 빛 앞에 엎드러진다. 눈먼 채 인도되어, 두려워하던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고 일어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 출발(1-2절) → 다메섹 길(3절) → 직가의 유다 집(11절) → 다메섹 회당·성벽(20·25절) → 예루살렘(26절) → 룻다(32절) → 옴바(36절)로 옮겨간다.
- 소품 = 공문(2절), 빛(3절), 사흘의 못 봄·못 먹음(9절), 안수(17절), 비늘 같은 것(18절), 광주리(25절), 침상(33절), 다락방·시신(37·39절).
- "택한 나의 그릇" skeuos(15절). "주의 도(hodos)"(2절).
- "다비다"(아람어) = "도르가"(헬라어)를 본문이 직접 옮김(36절).
- 31절이 박해 잠잠해진 자리를 정리("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1절)의 숨막힘에서 빛(3절)으로 급전환.
- 서서 가던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4절) — 자세의 변화.
- 보임과 못 봄(8·18절)이 소품처럼 깔리고, 부르심이 짝("사울아 사울아", 4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 박해하는 손으로 열림.
- 43절: "베드로가 옴바에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 베드로로 닫힘.
- 주인공이 사울→베드로로 넘어가며 다음 장(고넬료)으로 다리를 놓는다. 박해하던 입이 전파하는 입으로 (20절).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사울 / 함께 가던 자들(7) / 아나니아(10) / 바나바(27) / 베드로 / 애니아(33) / 다비다·과부들 (36·39).
- 아나니아의 두려움(13-14)과 주의 보내심(15-16)의 긴장.
- 박해의 "나"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5절). dioko.
- 두 기적의 평행 — "애니아야... 일어나라"(34), "다비다야 일어나라"(40). anistemi.
- "보지 못함"(8, 못 봄) ↔ "다시 봄"(18, anablepo).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다메섹 길, 빛, "사울아 사울아", 엎드러짐, 눈멀고 사흘.
- 컷 2 (10-19a): 아나니아의 환상·두려움, 안수, 비늘 벗어짐, 세례.
- 컷 3 (19b-25): 다메섹 전파, 모해, 광주리로 성벽 내려감.
- 컷 4 (26-31):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 바나바 중재, 교회의 평안.
- 컷 5 (32-35): 룻다, 애니아, "일어나라", 돌아옴.
- 컷 6 (36-43): 율바, 다비다의 죽음·과부, "일어나라", 많은 사람 믿음.

## 6 — (1) 원어 카드

- phos(φῶς) — 빛. 3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 dioko(διώκω) — 박해하다. 4-5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 skeuos(σκεῦος) — 그릇. 15절 "택한 나의 그릇".
- mathetes(μαθητής) — 제자. 1:25·26·38절.
- anablepo(ἀναβλέπω) — 다시 보다·위를 보다. 18절 "다시 보게 된지라".
- anistemi(ἀνίστημι) — 일어나다·일으키다. 6·34·40절 "일어나라".
- hodos(ὁδός) — 길·도. 2절 "주의 도(이 도)".
- onoma(ὄνομα) — 이름. 14·15·16·21·27·28절 "주의 이름".

##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사울(1-31) / 베드로(32-43). 9장이 다음 장으로 다리를 놓음.
- 두 기적의 평행 — 애니아(34)와 다비다(40), 같은 동사 "일어나라".
- "이름"(onoma) 후렴이 사울 단락을 꺾며 박해의 대상과 전파의 내용을 잇는다.
- 대조 — "보지 못함"(8) ↔ "다시 봄"(18), "위협"(1) ↔ "평안"(31).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먼 회당이 있는 성 — 공문(2절)은 거기까지 박해를 미치려던 자료.
- "직가"(11절)는 다메섹의 곧은 거리 이름 — 무대 배경.
- "광주리로 성벽을 내려감"(25절)은 성벽 집의 창을 이용한 피신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9:1-2 ↔ 행 8:3 (사울의 잔멸의 이어짐)
- 행 9:3-6 ↔ 행 22:6-11 / 행 26:12-18 (회심의 재서술)
- 행 9:15 ↔ 행 13:2 (택한 그릇 → 파송)
- 행 9:34·40 ↔ 행 3:6 (이름으로 일어남)
- 행 9:31 ↔ 행 1:8 (유대·갈릴리·사마리아)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공문을 받아 떠난다. 가까이 갔을 때 하늘 빛이 둘러 비추고, 그가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듣는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매, 그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해 끌려 들어가 사흘을 못 보고 못 먹는다. 주께서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보내시니, "형제 사울아" 부르며 안수하매 비늘이 벗어져 다시 보고 세례를 받는다. 곧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다 죽이려는 모의를 만나, 광주리로 성벽을 내려가 피한다.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을 바나바가 중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선다. 무대가 베드로에게 넘어가, 룻다의 애니아에게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고,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두고 기도한 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믿으며 달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사울아 사울아 — 박해하던 입에서 전파하는 입으로"
- 초벌 부제: "박해의 손이 빛 앞에 엎드러지고, 두려움을 넘어 일어서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다메섹·직가·성벽 피신·이름 후렴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회심 장면(3-9)이 체험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빛·소리·엎드러짐의 사실만 기록.
- "택한 그릇"(15)의 무게는 본문 보고로만 보존, 운명론적 해석은 보류.
- 두 "일어나라"(anistemi, 34·40)는 어휘 분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9장은 박해하던 손이 빛 앞에 엎드러져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일어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한 사람이 다메섹 길에서 빛에 엎드러지는 데서 시작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부름은 박해의 대상이 "나"임을 드러내고, 눈먼 채 끌려간 그는 두려워하던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본다. 박해하던 입이 곧 전파하는 입이 되어 성벽을 광주리로 내려가 피하고, 무대가 베드로에게 넘어가 두 번의 "일어나라"로 닫힌다. 엎드러짐과 일어남이 한 장을 가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1) → 다메섹 길(3) → 직가의 집(11) → 회당·성벽(20·25) → 예루살렘(26) → 롯다(32) → 욥바(36). 소품 = 공문·빛·비늘·광주리·침상·다락방. skeuos·hodos.
2 첫 느낌·분위기	"위협과 살기"(1)에서 빛(3)으로 급전환. 엎드러짐(4). 보임과 못 봄.
3 시작과 끝	시작 — 박해하는 사울(1절). 끝 — 욥바의 베드로(43절). 주인공의 넘어감.
4 등장인물·상황·사상	사울 / 아나니아 / 바나바 / 베드로 / 애니아 / 다비다. 아나니아의 두려움(13)과 보내심(15). 박해의 "나"(5). dioko·anistemi.
5 장면 컷	컷 1 다메섹 길·빛(1-9). 컷 2 아나니아·안수(10-19a). 컷 3 전파·성벽(19b-25). 컷 4 예루살렘·평안(26-31). 컷 5 애니아(32-35). 컷 6 다비다(36-43).
6 의문·발견·정보	함께 가던 자들의 반응(7). 두려운 자를 보내심(13-17). "형제 사울아"(17). "이름" 후렴(onoma). 혼자 기도 뒤 부름(40).
7 동영상	빛·엎드러짐 → 안수·다시 봄 → 전파·피신 → 평안 → 애니아·다비다 "일어나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사울아 사울아 — 박해하던 입에서 전파하는 입으로". 부제 — "박해의 손이 빛 앞에 엎드러지고, 두려움을 넘어 일어서다".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길과 직가의 집과 욥바의 다락방을 걸으며 엎드러짐과 일어남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박해의 "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5절). 박해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말해진다.
- 결 2 — 두려움을 넘는 부름:** 아나니아는 가장 무서워할 자에게 보내져(13-15절) "형제 사울아"(17절) 부른다. 두려움이 형제 됨으로 바뀐다.
- 결 3 — 엎드러짐과 일어남:** 길에서 엎드러진 자(4절)가 일어나고(6절), 그 결이 애니아와 다비다의 "일어나라"(34·40절)로 이어진다. 같은 동사가 장을 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8:3** (사울의 잔멸의 이어짐), **행 22:6-11 / 26:12-18** (회심의 재서술), **행 13:2** (택한 그릇 → 파송).
- 다른 권 — 회심은 후에 바울 서신의 자기 증언과도 닿으나, 관찰은 본장 본문에 머문다.
- 정경 흐름 — 9장은 사울에서 베드로로 무대를 넘겨 다음 장 고넬료(이방인)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길 위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사울아 사울아"(4절) 부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두려워하던 손이 "형제"라 부르는 자리(17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박해하던 입이 곧 전파하는 자리(20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엎드러진 자만이 일어선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보냄받은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길 빛에 엎드러진다
- [x]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가 들린다
- [x] 눈먼 채 끌려가 사흘을 보낸다
- [x] 두려워하던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다시 본다
- [x] 박해하던 입이 곧 전파한다
- [x] 베드로가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한다
- [x] 무대가 사울에서 베드로로 넘어간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일어남.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함께 가던 자들은 왜 소리만 듣고 서 있었는가?**

-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7절).
- 같은 자리, 다른 반응만 기록하고 까닭은 보존.

**Q2. 왜 하필 두려워하던 아나니아가 보내졌는가?**

- 가장 무서워할 만한 사람이 안수하러 감(13-17절).
- 보내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택한 나의 그릇"(15)의 무게는?**

- 박해자가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불림.
- 전환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박해하던 입이 곧 전파하는 입이 된 빠름은?**

- 세례 후 "곧" 전파(20절).
- 전환의 속도만 기록, 판단은 보류.

**Q5. 왜 베드로는 다 내보내고 혼자 기도한 뒤 불렀는가?**

-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40절).
- 순서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Q6. 사울과 베드로가 한 장에 함께 놓인 까닭은?**

- 주인공이 사울에서 베드로로 넘어감(1·43절).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0장

ACT-010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두 환상이 가이사랴와 옴바에서 마주 걸어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한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가이사랴(1절) ↔ 옴바 지붕(9절) ↔ 다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24절)으로 오간다.
- 시간 = 제 구시(3·30절), 제 육시(9절). 기도 시간이 깔린다.
- 소품 = 환상(3·11절), 보자기 같은 그릇과 각종 짐승(11-12절), 지붕, 무두장이 시몬의 집(6절), 성령(44절), 물·세례(47-48절).
- 고넬료 =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기도하는 이방인 백부장(1-2절).
- "속됨" koinos ↔ "깨끗하게 함" katharizo(14·15·28절). "황홀경" ekstasis(10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두 장소(가이사랴·옴바)가 번갈아 나오다 한 집에서 만남.
- 베드로의 거절("그럴 수 없나이다", 14절)이 또렷.
- 지붕 위 정오의 환상, 같은 환상이 세 번(16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 백부장이라" — 한 이방인으로 열림.
-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 세례·함께 머물므로 닫힘.
- 떨어진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로 모인다. 44절(말씀 중 성령 임함)이 끝의 세례로 이어진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고넬료 / 천사(3) / 종·군인(7) / 베드로 / 옴바 형제들(23) / 모인 친척·친구(24).
- 거절(14) ↔ 음성의 답(15) ↔ 베드로의 풀이(28).
- 깨달음 —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4-35).  
dektos·ethnos·prosopolemptes.
- 순서 — 말씀 중 성령 임함(44) → 방언·찬양(46) → 물세례(47-48). 성령이 세례보다 먼저.
-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47) — 2장의 결과 견증.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가이사랴, 고넬료의 환상, 옴바로 보냄.

- 컷 2 (9-16): 욕바 지붕, 황홀경, 보자기·짐승, "속되다 말라", 세 번.
- 컷 3 (17-23a): 사람들의 도착, 성령의 지시, 영접·묵게 함.
- 컷 4 (23b-33): 가이사라 도착, 절·일으킴, 두 환상의 맞춰짐.
- 컷 5 (34-48): 베드로의 말씀, 성령 임함, 방언·찬양, 물세례.

## 6 – (1) 원어 카드

- horama(ῥοραμα) – 환상. 3·17·19절.
- katharizo(καθαρίζω) – 깨끗하게 하다. 15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 koinos(κοινός) – 속된·공통의. 14·28절 "속되다".
- ekstasis(ἔκστασις) – 황홀경. 10절 "황홀한 중에".
- prosopolempetes(προσωπολήπτῆς) – 외모를 보는 자. 34절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 dektos(δεκτός) – 받아들여지는. 35절 "다 받으시는".
- ethnos(ἔθνος) – 나라·이방. 35·45절 "각 나라·이방인".
- pneuma(πνεῦμα) – 영. 44·45·47절 "성령이 내려오시니".

## 6 – (2) 문학 구조

- 두 환상의 평행 – 고넬료(3-6) ↔ 베드로(9-16), 17절에서 톱니처럼 맞물림.
- 세 번 반복(16절)의 강조.
- "속됨/깨끗함"(koinos/katharizo) 대조가 짐승(15)에서 사람(28)으로 옮겨감.
- 순서의 역전 – 성령(44)이 세례(47-48)보다 먼저.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항구 도시 – 백부장 고넬료의 배경(1절).
-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리(28절)를 본문이 직접 설명.
- "무두장이 시몬의 집"(6절)은 가족 다루는 이의 집 – 무대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0:44-47 ↔ 행 2:1-4 (성령 임함의 결, "우리과 같이")
- 행 10:34-35 ↔ 행 15:7-9 (이방인 받으심, 후의 회의)
- 행 10:13-15 ↔ 행 11:5-10 (베드로의 환상 재서술)
- 행 10:38 ↔ 눅 4:18 (선한 일과 고침)
- 행 10:1 ↔ 행 8:40 (가이사라 무대)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제 구시에 기도하다 환상을 본다. 천사가 욕바의 베드로를 칭하라 이르니 사람을 보낸다. 이튿날 그들이 가까이 갈 즈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 황홀경에 빠져, 보자기에 담긴 각종 짐승을 보고 "잡아 먹으라" 들으나 거절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세 번 있는 뒤,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고 성령이 "함께 가라" 이르신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절하자 "일어 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으키고, 두 환상이 맞물린 것을 확인한다. 베드로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며

예수의 행적과 십자가·부활을 전한다.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두에게 내려오니, 방언과 찬양이 따르고, "물로 세례 베푸는 누가 금하리요"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 거절에서 영접으로"
- 초벌 부제: "속되다 하던 입이 영접하고, 세례보다 먼저 성령이 임하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가이사라·교제 위법·무두장이·두 환상 평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음식 환상(11-16)이 식물법 논쟁으로 굳지 않도록 → "속됨/깨끗함" 어휘가 짐승에서 사람(28)으로 옮겨 가는 위치만 기록.
- 성령이 세례보다 먼저 임함(44)의 순서는 본문 보고로만 보존, 교리 도식은 보류.
-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34)는 어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0장은 두 환상이 마주 걸어와 "속되다" 하던 입이 영접하고 말씀 도중 성령이 임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과 욥바의 베드로를, 두 환상으로 서로를 향해 걷게 한다. 베드로는 보자기의 짐승 앞에서 "그럴 수 없나이다"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

라"는 음성을 세 번 듣는다. 짐승에 대한 그 말이 사람에게 대한 깨달음으로 옮겨가(28:34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듣는 모두에게 임하고, 세례가 그 뒤를 따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이사랴(1) ↔ 읍바 지붕(9) ↔ 고넬료의 집(24). 시간 = 제 구시·제 육시. 소품 = 환상·보자기·짐승·성령·물세례. koinos/katharizo·ekstasis.
2 첫 느낌·분위기	두 장소의 교차, 베드로의 거절(14), 세 번 반복(16).
3 시작과 끝	시작 — 한 이방인 백부장(1절). 끝 — 세례·함께 머뭇(48절). 떨어진 돌이 한 지붕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고넬료 / 천사 / 종·군인 / 베드로 / 모인 친척·친구. 거절(14)↔답(15)↔풀이(28). 깨달음(34-35). dektos·ethnos.
5 장면 컷	컷 1 고넬료의 환상(1-8). 컷 2 지붕·짐승(9-16). 컷 3 도착·영접(17-23a). 컷 4 만남·맞물림(23b-33). 컷 5 말씀·성령·세례(34-48).
6 의문·발견·정보	두 환상의 톱니(17). 세 번(16). 교제 위법의 거리(28). 압축된 복음 줄거리(34-43). 성령이 세례보다 먼저(44).
7 동영상	고넬료의 환상 → 지붕의 짐승·거절 → 도착·동행 → 두 환상 맞물림 → 말씀 중 성령·세례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 거절에서 영접으로". 부제 — "속되다 하던 입이 영접하고, 세례보다 먼저 성령이 임하다".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지붕과 두 도시와 모인 집을 걸으며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마주 걸어온 두 환상:** 고넬료의 환상(3-6절)과 베드로의 환상(9-16절)이 17절에서 톱니처럼 맞물린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한 자리로 보내진다.
- 결 2 — 짐승에서 사람으로:**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15절)이 사람을 대하는 말(28절)로 옮겨간다. 환상의 짐승이 문 앞의 사람을 가리킨다.
- 결 3 — 성령이 먼저:**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고(44절), 세례가 그 뒤를 따른다(47-48절). 순서가 뒤집힌 채 본문이 그대로 보고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1-4** (성령 임함, "우리과 같이"), **행 11:5-10** (베드로의 환상 재서술), **행 15:7-9** (이방인 받으심).
- 다른 권 — **눅 4:18** (선한 일과 고침, 38절의 결).
- 정경 흐름 — 1:8의 "땅 끝"이 이방인 가정에 임한 성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음 장 베드로의 변론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기도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그럴 수 없나이다"(14절) 거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라"(15절) 음성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말씀 도중 임한 성령(44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깨끗함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속되다" 하던 자기 거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고넬료가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한다
- [x] 베드로가 지붕에서 짐승 환상을 보고 거절한다
- [x]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라"가 세 번 들린다
- [x] 두 환상이 톱니처럼 맞물린다
- [x] 베드로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깨닫는다
- [x] 말씀 도중 성령이 임한다
- [x] 세례가 그 뒤를 따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깨끗하게 하심.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환상이 꼭 세 번 반복됐는가?

-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16절).
- 세 번이라는 셈만 기록하고 까닭은 보존.

#### Q2. 베드로의 "그럴 수 없나이다"(14)의 무게는?

- 분명한 거절이 음성의 답을 부름.
- 거절과 답의 짝만 기록, 판단은 보류.

#### Q3. 두 환상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물렸는가?

- 고넬료의 보냄(8)과 베드로의 환상(11), 도착(17)이 톱니처럼 맞음.
- 시간의 맞물림만 기록, 까닭은 보존.

#### Q4. 왜 성령이 말씀 도중, 세례보다 먼저 임했는가?

- "이 말을 할 때에"(44절) 임함.
- 순서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 Q5.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26)의 자리는?

- 백부장 앞에서 도리어 그를 일으킴.
- 자세의 위치만 기록, 까닭은 보류.

Q6. "속됨/깨끗함"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옮겨간 결은?

- 15절(짐승)에서 28절(사람)로 어휘가 옮겨감.
- 나란히 뚝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1장

ACT-011 · 역사서(신약) · 헬라어

힐난하던 입이 베드로의 이야기 앞에 잠잠해진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 안디옥에서 제자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1-2절) → 안디옥(19절) ↔ 베니게·구브로·다소·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간다.
- 소품 = 회상되는 보자기·짐승(5-6절), 성령(15절), 바나바의 보냄(22절), 흉년(28절), 부조(29절).
- 전파의 넓어짐 — "유대인에게만"(19) → "헬라인에게도"(20, hellenistes).
- 시대 배경 — 아가보의 흉년 예고, "글라우디오 때"(28절, limos).
- "그리스도인" christianos가 안디옥에서 처음(26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따지는 공기(2-3절)에서 잠잠한 영광(18절)으로 전환.
- 무대가 예루살렘 변론 → 안디옥 새 교회로 바뀜.
- 앞 장 환상이 베드로의 입으로 되풀이됨. "처음"(26절)의 무게.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 소식 들음으로 열림.
- 30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 부조 보냄으로 닫힘.
- 비난에서 나눔으로 옮겨간다. 받아들임(18)·이름(26)·나눔(30)이 차례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베드로 / 할례자들(2) / 흠어진 자들(19) / 바나바(22) / 사울(25) / 아가보(28).
- 베드로의 변론 — "차례로 설명"(4), "내가 누구이기에 막겠느냐"(17).
- 같은 어근 diakrino — 비난(2)·망설임(12) 두 자리.
- 안디옥의 더해짐 — "주께 돌아옴"(21, epistrepho), "더하여짐"(24), "가르침"(26).
- 바나바 — "은혜를 보고 기뻐"(23, charis),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24).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예루살렘, 할례자들의 비난.
- 컷 2 (4-17): 베드로의 차례 설명, 환상 회상, 성령, "내가 누구이기에".
- 컷 3 (18): 잠잠해짐, 하나님께 영광, "생명 얻는 회개".

- 컷 4 (19-26): 안디옥 전파, 헬라인에게도, 바나바·사울, "그리스도인".
- 컷 5 (27-30): 아가보의 흉년 예고, 부조, 예루살렘으로 보냄.

## 6 – (1) 원어 카드

- diakrino(διακρίνω) – 따지다·차별하다·의심하다. 2·12절.
- christianos(Χριστιανός) – 그리스도인. 26절(처음 일컬음).
- ethnos(ἔθνος) – 이방·나라. 1·18절 "이방인에게도".
- charis(χάρις) – 은혜.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 hellenistes(Ἑλληνιστής) – 헬라인·헬리어 쓰는 이. 20절 "헬라인에게도".
- epistrepho(ἐπιστρέφω) – 돌아오다. 21절 "주께 돌아오더라".
- limos(λιμός) – 흉년·기근. 28절 "큰 흉년".
- prophetes(προφήτης) – 선지자. 27절(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

##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예루살렘 변론(1-18) / 안디옥 이야기(19-30).
- 회상의 반복 – 앞 장 환상(10장)이 베드로의 입으로 되풀이됨(5-10).
- 전환의 한 줄 –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18)이 비난을 달고 새 무대를 연다.
- 더해짐 동사의 반복 – 돌아옴(21)·더하여짐(24)·가르침(26).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디옥은 시리아의 큰 도시 – 흩어진 복음이 헬라인에게 이른 무대(19-20절).
- "무할레자와 함께 먹음"(3절)이 당시 유대인에게 문제였던 거리를 본문이 보고.
-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28절)은 시대 배경 – 부조의 까닭.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1:5-10 ↔ 행 10:9-16 (보자기 환상의 회상)
- 행 11:16 ↔ 행 1:5 ("성령으로 세례")
- 행 11:19 ↔ 행 8:1·4 (흩어진 자들의 전파)
- 행 11:25-26 ↔ 행 13:1-3 (바나바·사울 → 파송)
- 행 11:28 ↔ 행 21:10 (아가보의 또 다른 예언)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자들이 "무할레자와 함께 먹었다" 비난한다. 그가 차례로 설명하며, 욥바에서 본 보자기와 짐승, "잡아 먹으라"는 음성과 거절, 세 번의 반복을 다시 이야기한다. 가이사랴에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같이 임했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니, 듣던 이들이 잠잠하여 영광을 돌린다. 무대가 안디옥으로 바뀌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니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바나바가 보냄받아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다소의 사울을 데려와 한 해를 함께 가르친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아가보가 흉년을 예고하니, 제자들이 힘대로 부조를 정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달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가 누구이기에 — 비로소 그리스도인"
- 초벌 부제: "따지던 입이 영광을 돌리고, 새 무대에서 새 이름이 생기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디옥·함께 먹음의 거리·글라우디오 흥년·회상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그리스도인" 명명(26)이 정체성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이름이 생긴 시점·장소만 기록.
- 베드로의 변론(4-17)이 논증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일어난 일"에 기대는 결만 기록.
-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18)는 본문 보고로만 보존, 교리 도식은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1장은 따지던 입이 일어난 일 앞에 잠잠해지고 새 무대 안디옥에서 새 이름이 생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무할레자와 함께 먹었다"는 비난에서 시작한다. 베드로는 논리 대신 자기가 본 것을 차례로 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한다. 따지던 입이 잠잠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간다. 흠어진 복음이 헬라인에게 이르고, 바나바와 사울이 한 해를 가르치며,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받아들임과 새 이름과 흥년의 나눔이 한 장에 이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1) → 안디옥(19) ↔ 베니게·구브로·다소. 소품 = 회상된 보자기·짐승·성령·부조. christianos·hellenistes·limos.
2 첫 느낌·분위기	따지는 공기(2)에서 잠잠한 영광(18)으로. 변론 → 새 교회로 무대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소식 들음·비난(1절). 끝 — 부조 보냄(30절). 비난에서 나눔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베드로 / 할례자들 / 흩어진 자들 / 바나바 / 사울 / 아가보. "내가 누구이기에"(17). diakrino·epistrepho·charis.
5 장면 컷	컷 1 비난(1-3). 컷 2 변론·환상 회상(4-17). 컷 3 잠잠한 영광(18). 컷 4 안디옥·그리스도인(19-26). 컷 5 흥년·부조(27-30).
6 의문·발견·정보	일어난 일로 답함(15). 환상의 재서술(5-10). 안디옥의 새 이름(26). 예고 뒤 곧 나눔(28-29). 사울을 데려옴(25).
7 동영상	비난 → 차례 설명·"내가 누구이기에" → 잠잠한 영광 → 안디옥 전파·그리스도인 → 흥년·부조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내가 누구이기에 — 비로소 그리스도인". 부제 — "따지던 입이 영광을 돌리고, 새 무대에서 새 이름이 생긴다".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변론의 자리와 안디옥의 가르침의 자리를 걸으며 따지다 잠잠해진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일어난 일로 답함:** 베드로는 논리 대신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같이 임했다"(15절)는 사건으로 변론한다. 본 것이 답이 된다.
- 결 2 — 따짐에서 영광으로:** 같은 어근(diakrino)의 비난(2절)과 망설임(12절)이, "잠잠하여 영광"(18절)으로 달한다.
- 결 3 — 새 무대, 새 이름:** 흩어진 복음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이르고(20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26절)이 처음 불린다. 무대가 옮겨가며 이름이 생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0:9-16** (보자기 환상의 회상), **행 8:1-4** (흩어진 자들의 전파), **행 13:1-3** (바나바·사울 → 파송), **행 21:10** (아가보의 또 다른 예언).
- 다른 권 — 본장은 본문 내 회상과 교차에 집중하므로 관찰은 사도행전 안에 머문다.
- 정경 흐름 — 안디옥 교회의 등장은 다음 장들의 선교 파송이 출발하는 자리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따지는 비난의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내가 누구이기에 막겠느냐"(17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따지던 입이 잠잠해지는 자리(1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비로소 그리스도인"(26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막으려던 손이 영광을 돌린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따지다 잠잠해진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다
- [x] 베드로가 본 것을 차례로 설명한다
- [x] "내가 누구이기에 막겠느냐"가 변론의 끝이다
- [x] 따지던 입이 잠잠하여 영광을 돌린다
- [x]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진다
- [x]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 [x] 흉년 예고 뒤 부조가 따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새 이름.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같은 환상 이야기를 또 길게 반복했는가?**

- 앞 장(10장)에서 본 것을 거의 그대로 다시 말함(5-10절).
- 반복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내가 누구이기에 막겠느냐"(17)의 무게는?**

- 논리가 아니라 일어난 일로 답함.
- 변론의 결만 기록, 판단은 보류.

**Q3. 왜 따지던 입이 곧 잠잠해졌는가?**

-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18절).
- 전환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왜 새 이름이 안디옥에서 생겼는가?**

-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26절).
- 장소와 시점만 기록, 까닭은 보류.

**Q5. 흉년 예고 다음 곧 나눔이 따른 결은?**

- 예고를 듣자마자 "각각 힘대로"(29절).
- 순서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Q6.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까닭은?**

- 다소까지 가서 데려옴(25-26절).
-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다리만 기록,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2장

ACT-012 · 역사서(신약) · 헬라어

한 손은 칼을, 한 무릎은 기도를 든다.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저절로 열린 밤, 영광을 가로챈 손은 도리어 벌레에게 먹힌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의 옥(4·6절) → 마리아의 집(12절) → 가이사라의 단(19·21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 무교절(3절), 유월절 후(4절), "그 날 밤"(6절), "택한 날"(21절).
- 소품 = 칼(2절), 쇠사슬(6절, halysis), 빛(7절), 신·띠·겔옷(8절), 철문(10절, pyle, 저절로 열림), 헤롯의 왕복·단(21절).
- "철문이 저절로(automate) 열린지라"(10절) — 행위 주체 없는 표현.
- "벌레에게 먹혀"(23절, skolekobrotos) — 끝 배경을 본문이 직접 말함.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야고보의 죽음(2절)의 어둠에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5절)로.
- 옥의 어둠 안에서 비치는 빛(7절)의 대비.
- 끝이 처음과 정반대 — 가두던 헤롯이 쓰러짐(23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해하려 하여" — 가두는 손으로 열림.
-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 말씀의 흥왕으로 단힘(25절은 바나바·사울의 돌아옴).
- 가두던 손이 쓰러지고 말씀이 자란다. 헤롯의 끝(23)과 말씀의 자람(24)이 나란히.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헤롯 / 야고보(2) / 베드로 / 군인들 / 교회(5) / 주의 사자(7) / 마리아·로데(12-13) / 두로·시돈 사람들(20).
- 대조 — 자는 베드로(6) ↔ 깨어 기도하는 교회(5·12).
- 사자의 단계적 인도 — 깨움(7)·차림(8)·나감(10).
- 모르다가 앎 — "환상 보는가"(9, horama) → "이제야 안다"(11, ginosko).
- 응답 앞 머뭇거림 — "그의 천사라"(15). 두 끝의 영광 — 기도(ektenos, 5) ↔ 가로챈(doxa, 23).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헤롯의 손,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 투옥, 교회의 기도.
- 컷 2 (6-11): 그 밤, 자는 베드로, 빛·사자, 쇠사슬 풀림, 철문 저절로 열림.

- 컷 3 (12-17): 마리아의 집, 로데, 못 믿는 무리, 베드로의 떠남.
- 컷 4 (18-19): 옥의 소동, 파수꾼 심문, 헤롯의 가이사랴行.
- 컷 5 (20-25): 두로·시돈, 연설, 영광 가로챈, 벌레에 먹힘, 말씀의 흥왕.

## 6 – (1) 원어 카드

- proseuche(προσευχή) – 기도. 5절 "간절히 기도하더라".
- ektenos(ἐκτενώς) – 간절히. 5절(기도의 정도).
- angelos(ἄγγελος) – 사자·천사. 7·11·15·23절.
- halysis(ἄλυσις) – 쇠사슬. 6·7절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 pyle(πύλη) – 문·철문. 10절 "철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 doxa(δόξα) – 영광. 23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 skolekobrotos(σκοληκόβρωτος) – 벌레에게 먹힌. 23절.
- auxano(αὐξάνω) – 흥왕하다·자라다. 24절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베드로의 풀림(1-19) / 헤롯의 끝(20-25).
- 기도의 감쌌 – 5절·12절이 풀림을 앞뒤로 둘러쌌.
- 대조 – 자는 죄수(6) ↔ 깨어 기도(5), 가두는 손(1) ↔ 흥왕하는 말씀(24).
- 두 끝의 영광 – 교회의 간절(5)과 헤롯의 가로챈(23).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군인 넷씩 네 패"(4절)는 삼엄한 경비 배경 – 풀림의 대비.
- "철문이 저절로 열림"(10절)은 행위 주체를 두지 않은 표현 – 무대로만.
- 두로·시돈의 화친 청함(20절)은 양식을 헤롯의 땅에 의존한 배경 – 연설의 자리.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2:2 ↔ 막 10:39 (야고보의 잔 예고)
- 행 12:5 ↔ 행 4:24 (교회의 합심 기도)
- 행 12:7 ↔ 행 5:19 (사자가 옥문을 엮)
- 행 12:24 ↔ 행 6:7·19:20 ("말씀이 흥왕"의 후렴)
- 행 12:25 ↔ 행 13:1-3 (바나바·사울·마가 → 파송)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헤롯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이 기뻐하매 베드로도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긴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끌어내려던 그 밤,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빛이 비치고 사자가 깨우니 사슬이 벗어진다. 띠와 신과 겹옷을 차리고 따라 나가, 두 파수를 지나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다. 사자가 떠나자 "이제야 참으로 안다" 하고, 마리아의 집으로 간다. 로데가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 문도 못 열고 알리자 "그의 천사라" 하나, 마침내 보고 놀란다. 베드로가 일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날이 밝아 옥에 소동이 일고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택한 날 왕복을 입고 연설하니 무리가 "신의 소리"라 외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며,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쇠사슬이 벗어지고 철문이 저절로 열린다 — 칼 옆의 기도"
- 초벌 부제: "가두던 손이 무너지고, 풀린 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자라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무교절·네 패 경비·두로 시돈 화친·기도 감쌌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야고보의 죽음(2)과 베드로의 풀림(11)의 두 결말이 보상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두 사실의 병치만 기록.
- "철문이 저절로 열림"(10)은 행위 주체 없는 본문 표현 그대로만 보존.
- 헤롯의 끝(23)이 인과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영광 가로챈"의 본문 보고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2장은 칼과 기도가 한 밤에 부딪혀 가두던 손이 무너지고 풀린 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자라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헤롯의 칼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어둠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 자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어지고 철문이 저절로 열린다. 풀린 베드로가 기도하던 집의 문 앞에서 "그의 천사라"는 머뭇거림을 만나고, 곧 다른 곳으로 간다.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손은 벌레에게 먹히고, 그 끝의 바로 다음 줄에서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옥(4·6) → 마리아의 집(12) → 가이사라의 단(21). 시간 = 무교절·그 밤·택한 날. 소품 = 칼·쇠사슬·빛·철문·왕복. halysis·pyle·skolekobrotos.
2 첫 느낌·분위기	야고보의 죽음(2)의 어둠에서 간절한 기도(5)로. 옥 안의 빛(7). 끝의 역전(23).
3 시작과 끝	시작 – 가두는 손(1절). 끝 – 말씀의 흥왕(24절). 손이 무너지고 말씀이 자람.
4 등장인물·상황·사상	헤롯 / 야고보 / 베드로 / 교회 / 사자 / 마리아·로테 / 두로·시돈. 자는 죄수 ↔ 깨어 기도. "그의 천사라"(15). doxa·ektenos.
5 장면 컷	컷 1 헤롯의 손·기도(1-5). 컷 2 풀림·철문(6-11). 컷 3 마리아의 집(12-17). 컷 4 옥의 소동(18-19). 컷 5 헤롯의 끝·흥왕(20-25).
6 의문·발견·정보	기도의 감쌌(5·12). 두 결말(2·11). 저절로 열림(10). 헤롯의 끝과 흥왕의 붙음(23-24).
7 동영상	칼·기도 → 풀린 사슬·철문 → 못 믿는 집 → 옥의 소동 → 영광 가로챈의 끝·흥왕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쇠사슬이 벗어지고 철문이 저절로 열리다 – 칼 옆의 기도". 부제 – "가두던 손이 무너지고, 풀린 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자라다".
9 동영상 안건기·기도	옥과 기도하던 집과 헤롯의 단을 걸으며 응답을 못 믿던 방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칼 옆의 기도:** 야고보의 죽음(2절) 끝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5절)가 놓인다. 박해와 기도가 같은 밤을 함께 산다.
2. **결 2 – 자는 죄수, 깨어 기도:** 갇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자고(6절), 자유로운 교회는 깨어 기도한다(12절). 자세가 뒤바뀐 채 풀림이 온다.
3. **결 3 – 영광의 두 끝:**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ektenos, 5절), 헤롯은 영광을 가로챈다(doxa, 23절). 한 쪽은 드리고 한쪽은 가로채며, 끝이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4:24** (교회의 합심 기도), **행 5:19** (사자가 옥문을 열), **행 6:7·19:20** ("말씀이 흥왕"의 후렴), **행 13:1-3** (바나바·사울·마가 → 파송).
- 다른 권 – **막 10:39** (야고보의 잔 예고, 2절의 결).
- 정경 흐름 – 풀린 베드로와 흥왕하는 말씀 뒤, 마가를 데린 바나바·사울이 다음 장 파송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칼과 옥의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5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쇠사슬이 벗어지고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자리(7·10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의 천사라"(15절) 머뭇거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두던 손은 무너지고 말씀은 자란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믿던 방\*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다
- [x]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 [x] 자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어진다
- [x] 철문이 저절로 열린다
- [x] 기도하던 이들이 "그의 천사라" 머뭇거린다
- [x]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벌레에게 먹힌다
- [x]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흥왕하는 말씀.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풀렸는가?

- 같은 박해 아래 두 결말(2·11절).
- 두 사실의 병치만 기록하고 까닭은 보존.

Q2. "철문이 저절로 열림"(10)의 표현은?

- 행위 주체를 두지 않은 드문 서술.
- 본문 표현 그대로만 보존, 까닭은 보류.

Q3. 왜 기도하던 이들이 응답을 못 믿었는가?

-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라"(15절).
- 머뭇거림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자는 죄수와 깨어 기도하는 교회의 대조는?

- 갇힌 자는 자고 자유로운 자들은 깬다(5-6절).
- 대조만 기록, 판단은 보류.

Q5. 왜 헤롯의 끝과 말씀의 흥왕이 바로 붙어 있는가?

- "벌레에게 먹혀"(23) 다음 줄에 "흥왕"(24).
- 순서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Q6. 베드로는 왜 곧 다른 곳으로 갔는가?

- "알리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17절).

- 동선만 기록,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3장

ACT-013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금식하던 손이 둘을 따로 세워 보낸다. 구브로의 박수와 눈먼 거짓 선지자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긴 이야기가 풀린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안디옥 교회(1절) → 실루기아·구브로(살라미·바보, 4-6절) → 버가(13절) →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14절) → 이고니온(51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 금식할 때(2절), 안식일(14·42·44절). 안식일이 무대를 끊는다.
- 소품 = 금식·안수의 손(2-3절), 박수 엘루마와 눈먼(8·11절), 회당과 율법·선지자의 글(15절), 발의 티끌(51절).
- "주를 섬겨" leitourgeo, "금식" nesteia, "따로 세우라" aphorizo(2절).
- "바예수... 번역하면 엘루마"(6-8절)를 본문이 직접 옮김. 호칭 전환 "바울이라 하는 사울"(9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고요한 금식의 예배(2절)에서 보냄이 나옴.
- 이름·순서의 전환 — "바나바와 사울" → "바울과 그 일행"(9·13절).
- 긴 설교(16-41절)가 한 가운데. 끝의 두 반응 — 기쁨(48)과 박해(50).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 한 교회로 열림.
-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 충만으로 닫힘.
- 보내는 교회에서 떠난 자리의 충만으로. 향함(46)·기쁨(48)·박해(50)·충만(52)이 끝에 몰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안디옥의 선지자·교사 5인(1) / 성령(2) / 엘루마·서기오 바울(7-8) / 마가 요한(13) / 유대인·이방인.
- 갈라짐 — 막음(엘루마, 8) ↔ 믿음(총독, 12), 청함(42) ↔ 시기·비방(45).
- 설교의 한 줄기 — 출애굽(17)·다윗(22)·예수(23)·부활(33-34). anistemi.
- 핵심 — "죄 사함... 의롭다 하심"(38-39, dikaiou). "비방"(45, blasphemeo).
- "이방의 빛"(47, phos) 인용 — "땅 끝까지".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안디옥, 금식·예배, "따로 세우라", 안수·보냄.
- 컷 2 (4-12): 구브로, 엘루마, 눈먼, 총독의 믿음.

- 컷 3 (13-15): 버가·마가의 돌아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청함.
- 컷 4 (16-41): 바울의 긴 설교, 출애굽-다윗-예수, 죽음·부활, 죄 사함·의롭다 하심, 경고.
- 컷 5 (42-47): 다음 안식일, 온 시민, 시기·비방, "이방인에게로", 빛의 인용.
- 컷 6 (48-52): 이방인의 기쁨·믿음, 박해, 발의 티끌, 이고니온行, 충만.

## 6 – (1) 원어 카드

- leitourgeo(λειτουργέω) – 섬기다·예배하다. 2절 "주를 섬겨".
- nesteia(νηστεία) – 금식. 2·3절.
- aphorizo(ἀφορίζω) – 따로 세우다·구별하다. 2절 "따로 세우라".
- charis(χάρις) – 은혜. 43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 anistemi(ἀνίστημι) – 다시 살리다·일으키다. 33·34절(부활).
- dikaios(δικαίω) – 의롭다 하다. 38-39절.
- blasphemeo(βλασφημέω) – 비방하다. 45절.
- phos(φῶς) – 빛. 47절 "이방의 빛으로 삼아".

## 6 – (2) 문학 구조

- 세 묶음 – 보냄·여정(1-15) / 긴 설교(16-41) / 갈라짐(42-52).
- 설교의 두 부름 – "이스라엘 사람들..."(16), "아브라함의 후손..."(26).
- 보냄의 두 손 – 교회가 보냄(3) ↔ 성령이 보냄(4).
- 두 안식일의 대조 – 청함(42) ↔ 시기·비방(45).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구브로(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과 닿는 섬 – 첫 기착지 배경(4절).
- 회당에서 율법·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15절)는 당시 회당 관습 – 설교의 자리.
-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림"(51절)은 결별의 표시 동작 – 무대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3:2 ↔ 행 11:25-26 (바나바·사울의 안디옥)
- 행 13:33 ↔ 시 2:7 ("너는 내 아들이라" 인용)
- 행 13:47 ↔ 사 49:6 ("이방의 빛" 인용)
- 행 13:51 ↔ 눅 9:5 (발의 티끌을 뺏)
- 행 13:9 ↔ 행 9:1 (사울 → 바울)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다. 금식하며 안수하고 보내니, 둘이 구브로로 건너간다. 바보에서 박수 엘루마가 막으매 바울이 꾸짖어 그가 눈멀고, 총독이 믿는다.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일어나 출애굽과 다윗을 지나 그 후손 예수를 전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말한다.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비방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며 "이방의 빛"을 인용한다. 이방인들이 기뻐 찬송하나 박해가 일어, 두 사람이 발의 티끌을 떨어 이고니온으로 떠나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따로 세우라 — 한 설교 앞에서 갈라진 길"
- 초벌 부제: "금식이 둘을 떠나보내고, 한 설교 앞에서 길이 갈라지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구브로·회당 관습·발의 티끌·시 2편·사 49편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긴 설교(16-41)가 신학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역사 줄기와 인용 위치만 기록.
- "의롭다 하심"(38-39, dikaios)은 본문 어휘 위치로만 보존, 교리 체계는 보류.
- 두 안식일의 청함·비방은 사실 병치만 기록, 인과 판단은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3장은 금식하던 교회가 둘을 따로 세워 보내고 한 긴 설교 앞에서 길이 갈라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고요한 금식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보냄으로 시작한다. 구브로에서 막는 손(엘루마)과 믿는 자(총독)가 갈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출애굽부터 부활까지 한 줄기로 풀어낸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같은 회당이 한 주는 청하고 다음 주는 시기한다. "이방의 빛"이 인용되며, 기쁨과 박해가 한 자리에 놓인 채 두 사람은 발의 티끌을 떨고 떠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안디옥(1) → 구브로(4) → 버가(13) →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14) → 이고니온(51). 시간 = 금식·안식일. 소품 = 안수의 손·엘루마의 눈땀·밭의 티끌. aphorizo·leitourgeo.
2 첫 느낌·분위기	고요한 금식의 보냄. 이름·순서 전환(9·13). 긴 설교가 한가운데. 끝의 두 반응(48·50).
3 시작과 끝	시작 — 보내는 교회(1절). 끝 — 총만(52절). 박해 옆의 기쁨.
4 등장인물·상황·사상	안디옥 5인 / 성령 / 엘루마·총독 / 마가 / 유대인·이방인. 막음↔믿음, 청함↔비방. dikaioo·blasphemeo·phos.
5 장면 컷	컷 1 금식·보냄(1-3). 컷 2 구브로·엘루마(4-12). 컷 3 버가·회당(13-15). 컷 4 긴 설교(16-41). 컷 5 시기·"이방인에게로"(42-47). 컷 6 기쁨·박해·총만(48-52).
6 의문·발견·정보	두 손의 보냄(3·4). 마가의 돌아감(13). 호칭 전환(9). 설교의 두 부름(16·26). 두 안식일(42·45).
7 동영상	금식·보냄 → 구브로의 갈라짐 → 긴 설교 → 시기·"이방인에게로" → 기쁨·박해·떠남·총만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따로 세우라 — 한 설교 앞에서 갈라진 길". 부제 — "금식이 둘을 떠나보내고, 한 설교 앞에서 길이 갈라지다".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금식의 자리와 회당과 떠나는 길을 걸으며 보내는 교회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결 1 — 두 손의 보냄:** 교회가 보내고(3절) 성령이 보낸다(4절). 같은 출발이 사람의 손과 위로부터의 손으로 함께 적힌다.
2. **결 2 — 막음과 믿음:** 구브로에서 엘루마는 막다 눈멀고(8·11절), 총독은 믿는다(12절). 한 자리에서 두 길이 갈린다.
3. **결 3 — 청함과 비방:** 같은 회당이 한 안식일엔 청하고(42절) 다음 안식일엔 시기한다(45절). 같은 말이 두 반응을 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1:25-26** (바나바·사울의 안디옥), **행 9:1** (사울 → 바울), **행 1:8** ("땅 끝"의 걸).
- 다른 권 — **시 2:7** ("너는 내 아들이라", 33절 인용), **사 49:6** ("이방의 빛", 47절 인용), **눅 9:5** (밭의 티끌).
- 정경 흐름 — 이 첫 긴 이방 설교가 다음 장들의 여정을 여는 자리가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금식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따로 세우라"(2절)는 보냄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막는 손과 믿는 자가 갈리는 자리(11-12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이방의 빛"(47절) 인용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말이 길을 가르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금식하며 보내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금식하던 교회가 돌을 따로 세워 보낸다
- [x] 구브로에서 엘루마가 눈멀고 총독이 믿는다
- [x]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긴 설교가 풀린다
- [x] 출애굽에서 부활까지 한 줄기로 이어진다
- [x]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선포된다
- [x] 같은 회당이 청하다 시기한다
- [x] 기쁨과 박해가 함께 놓인 채 떠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방의 빛.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보냄이 사람의 손과 성령의 손으로 두 번 말해졌는가?

- "보내니라"(3) /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4).
- 두 표현의 병치만 기록하고 까닭은 보존.

Q2. 왜 마가 요한이 벱가에서 돌아갔는가?

-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음(13절).
- 사실만 기록, 판단은 보류.

Q3. "바울이라 하는 사울"(9)의 호칭 전환은?

- 이 절을 기점으로 호칭·순서가 바뀜.
- 전환 지점만 기록, 까닭은 보존.

Q4. 왜 같은 회당이 한 주는 청하고 다음 주는 시기했는가?

- 청함(42)과 시기·비방(45)의 갈림.
- 순서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Q5. 기쁨(48)과 박해(50)는 왜 붙어 있는가?

- 찬송 직후에 박해가 옴.
- 병치만 기록, 까닭은 보류.

Q6. "이방의 빛"(47)과 "땅 끝"의 결은?

- 1:8의 "땅 끝"과 닿는 인용.
- 나란히 둠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14장

ACT-014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신으로 떠받들던 무리가 곧 돌을 든다. 옷을 찢으며 "우리도 사람이라" 외친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돌아보며 길을 세운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이고니온 회당(1절) → 루스드라·더베(6절) → 다시 루스드라·이고니온·안디옥(21절) → 비시디아·밤빌리아·안디옥(24-26절)으로 되짚는다.
- 무대 안팎 — 회당(1)·성문 앞 신당(13)·성 밖(19)·성 안(20).
- 소품 = 표적의 손(3절), 발 못 쓰던 사람(8절), 황소·화환(13절), 찢은 옷(14절), 돌(19절), 장로 세움·금식 기도(23절).
- 두 신의 이름 —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12절). "헛된 일" mataios(15절).
- "루가오니아 방언"(11절)을 본문이 표시.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나뉜 성(4절)의 갈라짐.
- 루스드라의 급변 — 제사하려 함(13)과 돌로 침(19)이 가까움.
- 되짚는 동선 — 보냄과 돌아옴이 한 장애. 못 쓰던 발(8)이 곧 걷는 발(10).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 믿음의 자리로 열림.
-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 돌아와 머뭇으로 닫힘.
- 떠남이 돌아옴으로. 27절(믿음의 문을 여심 보고). 환난(22)·세움(23)·보고(27)·머뭇(28)이 끝에 몰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바나바 / 이고니온 무리 / 발 못 쓰던 사람(8) / 루스드라 무리·제사장(13) / 충동하는 유대인(19) / 제자·장로.
- 급변 — 떠받들(11-13) ↔ 돌로 침(19).
- 막음 — "옷을 찢고... 우리도 사람이라"(14-15). theos/anthropos.
- 고침 — "구원 받을 믿음(pistis)을 보고... 일어서라"(9-10).
- 돌아오는 길 — "굳게 하여(episterizo)"(22), "장로를 택하여 위탁"(23). "환난" thlipsis.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이고니온, 나뉜 무리, 음모, 피함.

- 컷 2 (8-13): 루스드라, 발 고침, 제우스·헤르메스, 제사하려 함.
- 컷 3 (14-18): 옷 찢음, "우리도 사람이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 컷 4 (19-20): 돌로 치م, 죽은 줄 얹, 일어나 더베로.
- 컷 5 (21-28): 더베 전도, 되짚는 길, 굳게 함, 장로 세움, 안디옥 보고·머뭇.

## 6 – (1) 원어 카드

- schizo(σχίζω) 계열 – 찢다·나뉜다. 4절(나뉜 무리), 14절(옷을 찢고, diarresso).
- theos(θεός) – 신·하나님. 11절(신들이 내려옴), 15절(살아 계신 하나님).
- anthropos(ἄνθρωπος) – 사람. 15절 "우리도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 lithazo(λιθάζω) – 돌로 치다. 19절.
- mataios(μάταιος) – 헛된. 15절 "헛된 일을 버리고".
- pistis(πίστις) – 믿음. 9절 "구원 받을 만한 믿음".
- episterizo(ἐπιστηρίζω) – 굳게 하다. 22절 "마음을 굳게 하여".
- presbyteros(πρεσβύτερος) – 장로. 23절 "장로들을 택하여".

##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나가는 여정(1-20) / 돌아오는 길(21-28).
- 대조 – 떠받들(11-13) ↔ 돌팔매(19), 못 쓰던 발(8) ↔ 일어선 발(10).
- 역순의 되짚음 – 박해받은 성들로 다시 들어감(21).
- "일어서라/일어남" 결의 반복 – 10절(고침)·20절(돌 맞은 뒤).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루가오니아는 그 지역 방언이 따로 있던 곳(11절) – 늦은 알아챈 배경.
- 제우스·헤르메스는 그 지역에 알려진 신들 – 떠받들의 배경(12절).
- 황소와 화환(13절)은 제사 준비물 – 무대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4:8-10 ↔ 행 3:6-8 (얕은뱅이의 일어섬)
- 행 14:15 ↔ 행 17:24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 행 14:19 ↔ 고후 11:25 (돌에 맞음의 회상)
- 행 14:23 ↔ 행 20:17 (장로 세움)
- 행 14:27 ↔ 행 15:3-4 (믿음의 문 보고 → 예루살렘)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이고니온 회당에서 두 사도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으나, 성이 나뉘고 해하려는 음모가 일어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한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 못 쓰던 사람을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고치니, 무리가 방언으로 "신들이 내려왔다" 외치며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른다.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으로 제사하려 하매,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뛰어들어 "우리도 사람이라,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 겨우 말린다. 안디옥·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 충동하니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끌어내나, 그

가 일어나 도로 들어갔다 더베로 간다.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삼고, 박해받은 성들로 되돌아가 마음을 굳게 하며 장로를 세워 위탁한다. 안디옥으로 돌아와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고 오래 머문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 떠받들고 돌팔매 사이"
- 초벌 부제: "신으로 떠받들던 무리가 돌을 들고, 되짚는 길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루가오니아 방언·제우스 헤르메스·제사 준비물·되짚는 동선)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루스드라의 떠받들·돌팔매 급변이 균중심리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두 사실의 병치만 기록.
- 발 고침(8-10)이 치유 도식으로 굳지 않도록 → "믿음을 보고"의 본문 표현만 기록.
- 돌아오는 길의 "굳게 함·세움"(22-23)은 동작 위치만 보존, 제도 도식은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4장은 떠받들던 무리가 곧 돌을 드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되짚어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나뉜 성 이고니온에서 시작해,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킨다. 같은 무리가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다, 옷을 찢으며 "우리도 사람이라" 외친 직후 돌을 든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

더베로 갔다가, 박해받았던 바로 그 성들로 되돌아가 마음을 굳게 하고 장로를 세운다. 떠남이 돌아옴으로, 돌팔매가 세움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이고니온(1) → 루스드라·더베(6) → 되짚는 길(21) → 안디옥(26). 안팎 = 회당·신당·성 밖·성 안. 소품 = 황소·화환·찢은 옷·돌·장로 세움. theos/anthropos·mataios.
2 첫 느낌·분위기	나닌 성(4). 루스드라의 급변(13·19). 못 쓰던 발(8)→걷는 발(10). 보냄과 돌아옴.
3 시작과 끝	시작 — 믿음(1절). 끝 — 돌아와 머뭇(28절). 떠남이 돌아옴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바나바 / 무리·제사장 / 발 못 쓰던 사람 / 충동하는 유대인 / 장로. 떠받들↔돌팔매. pistis·episterizo·thlipsis.
5 장면 컷	컷 1 이고니온·나님(1-7). 컷 2 발 고침·제우스(8-13). 컷 3 옷 찢음·막음(14-18). 컷 4 돌·일어남(19-20). 컷 5 되짚는 길·세움·보고(21-28).
6 의문·발견·정보	"일어서라" 반복(10·20). 급변(13·19). 루가오니아 방언(11). 역순의 되짚음(21). 굳게 함·세움(22-23).
7 동영상	나닌 성 → 발 고침·떠받들 → 옷 찢음·막음 → 돌·일어남 → 되짚는 길·세움·보고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 떠받들과 돌팔매 사이". 부제 — "신으로 떠받들던 무리가 돌을 들고, 되짚는 길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회당과 성문과 되짚는 길을 걸으며 떠받들다 돌을 들던 무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떠받들과 돌팔매:** 같은 무리가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다(11-13절) 곧 돌을 든다(19절). 칭송과 폭력이 짧은 사이에 함께 온다.
- 결 2 — 우리도 사람이라:**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우리도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15절) 외친다. 떠받들을 받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린다.
- 결 3 — 되짚어 세움:** 돌 맞은 자가 일어나(20절), 박해받았던 성들로 도로 들어가 마음을 굳게 하고 장로를 세운다(22-23절). 피함이 아니라 되짚음이 길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3:6-8** (얇은뱅이의 일어섬), **행 17:24**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행 20:17** (장로 세움), **행 15:3-4** (믿음의 문 보고 → 예루살렘).
- 다른 권 — **고후 11:25** (돌에 맞음의 회상)과도 닿으나, 관찰은 본장 본문에 머문다.
- 정경 흐름 —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의 보고(27절)가 다음 장 예루살렘 회의의 자리를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나닌 성의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떠받들과 돌팔매가 가까운 자리(13·19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우리도 사람이라"(15절) 외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돌 맞은 자가 일어나 되돌아가는 자리(20-21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피함이 아니라 되짚음이 길을 세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떠받들다 곧 돌을 들던 무리\* 가운데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고니온의 성이 나뉜다
- [x]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던 사람이 일어선다
- [x] 무리가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다
- [x]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외쳐 막는다
- [x] 같은 무리가 곧 돌을 든다
- [x] 돌 맞은 자가 일어나 되돌아간다
- [x] 되짚는 길에서 장로를 세우고 보고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믿음의 문.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떠받들던 무리가 그렇게 빨리 돌을 들었는가?**

- 제사하려 함(13)과 돌로 침(19)이 가까움.
- 급변만 기록하고 까닭은 보존.

**Q2. 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떠받들을 막았는가?**

-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15절).
- 단호한 막음만 기록, 판단은 보류.

**Q3.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9)의 무게는?**

- 고침이 "믿음을 보고"에서 나옴.
- 본문 표현만 기록, 까닭은 보존.

**Q4. 왜 돌 맞은 뒤 곧 위험한 성들로 되돌아갔는가?**

- 피하지 않고 되짚는 동선(20-21절).
- 동선만 보존, 까닭은 묵상에서.

**Q5.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22)는 왜 권면의 한가운데 있는가?**

- 굳게 함의 말 가운데 환난이 옴.
- 위치만 기록, 판단은 보류.

Q6. "믿음의 문을 여신 것"(27)의 결은?

- 돌아와 보고의 핵심이 됨.
- 나란히 돕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5장

ACT-015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명예를 메우지 말라"는 한 판결이 문을 연다. 할례 논쟁의 회의에서 결정이 편지가 되어 내려가고, 그 곁에서 두 동역자가 갈라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안디옥(1절) → 예루살렘 회의(6절) → 다시 안디옥(30절) → 길 위(36·41절)로 옮겨간다.
- 배경 제도 = 할례·모세의 율법(1·5절)이 논쟁의 바탕에 깔린다.
- 소품 = 명예(10절), 편지(23·30절), 끝에 동역의 갈림으로 마가 요한(37절).
- zygos(명예)·ekklesia(교회)·presbyteros(장로)가 회의의 무대 어휘로 깔린다.
- 28-29절의 결정 사항은 16:4에서 dogma(작성한 규례)로 불린다(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처음은 다툼("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2절), 가운데는 발언의 연쇄로 차분해짐, 끝은 갈라짐(39절).
- 발언 → 침묵 → 발언의 리듬(베드로·바나바·바울·야고보).
- 모임("마음을 같이하여", 25절)과 갈라짐(paroxysmos, 39절)이 한 장에 함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 갈라놓는 가르침으로 열림.
- 41절: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 세우는 걸음으로 닫힘.
- 흐는 말에서 세우는 걸음으로. 그 사이에 결별(39절)이 끼어 있으나 끝의 견고함을 지우지 않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바나바 /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1) / 바리새파 믿는 자들(5) / 사도·장로(6) / 베드로(7) / 야고보(13) / 유다(바사바)·실라(22) / 마가 요한(37).
- 발언의 연쇄 — 베드로(성령 주심·명예·은혜, 7-11) → 바나바·바울(표적, 12) → 야고보(아모스 인용·판결, 13-21).
- 사상 = 명예(10) vs 은혜(charis, 11). 야고보의 판결 = 괴롭게 말라 + 네 가지를 멀리하라(19-20).
- "돌아오는"(epistrophe, 19)과 "심히 다투어"(paroxysmos, 39)가 같은 장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안디옥의 다툼, 할례 주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바리새파의 주장.
- 컷 2 (6-11): 사도·장로 모임, 많은 변론, 베드로의 발언(성령·명예·은혜).
- 컷 3 (12-21): 바나바·바울의 보고, 야고보의 아모스 인용과 판결.

- 컷 4 (22-29): 편지 작성, 유다·실라 파송,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 컷 5 (30-35): 안디옥에 편지 전함, 무리 위로, 유다·실라 권면, 바울·바나바 가르침.
- 컷 6 (36-41): 마가를 두고 다툼, 결별 — 바나바·마가는 구브로, 바울·실라는 수리아·길리기아.

## 6 — (1) 원어 카드

- zygōs(ζυγός) — 멍에. 10절 "조상도 우리도 메지 못하던 멍에".
- charis(χάρις) — 은혜.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 ekklesia(ἐκκλησία) — 교회·회중. 회의의 주체(4·22절).
- presbyteros(πρεσβύτερος) — 장로. 사도와 함께 모임의 주체(2·4·6·22·23).
- episkeptomai(ἐπισκέπτομαι) — 돌아보다·찾아오다. 14절 "이방인을 돌보신 것".
- epistrepheo(ἐπιστρέφω) — 돌이키다. 19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 paroxysmos(παροξυσμός) — 격해짐·날카로워짐. 39절 "심히 다투어".
- dogma(δόγμα) — 작성한 규례. 16:4가 본장 28-29절 결정을 가리킴(배경).

## 6 — (2) 문학 구조

- 문제 제기(1-5) → 판결·편지(6-29) → 전달·갈라짐(30-41)의 세 묶음.
- 발언의 연쇄 — 베드로(7-11)·바나바·바울(12)·야고보(13-21). 야고보가 닫는다.
- 야고보 판결의 두 부분 — "괴롭게 말라"(19) + "네 가지를 멀리하라"(20·29).
- 큰 문제(할례)는 합의(25)로, 작은 문제(마가 동행)는 갈라짐(39)으로 — 역순의 대조.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야고보의 인용(16-17절)은 아모스 9:11-12 절("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방인"). 선지서가 이방인의 자리를 말하는 대목.
- "우상의 더러운 것·음행·목매어 죽인 것·피"(20·29절)는 당시 이방·유대 식탁 교제의 배경과 닿음 — 배경으로만.
- 편지의 "성령과 우리는"(28절)은 결정의 주체를 성령과 사람으로 나란히 두는 본문 표현 — 그대로 기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5:7-9 ↔ 행 10-11 (베드로·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 주심)
- 행 15:16-17 ↔ 암 9:11-12 (다윗의 장막·이방인 인용)
- 행 15:23-29 ↔ 행 16:4 (편지의 결정이 dogma로 전해짐)
- 행 15:37-39 ↔ 행 13:13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떠난 일)
- 행 15:11 ↔ 엡 2:8 (은혜로 구원받음의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안디옥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 없이는 구원 없다" 가르치자 다툼이 인다. 교회는 바울·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낸다. 사도와 장로가 모여 많은 변론을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 멍에를 메우지 말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한다. 무리가 잠잠히 바나바·바울의 표적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하며 "괴롭게 말고 네 가지만 멀리하라" 판결한다.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편지를 써 유다·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니,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

은 줄 알았다" 한다. 안디옥에서 편지가 읽히고 무리가 위로받는다. 얼마 뒤 바울이 재방문을 제안하나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선다.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길리기아로 떠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한 줄로 달린다.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멍에를 메우지 말라 — 한 편지의 판결, 갈라선 두 길"
- 초별 부제: "할례의 멩에를 벗기는 판결, 그 곁에서 갈라서는 두 동역"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아모스 인용·할례 제도·편지·식탁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네 가지를 멀리하라"(20·29)가 율법주의/규례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판결 항목의 위치만 기록.
- "심히 다투어"(39, paroxysmos)를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고, 두 갈래 여정의 결과만 보존.
- "성령과 우리는"(28)을 교회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표현 그대로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에게 할례의 멩에를 메울 것인가를 두고 한 회의가 판결을 내려 편지로 보내고, 그 곁에서 두 동역이 갈라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안디옥의 다툼에서 시작한다. "할례 없이는 구원 없다"는 가르침이 적지 않은 변론을 부르 고,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낸다. 사도와 장로가 모여 베드로의 증언과 바나바·바울의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하며 "괴롭게 말고 네 가지만 멀리하라" 판결한다. 결정은 말로 끝나지 않고 편지가 되어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위로한다. 그러나 같은 장 끝에서, 큰 문제를 한마음으로 풀 두 사람이 마가 요한 한 사람을 두고 심히 다투어 갈라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안디옥(1) → 예루살렘 회의(6) → 안디옥(30) → 길 위(36-41). 배경 = 할레·율법. 소품 = 멩에(zygos)·편지·마가.
2 첫 느낌·분위기	다툼 → 발언의 연쇄로 차분 → 갈라짐. 한마음(25)과 paroxysmos(39)가 함께.
3 시작과 끝	시작 — 갈라놓는 가르침(1). 끝 — 교회를 견고하게(41). 흘는 말에서 세우는 걸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바나바 / 베드로 / 야고보 / 유다·실라 / 마가. 멩에(10) vs 은혜(charis, 11). 판결 = 괴롭게 말라 + 네 가지(19-20).
5 장면 컷	컷 1 다툼(1-5). 컷 2 베드로(6-11). 컷 3 야고보 판결(12-21). 컷 4 편지(22-29). 컷 5 전달·위로(30-35). 컷 6 결별(36-41).
6 의문·발견·정보	아모스 인용(16-17). "성령과 우리는"(28). 큰 문제 합의·작은 문제 갈라짐의 역순. paroxysmos(39).
7 동영상	다툼 → 회의 → 판결 → 편지 → 전달·위로 → 결별·두 갈래 길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멍에를 메우지 말라 — 한 편지의 판결, 갈라선 두 길". 부제 — "할레의 멩에를 벗기는 판결, 그 곁에서 갈라서는 두 동역".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회의 자리를 걸으며 멩에를 메우려던 자리와 다투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멩에와 은혜:** 베드로는 "조상도 메시 못하던 멩에"(10절)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11절)을 맞붙인다. 메울 멩에와 거저 받는 은혜가 한 발언에 같이 있다.
- 결 2 — 성령과 우리는:** 편지는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다"(28절)며 결정의 주체를 둘로 나란히 둔다. 사람의 회의와 성령의 인도가 한 문장에 놓인다.
- 결 3 — 합의와 갈라짐:** 큰 문제(할레)는 한마음으로 닫히고(25절), 작은 문제(마가 동행)는 심히 다투어 갈라선다(39절). 본문은 합의와 갈라짐을 한 장에 나란히 보고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0-11** (베드로·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 주심), **행 16:4** (편지 결정이 dogma로 전해짐), **행 13:13**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떠난 일).
- 다른 권 — **암 9:11-12** (다윗의 장막·이방인, 16-17절 인용), **엡 2:8** (은혜로 구원받음의 결).
- 정경 흐름 — 15장의 판결은 사도행전의 무게중심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로 옮기는 경첩으로, 16장 이후 바울의 여정으로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할레 논쟁의 다툼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성령과 우리는"이라 적힌 편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마음의 회의 결에서 갈라서는 두 동역을 보며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메울 명에와 거저 받는 은혜는 다른 것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남에게 명에를 메우려던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할례를 두고 다툼이 인다
- [x] 베드로가 "명에를 메우지 말라" 한다
- [x] 야고보가 "괴롭게 말고 네 가지만 멀리하라" 판결한다
- [x] 결정이 편지가 되어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 [x] 무리가 편지로 위로받는다
- [x] 마가를 두고 바울·바나바가 갈라선다
- [x] 두 갈래 길이 다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은혜.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네 가지"(우상·음행·목매어 죽인 것·피, 20·29절)만 남겨졌는가?**

- 명에를 벗기면서도 네 항목은 멀리하라 하심.
- 풀어줌과 남겨둠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큰 문제는 합의로, 작은 문제는 갈라짐으로 끝난 까닭은?**

- 할례(25절 한마음)와 마가 동행(39절 paroxysmos)의 역순.
- 두 결말의 대조만 기록.

**Q3. "성령과 우리는"(28절)의 나란한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결정의 주체로 성령과 사람을 함께 둬.
- 본문 표현의 위치만 보존, 교회론으로 확장하지 않음.

**Q4. 야고보는 왜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이 판결을 내렸는가?**

- 베드로의 증언 뒤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19절)으로 닫음.
- 발언 순서와 닫는 자리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류.

**Q5. 바나바는 왜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려 했는가?**

- 밤빌리아에서 떠난 마가(13:13)를 바울은 거절, 바나바는 동행 고집(37-38절).
- 두 시선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갈라선 두 길이 모두 "견고하게"(41절)로 이어진 까닭은?

- 결별이 선교의 두 갈래가 되고, 두 갈래가 다 교회를 세움.
- 나란히 뚝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6장

ACT-016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 환상이 바다를 가르다. 빌립보의 강가와 시장과 옥에서, 마음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한 집이 세례를 받는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루스드라(1) → 드로아(8) → 빌립보 강가(13) → 시장·옥(19·24) → 간수의 집(34)으로 옮겨간다.
- 빌립보 = "마게도냐 첫 성, 로마의 식민지"(kolonia, 12절)가 배경 장치.
- 소품 = 환상(horama, 9), 자색 옷감(14), 점치는 귀신(16), 옥문·차꼬(24·26), 칼(27), 물·세례(33).
- 로마 시민권(37)이 끝의 변수로 작동.
- 시간 표지 — 안식일(13)·밤 환상(9)·한밤중(25)·날이 새매(35).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막힘("못하게 하시거늘", 6·7절) → 환상으로 열림(9절).
- 밤이 반복(환상·옥·찬송). 어둠 속의 일.
- 10절부터 화자가 "우리"로 바뀜(시점 전환).
- 씻음의 물 반복(루디아 15·간수 33).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디모데를 만남 — 한 사람을 얻으며 열림.
- 40절: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위로 — 한 공동체로 단합.
- 한 사람에서 한 집으로. 끝의 "루디아의 집"이 13-15절 첫 집으로 돌아옴(수미 호응).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디모데와 부모(1) / 바울·실라 / "우리"(10) / 루디아(14) / 점치는 여종(16)과 주인들(19) / 상관·부하(20·22) / 간수와 온 집(34).
- 세 폴림 — 마음이 열림(루디아 14) / 귀신이 나감(여종 18) / 사슬이 풀림(간수 26).
- 사상 = 구원(sozo). 여종의 외침(17)과 간수의 물음·답(30-31)에 같은 단어가 다른 자리.
- 한밤 찬송(25) → 지진·폴림(26)의 순서.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디모데 동행, 할례,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남.
- 컷 2 (6-10): 아시아·비두니아 막힘, 드로아 밤 환상 "건너와 도우라".
- 컷 3 (11-15): 빌립보 강가, 루디아의 마음 열림, 집의 세례.

- 컷 4 (16-24): 점치는 여종, 귀신 나감, 고발, 매 맞고 옥에 갇힘.
- 컷 5 (25-34): 한밤 찬송, 지진, "주 예수를 믿으라", 온 집의 세례.
- 컷 6 (35-40): 놓아주려 함, 로마 시민권, 사과, 루디아의 집에서 위로.

## 6 – (1) 원어 카드

- horama(ῥοραμα) – 환상. 9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 dianoigo(διανοίγω) – 활짝 열다.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 sozo(σώζω) – 구원하다. 17·30·31절(여종·간수).
- oikos(οἶκος) – 집·가정. 31절 "너와 네 집".
- mantenomai(μαντεύομαι) – 점치다. 16절 여종의 영(점치는 귀신).
- kolonia(κολωνία) – 로마 식민지. 12절 빌립보.
- baptizo(βαπτίζω) – 세례를 주다. 15·33절(루디아·간수).
- parthenos/paidiske – 여종(16절, 종 신분의 결).

## 6 – (2) 문학 구조

- 길의 방향(1-10) → 빌립보 세 사람(11-34) → 풀려남(35-40)의 세 묶음.
- 세 회심이 신분의 폭 – 루디아(부유한 여성)·여종(노예)·간수(로마 관리).
- 세 풀림의 평행 – 마음·귀신·사슬.
- 수미 호응 – 13-15절 루디아의 집 ↔ 40절 루디아의 집.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디모데 할례(3절)는 "그 지방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본문이 까닭을 댐 – 15장 이방인 할례 면제와 나란히 댐(배경).
- 빌립보의 로마 식민지(kolonia, 12)·시민권(37)이 고발·석방의 배경.
- "점치는 귀신"(16)이 "주인에게 큰 이익"이 됨 – 본문 보고.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6:3 ↔ 행 15:1-29 (할례 면제 회의와 디모데 할례)
- 행 16:9-10 ↔ 행 13:2 (성령의 길 인도)
- 행 16:14 ↔ 눅 24:45 ("마음을 열어"의 결)
- 행 16:31 ↔ 행 11:14 (너와 네 집의 구원)
- 행 16:25 ↔ 시 42:8 (밤의 찬송)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데려가고,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며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 성령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을 막으시니 드로아에 이르고,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다.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그와 집이 세례를 받는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이익이 끊긴 주인들의 고발로 바울·실라가 매 맞고 옥에 갇힌다. 한밤중에 두 사람이 찬송하니 지진이 나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린다. 자결하려던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으리이까" 묻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

이 구원받으리라"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다. 날이 새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들어 사과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 빌립보의 세 사람"
- 초벌 부제: "막힌 길에서 환상으로, 강가의 마음에서 옥의 사슬까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로마 식민지·시민권·할례 배경·세 회심 신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14)를 예정론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 주어만 기록.
- 여종의 귀신 축출(18)을 점술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사건만 보존.
- 로마 시민권 사용(37)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고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6장은 막힌 길이 한 밤 환상으로 마게도냐를 향해 트이고, 빌립보의 강가와 옥과 한 집에서 신분이 다른 세 사람이 차례로 풀려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디모데를 동행으로 얻으며 열린다. 그러나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이 거둬 막히고, 드로아의 밤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방향을 튼다. 빌립보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시장에서는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그 일이 바울과 실라를 옥으로 데려간다. 한밤

중의 찬송 뒤 지진이 사슬을 풀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으리이까" 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답이 한 가정을 적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루스드라(1) → 드로아(8) → 빌립보 강가(13) → 옥(24) → 간수의 집(34). 식민지(kolonia, 12)·시민권(37). 소품 = 환상·자색 옷감·차꼬·물.
2 첫 느낌·분위기	막힘 → 환상으로 열림. 밤의 반복. "우리"로 시점 전환(10). 씻음의 물 반복.
3 시작과 끝	시작 — 디모데 동행(1). 끝 — 루디아의 집에서 위로(40). 첫 집으로 돌아와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디모데 / 루디아 / 여종 / 간수. 세 폴립 — 마음·귀신·사슬. 사상 = 구원(sozo, 17·30·31).
5 장면 컷	컷 1 동행(1-5). 컷 2 환상(6-10). 컷 3 루디아(11-15). 컷 4 여종·옥(16-24). 컷 5 찬송·간수(25-34). 컷 6 석방(35-40).
6 의문·발견·정보	"마음을 열어"(14). 옳은 말의 영을 내보냄(18). 세 회심의 신분 폭. 열린 옥에서 머뭇(28).
7 동영상	막힌 길 → 환상 → 강가 → 옥 → 찬송·지진 → 세 사람의 폴립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 빌립보의 세 사람". 부제 — "막힌 길에서 환상으로, 강가의 마음에서 옥의 사슬까지".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강가와 옥과 그 집을 걸으며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막힘과 열림:** 두 번 막힌 길(6·7절) 끝에 환상이 마게도냐를 연다(9절). 닫힌 문과 트인 바다가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세 신분의 폴립:** 부유한 여성의 마음, 노예 여종의 영, 로마 관리의 사슬이 차례로 풀린다. 한 성에서 세 계층이 같은 폴립에 든다.
- 결 3 — 한밤의 찬송과 지진:** 매 맞고 차꼬에 채인 두 사람의 찬송(25절) 뒤에 지진이 온다(26절). 갇힌 자리의 노래와 흔들림이 잇닿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5:1-29** (할례 면제와 디모데 할례, 3절), **행 13:2** (성령의 길 인도), **행 11:14** (너와 네 집의 구원).
- 다른 권 — **눅 24:45** ("마음을 열어"의 결), **시 42:8** (밤의 찬송).
- 정경 흐름 — 16장의 환상은 복음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마게도냐)으로 넘기는 경첩으로, 빌립보 교회의 첫 문이 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길이 막힌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강가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밤의 찬송과 풀린 사슬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닫힌 길과 열린 마음은 같은 손 안에 있다\*는 결을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강가\*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길이 두 번 막힌다
- [x] 밤 환상이 마게도냐를 연다
- [x]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다
- [x]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다
- [x] 한밤의 찬송 뒤 지진이 사슬을 푼다
- [x]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으리이까" 묻는다
- [x]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답이 온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환상.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막힌 길(6-7절)과 열린 환상(9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아시아·비두니아가 막힌 뒤에야 마게도냐가 열림.
- 막힘과 열림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맞는 말을 외친 여종의 영을 왜 내보냈는가?**

- 17절의 외침은 옳은데 바울은 괴로워하여 내보냄(18절).
- 옳은 말과 그 출처의 결은 보류.

**Q3. 열린 옥문에서 죄수들은 왜 머물렀는가?**

- 매인 것이 다 풀렸으나 도망치지 않음(26·28절).
- 열림과 머뭇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4. 디모데의 할례(3절)와 15장의 할례 면제는 어떻게 함께인가?**

- 회의는 면제했는데 여기선 행함, 본문은 "그 지방 유대인" 때문이라 함.
- 두 자리의 까닭은 분포만 보존.

**Q5. 바울은 왜 조용히 나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들었는가?**

- 가만히 내보내려는 것을 거절(37절).
- 신분 사용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6. 세 회심(루디아·여종·간수)이 한 성에 모인 까닭은?**

- 부유한 여성·노예·로마 관리가 차례로 나옴.
- 신분의 폭이 한 장에 놓인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7장

ACT-017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데살로니가의 소동, 베뢰아의 상고함,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 앞에서 한 설교가 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데살로니가 회당(1) → 베뢰아(10) → 아덴의 회당·장터·아레오바고(17·19)로 옮겨간다.
- 아덴 배경 =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시간을 보냄"(21절), 에피쿠로스·스토아 철학(18절).
- 소품 = 회당의 성경(2), 우상(16),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23).
- dialegomai(강론)·anakrino(상고)·agnostos(알지 못하는)·deisidaimon(종교심)이 무대 어휘.
- 시간 = 세 안식일(2)·밤의 이동(10).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세 도시의 다른 색 — 데살로니가 소란(5), 베뢰아 차분(11), 아덴 호기심·비웃음(18·32).
- 아덴에서 바울의 격분(16)이 먼저 보임.
- 끝이 셋으로 갈림 — 조롱·유보·믿음(32-34).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데살로니가 회당으로 열림.
- 34절: 아레오바고에서 믿은 몇 사람(디오누시오·다마리)으로 닫힘.
- 회당에서 이방 도시의 몇 사람으로. 도시마다 결과의 크기가 다른 채로 닫힘.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실라 / 데살로니가 유대인·헬라인·귀부인(4) / 야손(5) / 베뢰아 사람(11) / 철학자들(18) / 디오누시오·다마리(34).
- 대조 — 시기(데살로니가 5) vs 상고(베뢰아 11).
- 사상 = 아레오바고 설교(22-31) — 창조·섭리·가까움·회개·부활.
- 28절 헬라 시인 인용("우리가 그의 소생", genos). 31·32절 부활(anastasis)에서 청중 갈림.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데살로니가 회당, 세 안식일 강론, 더러 믿음.
- 컷 2 (5-9): 시기한 유대인의 소동, 야손의 집, "다른 임금 예수".
- 컷 3 (10-15): 베뢰아의 상고, 많은 믿음, 추격, 바울이 아덴으로.
- 컷 4 (16-21): 우상의 아덴, 격분, 변론, 아레오바고로.

- 컷 5 (22-31): 아레오바고 설교 — 알지 못하는 신·창조·가까움·회개·부활.
- 컷 6 (32-34): 셋으로 갈린 반응, 디오누시오·다마리의 믿음.

## 6 — (1) 원어 카드

- dialegomai(διαλέγομαι) — 변론하다·강론하다. 2·17절.
- anakrino(ἀνακρίνω) — 살펴 분간하다·상고하다. 11절 베뢰아.
- eugenes(εὐγενής) — 신사적·고상한. 11절 "신사적이어서".
- agnostos(ἄγνωστος) — 알지 못하는. 23절 단의 새김.
- deisidaimon(δεισιδαίμων) — 종교심이 많은. 22절.
- zeteo(ζητέω) / pselaphao(ψηλαφάω) — 찾다 / 더듬다. 27절.
- metanoeo(μετανοέω) — 회개하다. 30절.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31·32절(청중 갈림).

## 6 — (2) 문학 구조

- 데살로니가·베뢰아(1-15) → 아덴(16-34)의 두 묶음. 아덴이 절반.
- 대조 구조 — 시기(5)와 상고(11)가 같은 말씀 앞에 갈림.
- 아레오바고 설교의 흐름 — 창조(24) → 섭리(26) → 가까움(27-28) → 회개·심판(30-31).
- 본문이 평을 직접 붙임 — 베뢰아 "신사적"(11), 아덴 "새 것만 좇음"(21).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알지 못하는 신에게"(AGNOSTO THEO, 23절)는 아덴의 종교 배경 — 본문이 그 새김을 설교 입구로 인용.
- 에피쿠로스·스토아(18절)가 아덴 사상 배경으로 등장.
- 28절의 "우리가 그의 소생"은 헬라 시인 인용 — 본문이 청중의 시를 끌어옴.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7:11 ↔ 사 34:16 (말씀을 상고함의 결)
- 행 17:24 ↔ 사 42:5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 행 17:28 ↔ 시 139편 (그를 힘입어 존재함의 결)
- 행 17:30 ↔ 행 14:16 (그동안 묵인하신 때)
- 행 17:7 ↔ 눅 23:2 ("다른 임금"의 정치적 죄목)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강론하니 더러 믿고 헬라인·귀부인 다수가 따른다.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고발하니, 형제들이 밤에 바울·실라를 베뢰아로 보낸다.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 많은 이가 믿는다.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좇아오자 바울만 아덴으로 간다. 우상 가득한 거리에 격분한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변론하다가 철학자들에게 이끌려 아레오바고에 선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을 입구 삼아, 만유의 주재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과 회개와 부활을 전한다.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자, 다시 듣겠다는 자, 믿는 자(디오누시오·다마리)로 셋으로 갈리며 달린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알지 못하는 신에게 — 한 설교의 세 반응"
- 초벌 부제: "회당의 성경에서 아덴의 단까지, 같은 말씀의 다른 입구"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에피쿠로스·스토아·아덴 단·시인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아레오바고 설교(22-31)를 자연신학 일반론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 문장 순서만 기록.
- "알지 못하는 신"(23)을 종교다원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의 인용·이름만 보존.
- 부활 앞의 세 반응(32-34)을 우열로 평가하지 않고 분포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7장은 같은 말씀이 세 도시에서 소란·상고·갈라짐의 다른 결을 부르고, 아덴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이 한 설교의 입구가 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데살로니가 회당의 강론으로 열린다. 더러는 믿고, 시기한 무리는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며 소동을 일으킨다. 밤에 옮겨간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많은 이가 믿는다. 우상 가득한 아덴에서 바울은 격분하면서도, 그들의 단과 시인을 입구 삼아 아레오바고에서 만유의 주재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과 회개와 부활을 전한다. 부활이라는 한 단어 앞에서 청중은 조롱·유보·믿음의 셋으로 갈린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데살로니가 회당(1) → 베뢰아(10) → 아덴 회당·장터·아레오바고(17·19). 배경 = 에피쿠로스·스토아(18)·"새 것만 좇음"(21). 소품 = 성경·우상·단.
2 첫 느낌·분위기	소란·상고·호기심의 다른 색. 격분(16). 끝의 셋으로 갈림(32-34).
3 시작과 끝	시작 — 데살로니가 회당(1). 끝 — 아레오바고의 몇 사람(34). 도시마다 다른 결과의 크기.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실라 / 야손 / 베뢰아 사람 / 철학자 / 디오누시오·다마리. 시기 vs 상고. 사상 = 아레오바고 설교(창조·가까움·회개·부활).
5 장면 컷	컷 1 데살로니가(1-4). 컷 2 소동(5-9). 컷 3 베뢰아(10-15). 컷 4 격분·변론(16-21). 컷 5 설교(22-31). 컷 6 세 반응(32-34).
6 의문·발견·정보	"신사적"의 까닭(11). 단·시인을 입구로(23·28). 설교의 흐름. "다른 임금"(7). 격분과 차분의 병치.
7 동영상	회당 강론 → 소동 → 베뢰아 상고 → 격분·변론 → 아레오바고 설교 → 세 반응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알지 못하는 신에게 — 한 설교의 세 반응". 부제 — "회당의 성경에서 아덴의 단까지, 같은 말씀의 다른 입구".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베뢰아의 책상과 아덴의 단 앞을 걸으며 알지 못하던 신을 위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시기와 상고:** 같은 강론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시기(5절)를, 베뢰아에서는 날마다의 상고(11절)를 부른다. 받는 자리에 따라 같은 말씀이 갈린다.
2. **결 2 — 도시의 소품을 입구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23절)과 헬라 시인(28절)을 설교의 입구로 삼는다. 회당의 성경과 다른 출발점이다.
3. **결 3 — 부활 앞의 갈라짐:** 한 설교가 부활(31절)에 이르자 청중이 조롱·유보·믿음(32-34절)으로 셋이 된다. 같은 끝말에 세 결이 동시에 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4:16** (그동안 묵인하신 때, 30절과 닿음), **행 16:9** (마게도냐의 길), **행 18:1**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어짐).
- 다른 권 — **사 42:5**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24절), **시 139편** (그를 힘입어 존재함의 결).
- 정경 흐름 —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이방 지성을 향한 가장 긴 변증으로, 회당 밖 청중을 향한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같은 말씀을 두고 시기와 상고가 갈리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날마다 상고하는 베뢰아 사람 곁에서 멈춘다.
- **멈춤 2:**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알지 못하던 신을 알게 하는 한 단어는 부활이다\*는 결을 줬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조롱과 유보와 믿음이 갈리는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인다
- [x] 베뢰아 사람은 날마다 상고한다
- [x]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하다
- [x]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이 있다
- [x]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 [x] 회개를 명하시고 부활로 증거를 주신다
- [x] 부활 앞에서 청중이 셋으로 갈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부활.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떠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같은 말씀에 시기(데살로니가)와 상고(베뢰아)가 갈린 까닭은?**

- 5절의 시기와 11절의 상고가 같은 강론을 받음.
- 두 반응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아덴에서 왜 성경 대신 단과 시인으로 시작했는가?**

- 23·28절에서 도시의 소품·시를 입구로 삼음.
- 회당과 다른 출발점의 까닭은 보류.

**Q3. 격분(16절)과 차분한 설교(22-31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마음은 격분, 말은 논증.
-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왜 신앙의 문제가 "다른 임금"(7절)의 문제로 옮겨졌는가?**

- 고발이 정치적 죄목으로 바뀜.
- 옮겨감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더듬어 찾아"(27절)의 손의 동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pselaphao(더듬다)와 zeteo(찾다)가 한 절에.
- 두 동사의 결은 분포만 보존.

Q6. 도시마다 결과의 크기(소동·다수·몇 사람)가 다른 까닭은?

- 데살로니가·베뢰아·아덴의 열매가 다름.
- 크기의 차이를 평가하지 않고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8장

ACT-018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천막 짓는 두 손과 한 밤의 음성으로 고린도가 열리고, 갈리오의 판결과 아볼로의등장이 그 곁에 선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고린도의 일터·회당(1-4) → 디도 유스도의 집(7) → 갈리오 재판석(12) → 겐그레아·에베소·안디옥(18-22)으로 옮겨간다.
- 배경 =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2절)이 아굴라·브리스가를 고린도로 보냄(본문이 까담 댐).
- 소품 = 천막(skenopoiios, 3), 서원·머리 깎음(18), 재판석(12), 아볼로의 성경(24·28).
- 시간 = "일 년 육 개월"(11절) 머뭇.
- 끝에 아볼로가 바울 없는 자리에 따로 등장(24-28).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정착("함께 살며 일을 하니", 3) → 18절부터 빠른 여정.
- 밤의 음성(9-10)이 격려의 공기.
- "함께"의 두 곁 — 사람과 함께 일함(3)·주께서 함께 계심(10).
- 끝에 새 인물(아볼로)로 주인공이 잠시 바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바울이 고린도에 이름 — 한 사람의 정착으로 열림.
- 28절: 아볼로가 성경으로 변증 — 다른 사람의 일어섬으로 닫힘.
- 바울의 정착에서 아볼로의 변증으로. 그 사이를 아굴라·브리스가가 이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아굴라·브리스가(2) / 실라·디모데(5) / 그리스보(8) / 디도 유스도(7) / 갈리오(12) / 소스데네(17) / 아볼로(24).
- 거절과 믿음의 병치 — 유대인 비방(6) vs 그리스보의 믿음(8).
- 사상 = 밤의 음성(9-10) "함께 있으매·내 백성이 많음"(laos).
- 아볼로 — 꿇음(zeo)·정확함(akribos)·한 가지 모름(요한의 세례, 25).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고린도, 천막 일, 회당 강론.
- 컷 2 (5-11): 비방·결별, 그리스보의 믿음, 밤의 음성, 일 년 육 개월.

- 컷 3 (12-17): 갈리오 앞 고발, "스스로 처리하라", 소스테네가 맞음.
- 컷 4 (18-22): 서원·머리 깎음, 에베소, 가이사라·안디옥.
- 컷 5 (23): 갈라디아·브루기아에서 제자를 굳건하게.
- 컷 6 (24-28): 아볼로, 부부의 풀어줌, 아가야의 변증.

## 6 – (1) 원어 카드

- skenopoios(σκηνοποιός) – 천막 만드는 자. 3절 직업.
- homotechnos(ὁμότεχνος) – 같은 기술·직업. 3절 "직업이 같으므로".
- laos(λαός) – 백성.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
- anthistemi(ἀνθίστημι) – 대적하다. 6절.
- anthypatos(ἀνθύπατος) – (원로원 속주) 총독. 12절 갈리오.
- euche(εὐχή) – 서원. 18절 머리 깎음.
- zeo(ζέω) – 끓어오르다·열심. 25절 아볼로.
- akribos(ἀκριβῶς) – 자세히·정확히. 25·26절(아볼로·부부).

## 6 – (2) 문학 구조

- 고린도 정착(1-17) → 빠른 여정(18-23) → 아볼로(24-28)의 세 묶음.
- 느림(일 년 육 개월, 11)과 빠름(18-22 한 호흡)의 대조.
- 거절과 믿음의 병치(6·8). 함께의 두 결(3·10).
- "자세히/더 정확하게"(akribos/akribesteron)가 아볼로(25)와 부부(26) 양쪽에.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글라우디오의 추방령(2절)이 아굴라·브리스가를 고린도로 보낸 배경 – 본문이 까닭을 댐.
- 머리 깎음(18)은 "서원이 있으므로" – 나실인 서원 관습 배경.
- 갈리오(anthypatos, 12)의 판결은 로마 관리가 종교 분쟁에 손대지 않는 배경 – 본문 보고.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8:2 ↔ 롬 16:3 (브리스가·아굴라, 동역자)
- 행 18:9-10 ↔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의 결)
- 행 18:6 ↔ 행 13:46 (이방인에게로 향함)
- 행 18:24-28 ↔ 행 19:1 (아볼로·바울의 에베소 교차)
- 행 18:18 ↔ 민 6장 (나실인 서원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브리스가를 만나 직업이 같아 함께 천막 일을 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한다. 실라·디모데가 오자 말씀에 붙잡혀 증언하는데, 유대인이 비방하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함께 믿고, 밤에 주께서 "두려워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니 일 년 육 개월을 머문다. 갈리오 앞 고발에서 총독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재판석에서 쫓아낸다.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서원으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내려 갔다가 다시 떠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 한편 에베소에 온 아볼로는 열심히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만 아는데, 브리스가·아굴라가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 아가야에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증언하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 고린도의 일 년 육 개월"
- 초벌 부제: "정착한 손과 한 밤의 음성, 그리고 한 부부가 이어준 변증"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글라우디오 추방령·서원·총독 제도·천막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밤의 음성(9-10)을 보편 약속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고린도 정황 안에 둬.
- 갈리오의 판결(14-16)을 정교분리 교리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사건만 기록.
- 아블로의 "요한의 세례만 얹"(25)을 우열로 평가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8장은 천막 짓는 손과 한 밤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로 고린도가 열리고, 갈리오의 판결과 한 부부가 이어준 아블로의 변증이 그 곁에 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고린도의 일터에서 시작한다.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브리스가와 직업이 같아 함께 천막을 짓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한다. 유대인의 비방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자리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믿음이 함께 오고, 밤에 "두려워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음성이 일 년 육 개월의 머뭇을 연

다. 갈리오는 고발을 "스스로 처리하라"며 물리친다. 빠른 여정 끝에, 에베소에 온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치나 한 가지를 모를 때, 브리스가·아굴라가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어 그를 변증의 자리로 보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고린도 일터·회당(1-4) → 재판석(12) → 에베소·안디옥(18-22). 배경 = 추방령(2). 소품 = 천막 (skenopios)·서원·성경.
2 첫 느낌·분위기	정착 → 빠른 여정. 밤의 음성(9-10). "함께"의 두 결(3·10). 끝에 새 인물.
3 시작과 끝	시작 — 바울의 정착(1). 끝 — 아볼로의 변증(28). 사이를 아굴라·브리스가가 이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아굴라·브리스가 / 그리스보 / 갈리오 / 아볼로. 거절과 믿음(6·8). 사상 = "내 백성이 많음"(laos, 10).
5 장면 컷	컷 1 천막·회당(1-4). 컷 2 음성·머뭇(5-11). 컷 3 갈리오(12-17). 컷 4 여정(18-22). 컷 5 견고케 함(23). 컷 6 아볼로(24-28).
6 의문·발견·정보	음성과 기간(9-11). 결별과 변론(6·19). 갈리오의 무관심(17). 꿇음과 모름(25). "더 정확하게"(26).
7 동영상	천막 일 → 음성·머뭇 → 갈리오 → 빠른 여정 → 부부의 풀어줌 → 아볼로의 변증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 고린도의 일 년 육 개월". 부제 — "정착한 손과 한 밤의 음성, 그리고 한 부부가 이어준 변증".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고린도의 일터와 한 밤의 음성 곁을 곁으며 두려워 침묵하려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결의 함께:** 직업이 같아 사람과 함께 일하고(3절), 밤에 주께서 함께 계신다 하신다(10절). 같은 "함께"가 손의 일과 음성으로 놓인다.
- 결 2 — 거절과 믿음의 한 자리:** 유대인의 비방(6절)과 회당장 그리스보의 믿음(8절)이 잇닿는다. 떠나는 자리에서 새 믿음이 온다.
- 결 3 — 정확함의 전달:** 아볼로의 "자세히"(25절)와 부부의 "더 정확하게"(26절)가 같은 어근으로 놓인다. 가르치던 자가 데려가 다시 풀어주는 자리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3:46** (이방인에게로 향함, 6절과 닿음), **행 19:1** (아볼로·바울의 에베소 교차), **행 18:2**(추방령 배경).
- 다른 권 — **롬 16:3** (브리스가·아굴라, 동역자),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의 결).
- 정경 흐름 — 18장의 고린도 정착은 바울 서신의 수신 공동체 하나를 낳고, 아볼로는 19장 이후 에베소의 결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낮선 도시의 일터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밤의 음성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스스로 처리하라"는 갈리오의 판결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부부 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함께 계심은 침묵을 깨는 음성이다\*는 결을 진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려워 침묵하려던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바울이 천막 일로 정착한다
- [x] 밤에 "두려워 말고 말하라" 음성이 온다
- [x] 일 년 육 개월을 머문다
- [x] 갈리오가 "스스로 처리하라" 한다
- [x] 아볼로가 열심히, 그러나 한 가지를 모른 채 가르친다
- [x] 부부가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다
- [x] 아볼로가 성경으로 변증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함께.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밤의 음성(9-10절)과 일 년 육 개월(11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까닭과 머문 기간이 나란히.
- 음성과 정착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이방인에게로 가리라"(6절)와 다음 회당 변론(19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결별 선언과 다음 행동이 어긋나 보임.
- 두 자리의 까닭은 보류.

**Q3. 갈리오는 왜 소스데네의 매에 "상관하지 아니"(17절)했는가?**

- 관리의 무관심을 본문이 그대로 보고.
- 무관심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4. 서원으로 머리를 깎은(18절) 까닭은 무엇인가?**

- 본문은 "서원이 있으므로"라고 한 줄만 댐.
- 서원의 내용은 분포만 보존.

**Q5. 아볼로의 부족함(요한의 세례)과 정확함은 어떻게 함께인가?**

- 열심히·자세함과 한 가지 모름이 한 사람에게.
-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6. 왜 공개로 꺾지 않고 "데려다가"(26절) 풀어주었는가?**

- 부부가 사사로이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줌.
- 방식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19장

ACT-019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두란노의 강론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마술책이 불태워진다. 그러자 은장색의 손에서 "크다 에 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두 시간의 외침이 일어난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에베소 회당(8) → 두란노 서원(scholē, 9) → 작업장·시장 → 극장(29)으로 번져간다.
- 배경 = 아데미 신전(naos)과 은 신상 장사(24·27)가 도시 경제. "전각지기 성"(35).
- 소품 = 요한의 세례(3), 손수건·앞치마(12), 마술책(은 오만, 19), 은 신상 모형(24).
- 시간 = 회당 석 달(8)·서원 두 해(10).
- 제도 — 법정·민회(38-39)가 진정의 장치.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흥왕("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 → 뒤는 소동(23).
- 23절이 분위기 전환점. 회당에서 극장으로 공간이 커짐.
- "손"의 반복 — 손수건·앞치마(12)·마술책 태움(19)·은 신상(24).
- 두 시간의 합성(34), 두 이름(예수·아데미)의 대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열두어 제자와의 작은 만남으로 조용히 열림.
- 41절: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 큰 군중의 해산으로 닫힘.
- 작은 모임에서 큰 모임의 해산으로. 모이게 한 말씀(20)과 흩어진 모임(41)의 대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열두어 제자(7) / 스게와의 일곱 아들(14) / 데메드리오(24) / 가이오·아리스다고(29) / 알렉산더(33) / 서기장(35).
- 세 상황 — 세례 보충(1-7) / 흥왕·마술책 소각(8-20) / 여신 장사의 소동(23-41).
- 사상 = "이름". 예수의 이름(5·17)과 아데미의 이름(28·34)이 부딪침.
- 데메드리오 연설(25-27) — 돈("풍족한 생활")과 신앙("신전 무시")이 섞임.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 다시 세례, 성령 입함.
- 컷 2 (8-12): 회당 석 달, 두란노 두 해, 아시아가 다 들음, 손수건의 치유.
- 컷 3 (13-20): 스게와 아들들의 실패, 마술책 소각(은 오만), 말씀의 흥왕.

- 컷 4 (21-22): 예루살렘·로마 작정,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 컷 5 (23-34): 데메드리오의 선동, "크다 아데미여", 극장, 두 시간의 합성.
- 컷 6 (35-41): 서기장의 진정, 법정·민회, 모임 해산.

## 6 – (1) 원어 카드

- scholē(σχολή) – 강의실·학교. 9절 두란노 서원.
- perierga(περίεργα) – 주술·쓸데없는 것. 19절 마술책.
- exorkistes(ἔξορκιστής) – 축귀사. 13절 마술하던 유대인.
- argyrokopos(ἀργυροκόπος) – 은장색. 24절 데메드리오.
- naos(ναός) – 신전·전각. 24·27절 아데미 신전.
- ekklesia(ἐκκλησία) – 모임·민회. 32·39·41절(이 장에선 군중·민회 결).
- grammateus(γραμματεύς) – 서기·서기장. 35절.
- synchysis(σύγχυσις) – 뒤섞임·분란. 29·32절.

## 6 – (2) 문학 구조

- 말씀의 흥왕(1-22) → 소동과 진정(23-41)의 두 묶음.
- 두 이름의 대치 – 예수(5·17)와 아데미(28·34).
- 역전 구조 – 이름을 빌리려던 마술사들이 도리어 제압당함(15-16).
- 본문이 직접 평함 – 군중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함"(32), 데메드리오의 "풍족한 생활"(25).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아데미 신전(naos)은 에베소의 거대 신전 –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27) 여신, "전각지기 성"(35) 배경.
- 은 신상 모형 장사(24)가 도시 경제의 한 축 – 소동의 동력(본문 보고).
- 법정·민회(38-39)는 로마 도시의 분쟁 처리 제도 – 서기장이 진정의 근거로 듭.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19:1-7 ↔ 행 18:24-25 (요한의 세례·아볼로의 결)
- 행 19:13-16 ↔ 막 9:38-39 (예수의 이름을 빌림)
- 행 19:26 ↔ 행 17:24-25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 행 19:21 ↔ 행 23:11 (로마로 가려는 작정)
- 행 19:23 ↔ 고전 15:32 (에베소의 환난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을 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한다. 회당 석 달 뒤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를 강론하니 아시아가 다 말씀을 듣고, 손수건·앞치마로도 병이 떠난다. 마술하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 내다 악귀에게 제압당하자, 두려움이 임하여 마술하던 이들이 은 오만 어치의 책을 불사르고 말씀이 흥왕한다. 바울이 예루살렘·로마를 작정할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 영업으로 풍족한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 한다" 선동한다.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

여" 외치며 극장으로 몰려 두 시간이나 합성을 지르는데, 태반은 까닭도 모른다. 서기장이 "고발할 일은 법정과 민회가 있다" 진정시켜 모임을 흔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 두란노의 두 해, 극장의 두 시간"
- 초벌 부제: "흥왕하는 말씀과 위협받는 장사, 두 이름의 부딪침"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아데미 신전·은 신상 장사·민회 제도·마술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마술책 소각(19)을 회개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 값·사건만 기록.
- 스게와 아들들의 실패(15-16)를 축귀 방법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역전만 보존.
- 데메드리오 소동(23-41)을 박해 일반론으로 굳히지 않고 돈·여신의 본문 동기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19장은 두란노의 강론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마술책이 불태워지자, 위협받은 은장색의 손이 "크다 아데미여"라는 두 시간의 소동을 일으키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열두어 제자를 다시 세우며 조용히 열린다. 회당 석 달, 두란노 서원의 두 해 강론으로 아시아가 다 말씀을 듣고, 마술하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도리어 제압당하자 사람들이 은 오만 어치의 마술책을 불사른다. 말씀이 흥왕할수록 아데미 여신의 은 신상 장사가 위협받고, 은장색 데메드리오

의 선동이 도시를 극장으로 몰아간다. 까닭도 모른 채 두 시간을 외치던 군중은, 법정과 민회를 든 서기장의 진정으로 흠여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당(8) → 두란노 서원(scholē, 9) → 극장(29). 배경 = 아데미 신전(naos)·은 신상 장사. 소품 = 세레·손수건·마술책·은 신상.
2 첫 느낌·분위기	흥왕(20) → 소동(23). 회당에서 극장으로. "손"의 반복. 두 이름의 대치.
3 시작과 끝	시작 — 열두어 제자(1). 끝 — 모임 해산(41). 작은 만남에서 큰 모임의 해산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스게와 아들들 / 데메드리오 / 서기장. 세 상황 — 세레·흥왕·소동. 사상 = "이름"(예수·아데미).
5 장면 컷	컷 1 세레(1-7). 컷 2 두란노(8-12). 컷 3 마술책 조각(13-20). 컷 4 작정(21-22). 컷 5 소동(23-34). 컷 6 진정(35-41).
6 의문·발견·정보	은 오만의 값(19). 아들들의 역전(15-16). 데메드리오의 "풍족"(25). 까닭 모를 함성(32).
7 동영상	세레 → 두란노 강론 → 마술책 조각 → 작정 → 데메드리오의 소동 → 서기장의 진정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 두란노의 두 해, 극장의 두 시간". 부제 — "흥왕하는 말씀과 위협 받는 장사, 두 이름의 부딪침".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두란노의 강의실과 함성의 극장 곁을 걸으며 까닭 모를 외침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흥왕과 위협의 잇닿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20절) 바로 뒤에 "그때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23절)가 온다. 자라남과 부딪침이 잇닿는다.
- 결 2 — 두 이름의 부딪침:**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17절) 마술책이 타는 자리에서, 군중은 "크다 아데미여"(28·34절)를 외친다. 한 도시에서 두 이름이 맞선다.
- 결 3 — 돈과 여신의 섞임:** 데메드리오는 "이 영업으로 풍족한 생활"(25절)과 "신전이 무시당함"(27절)을 한 입에 담는다. 본문은 신앙의 외피와 영업을 함께 드러낸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8:24-25** (요한의 세레·아볼로, 1-7절과 닿음), **행 17:24-25**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26절), **행 23:11** (로마로 가려는 작정, 21절).
- 다른 권 — **막 9:38-39** (예수의 이름을 빌림), **고전 15:32** (에베소의 환난 결).
- 정경 흐름 — 19장의 에베소는 바울 사역의 절정 가운데 하나로, 흥왕과 박해가 한 장에 겹쳐 20장 이후 특별한 결을 연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가지를 모르던 제자들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은 오만 어치의 마술책이 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까닭도 모른 채 두 시간을 외치는 군중 가운데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흥왕하는 말씀은 손의 장사를 흔든다\*는 결을 줬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까닭 모를 외침의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이 다시 세워진다
- [x] 두란노에서 두 해를 강론한다
- [x] 은 오만 어치의 마술책이 불탄다
- [x] 말씀이 힘있게 흥왕한다
- [x]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다
- [x] "크다 아데미여"라는 두 시간의 함성이 인다
- [x] 서기장이 법정·민회를 들어 모임을 흔든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름.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1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마술책의 값을 본문은 왜 숫자(은 오만)로 박았는가?**

- 19절이 회개를 손에 잡히는 값으로 보여줌.
- 숫자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스게와의 아들들은 왜 같은 이름을 부르고도 실패했는가?**

- "예수의 이름"을 빌리다 도리어 제압당함(15-16).
- 빌림과 제압의 결은 보류.

**Q3. 흥왕(20절)과 소동(23절)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말씀이 흥왕할수록 여신 장사가 위협받음.
- 흥왕과 소동의 인과는 본문이 단정하지 않음. 보존.

**Q4. 군중은 왜 까닭도 모른 채(32절) 두 시간을 외쳤는가?**

-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함"과 두 시간의 함성(34).
- 무지와 외침의 결은 분포만 보존.

**Q5. 바울은 왜 극장에 들어가려 했고 사람들은 왜 막았는가?**

- 들어가려는 바울(30)과 막는 제자·관리(30-31).
- 두 방향의 까닭은 보류.

**Q6. 데메드리오의 연설에서 돈과 여신은 어떻게 섞였는가?**

- "풍족한 생활"(25)과 "신전 무시"(27)가 한 입에.
- 두 동기의 섞임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20장

ACT-020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밤이 깊도록 이어진 강론에 떨어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고별의 무릎이 꺾인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마게도냐·헬라(1-3) → 드로아의 다락(7-12) → 항해(13-15) → 밀레도(17)로 옮겨간다.
- 배경 =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일정(16절).
- 소품 = 떡(klao arton, 7·11), 등불(8), 떨어진 유두고(9), 무릎·눈물(36-37).
- episkopos(감독)·poimaino(목양)가 고별 연설의 어휘.
- 시간 = 안식 후 첫날(7)·삼 년의 사역(31).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뒤로 갈수록 작별의 공기("다시 보지 못하리라", 25).
- 한밤의 등불·졸음·떨어짐(7-9).
- 항해의 빠름과 밀레도 연설의 멈춤이 교차.
- 떡(나눔)과 눈물(울음)이 한 장에.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소요가 그치고 작별하고 떠남 — 한 작별로 열림.
- 38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배까지 전송 — 또 한 작별로 닫힘.
- 작별로 열고 작별로 닫되, 한가운데 유두고의 되살아남(9-10)이 놓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동행 일곱(4) / "우리"(5) / 유두고(9) / 에베소 장로들(17).
- 두 상황 — 드로아의 사건(7-12, 행동) / 밀레도의 연설(17-38, 말씀).
- 사상 = 고별 연설 — 회고(18)·예고(23)·경계(29)·인용(35).
- 생명(psyche, 24)·목양(poimaino, 28)·복(makarion, 35)이 핵심 어휘.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마게도냐·헬라, 동행 명단, 드로아에 닿음.
- 컷 2 (7-12): 떡을 땀, 밤중 강론, 유두고의 떨어짐·되살아남, 위로.
- 컷 3 (13-16): 앗소·밀레도로, 오순절 일정.

- 컷 4 (17-27): 장로를 부름, 회고·예고, "결박과 환난".
- 컷 5 (28-35): "양 떼를 삼가라", 이리의 경고, "주는 것이 복".
- 컷 6 (36-38): 무릎·기도·울음, 배까지 전송.

#### 6 – (1) 원어 카드

- klao arton(κλάω ἄρτον) — 떡을 떼다. 7·11절.
- hypnos(ὑπνος) — 잠·졸음. 9절 유두고.
- psyche(ψυχή) — 생명·목숨. 24절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음".
- episkopos(ἐπίσκοπος) — 감독자. 28절.
- poimaino(ποιμαίνω) — 목양하다·돌보다. 28절.
- makarios(μακάριος) — 복이 있는. 35절 "주는 것이… 복".
- dakryon(δάκρυον) — 눈물. 19·31절.
- paratithemi(παρατίθημι) — 맡기다·부탁하다. 32절.

#### 6 – (2) 문학 구조

- 여정(1-16) → 밀레도의 작별(17-38)의 두 묶음.
- 작별 ↔ 작별의 수미(1:38), 그 중심에 되살아남(9-10).
- 고별 연설의 흐름 — 회고(18-21) → 예고(22-27) → 권면(28-31) → 위임·인용(32-35).
- 세움과 갈라짐의 병치 — 감독자로 세움(28)과 어긋난 말의 예고(30).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임"(7절)은 초기 모임의 날·관습 배경.
-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일정(16)이 밀레도에서 멈춘 까닭의 배경.
- 35절 인용은 본문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 출처를 밝힘 — 복음서에 직접 없는 어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0:9-12 ↔ 왕상 17:21 / 왕하 4:34 (몸을 안고 살림의 결)
- 행 20:28 ↔ 요 21:16 (양을 치라·목양)
- 행 20:22-23 ↔ 행 21:11 (예루살렘의 결박 예고)
- 행 20:35 ↔ 눅 6:38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결)
- 행 20:32 ↔ 행 14:23 (장로를 주께 맡김)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마게도냐·헬라를 거쳐 동행자들과 빌립보에서 배로 드로아에 닿는다.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모인 자리에서 밤중까지 강론하는데, 졸던 유두고가 삼 층에서 떨어져 죽는다. 바울이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 살아나고, 모임은 날이 새기까지 이어진다. 앗소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러, 오순절 일정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치되 장로들을 부른다. 바울이 삼 년의 사역을 회고하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말하며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다. "양 떼를 삼가라, 사나운 이리가 들어 오고 너희 중에서도 어긋난 말이 일어나리라" 권하고,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한다.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입을 맞추고 배까지 전송하는 한 줄로 달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밀레도의 무릎"
- 초벌 부제: "되살아남으로 둘러싸인 작별, 그리고 맡기는 무릎"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 후 첫날 모임·오순절 일정·예수 어록 출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유두고의 되살아남(9-10)을 부활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 사건만 기록.
- 고별 연설(18-35)을 목회 매뉴얼로 굳히지 않고 회고·예고·권면의 흐름만 보존.
- 35절 인용을 정경 본문 비교로 끝지 않고 본문이 밝힌 출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0장은 한밤 강론에 떨어진 유두고가 되살아나고, 밀레도의 바닷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고별의 무릎이 꺾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에베소의 소요를 떠나는 작별로 열린다. 드로아의 다락에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밤중까지 이어진 강론에, 졸던 유두고가 삼 층에서 떨어져 죽지만 바울이 몸을 안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향해 끝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바울은, 삼 년의 사역을 회고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

을 말하며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다. "양 떼를 삼가라"는 권면은 약한 자를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닫히고, 연설의 끝은 논증이 아니라 함께 끓은 무릎과 크게 우는 작별이 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마게도냐·헬라(1-3) → 드로아 다락(7-12) → 밀레도(17). 배경 = 오순절 일정(16). 소품 = 떡(klaosarton)·등불·무릎·눈물.
2 첫 느낌·분위기	작별의 공기(25). 한밤의 등불·졸음·떨어짐. 항해의 빠름과 연설의 멈춤. 떡과 눈물.
3 시작과 끝	시작 — 작별(1). 끝 — 작별·전송(38). 그 중심에 되살아남(9-10).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동행 일곱 / 유두고 / 에베소 장로. 두 상황 — 사건·연설. 사상 = 생명(psyche)·목양(poimaino)·복(makarios).
5 장면 컷	컷 1 여정(1-6). 컷 2 유두고(7-12). 컷 3 밀레도로(13-16). 컷 4 회고·예고(17-27). 컷 5 권면·인용(28-35). 컷 6 무릎·전송(36-38).
6 의문·발견·정보	사건 뒤의 모임 지속(11). 매임과 향함(22-23). 세움과 갈라짐(28-30). 예수 어록의 출처(35).
7 동영상	작별 → 떡·되살아남 → 밀레도 → 회고·예고 → 권면·인용 → 무릎·전송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밀레도의 무릎". 부제 — "되살아남으로 둘러싸인 작별, 그리고 맡기는 무릎".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드로아의 다락과 밀레도의 바닷가를 걸으며 받는 것을 구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작별 한가운데의 생명:** 작별로 열고 작별로 닫히는(1-38) 장 한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졌다 살아나다(9-10). 떠남의 결 속에 생명이 박힌다.
- 결 2 — 매임과 향함:**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22절) 가는데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23절). 같은 성령이 막지 않고 향하게 한다.
- 결 3 — 받음에서 줌으로:** 연설의 정점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35절)이다. 떠나는 자가 남는 자에게 줌의 복을 마지막 말로 남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1:11** (예루살렘의 결박 예고, 23절과 닿음), **행 14:23** (장로를 주께 맡김, 32절), **행 19:23** (에베소의 소요, 1절 배경).
- 다른 권 — **요 21:16** (양을 치라·목양, 28절), **눅 6:38**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결, 35절).
- 정경 흐름 — 20장의 고별 연설은 사도행전 유일의 교회 지도자 대상 연설로, 21장 이후 예루살렘 행로의 무게를 미리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떠나는 작별의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한밤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향하는 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작별의 마지막 말은 줌의 복이다\*는 결을 진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받는 것을 구하던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떡을 떼며 밤중까지 강론한다
- [x] 떨어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다
- [x]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른다
- [x]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말한다
- [x] "양 떼를 삼가라" 권한다
- [x]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 한다
- [x] 무릎 꿇어 함께 울며 전송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줌.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큰 사건(유두고) 뒤에도 모임이 왜 이어졌는가?**

- 살아난 뒤에도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함(11절).
- 사건과 지속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환난을 예고하는 성령(23절)이 왜 막지 않고 향하게 했는가?**

- "성령에 매여"(22)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23)가 함께.
- 매임과 향함의 결은 보류.

**Q3. 감독자로 세움(28절)과 어긋난 말의 예고(30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무리에서 세움과 갈라짐이 예고됨.
- 두 예고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35절의 예수 어록은 어디서 온 것인가?**

- 본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 출처만 밝힘.
- 어록의 자리는 분포만 보존.

**Q5. 연설의 끝이 왜 논증이 아니라 무릎과 울음(36-37)이었는가?**

- 말을 마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다 크게 울.
- 닫는 방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작별로 둘러싸인 한가운데 되살아남(9-10)이 놓인 까닭은?

- 떠남과 생명이 한 장에 겹침.
- 배치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21장

ACT-021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만류하는 눈물과 아가보의 띠 예언을 지나, 성전의 한 소동이 바울을 사슬로 끌어간다.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항해(1-3) → 두로(3) → 가이사랴(8) → 예루살렘(17) → 성전(hieron, 26) → 군영 층계(35)로 좁혀진다.
- 배경 = 성전 안 이방인 출입 금지(28절 고발), 나실인 서원·결례(23-24).
- 소품 = 띠(zone, 11), 결례(24·26), 두 쇠사슬(33), 층계(35).
- prophetes(선지자)·chiliarchos(천부장)가 무대 어휘.
- 시간 = 두로 이레(4)·결례의 이레(27).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만류의 반복 — 두로(4)·가이사랴(12).
- 만류가 "주의 뜻대로"(14)의 말김으로 바뀐.
- 항해 → 도시 → 성전으로 좁혀짐.
- 끝이 급해짐(소동·체포·결박) 뒤 입을 여는 정지(40).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작별하고 배를 탐 — 떠나가는 항해로 열림.
- 40절: 층대에서 손짓하며 히브리 말로 말함 — 매인 채 입을 여는 자리로 닫힘(다음 장으로 열림).
- 자유로운 항해에서 사슬에 매여 입을 여는 자리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우리" / 두로의 제자들(4) / 빌립과 네 딸(8-9) / 아가보(10) / 야고보·장로들(18) / 서원한 네 사람(23) / 아시아 유대인(27) / 천부장(33).
- 만류와 결단의 반복 — 두로·가이사랴의 만류(4·12), 바울의 각오(13), "주의 뜻대로"(14).
- 사상 = theléma("주의 뜻대로", 14). 야고보의 결례 권면(20-25).
- 고발(27-28)과 오해(29, 드로비모)가 본문에서 밝혀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항해, 두로의 만류, 바닷가 기도·작별.
- 컷 2 (7-14): 가이사랴, 네 딸, 아가보의 띠 예언, "주의 뜻대로".

- 컷 3 (15-19): 예루살렘 도착, 영접, 야고보에게 보고.
- 컷 4 (20-26): 율법 열성 문제, 결례의 권면, 바울이 결례 행함.
- 컷 5 (27-30): 아시아 유대인의 선동, "성전 더럽힘" 고발, 끌려나감.
- 컷 6 (31-40): 천부장의 개입, 두 죄사슬 결박, 층계, 손짓하며 말하려 함.

## 6 – (1) 원어 카드

- zone(ζώνη) – 띠. 11절 아가보의 예언.
- prophetes(προφήτης) – 선지자. 10절 아가보.
- theléma(θέλημα) – 뜻. 14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 hagnizo(ἀγνίζω) – 정결케 하다·결례를 행하다. 24·26절.
- hieron(ἱερόν) – 성전. 26·28절.
- chiliarchos(χιλίαρχος) – 천부장. 31·33절.
- bia(βία) – 힘·폭행. 35절.
- dialektos(διάλεκτος) – 언어·방언. 40절 "히브리 말로".

## 6 – (2) 문학 구조

- 만류(1-14) → 예루살렘의 조심(15-26) → 소동·체포(27-40)의 세 묶음.
- 만류의 반복(4·12)이 한 결단(13) 앞에 모이고 "주의 뜻대로"(14)로 닫힘.
- 예언의 띠(11)와 실제의 사슬(33)이 같은 장에 호응.
- 본문이 사실관계를 직접 밝힘 — 고발이 오해(29).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성전 안 이방인 출입 금지(28절 고발)는 당시 성전 구조 배경 — 소동의 까닭.
- 결례·서원·머리 깎음(23-24)은 나실인 서원 관습 배경 — 야고보가 본을 원하는 까닭.
- 천부장(chiliarchos, 31)·군영은 성전 결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주둔 배경.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1:11 ↔ 행 20:23 (결박의 예고)
- 행 21:14 ↔ 눅 22:42 ("주의 뜻대로"·겻세마네의 결)
- 행 21:23-24 ↔ 민 6장 (나실인 서원 배경)
- 행 21:28 ↔ 행 6:13 (성전·율법 비방의 고발 결)
- 행 21:39 ↔ 행 22:3 (다소 사람 바울의 자기 소개로 이어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일행이 배로 고스·로도·바다라를 지나 두로에 닿는다. 그곳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 다 함께 바닷가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다.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기를 묶으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예언한다. 사람들이 울며 말리나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야고보와 장로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율법에 열성인 유대인들을 들어 결례로 본을 보이려 권하고 바울이 따른다. 이레가 거의 찰 때 아시아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충동하는데, 이는 드로비모를 데려간 줄로 오해한 것이다. 온

성이 요동해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 문이 닫힌다. 천부장이 군사와 달려와 무리를 막고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니, 폭행 때문에 군사들이 그를 들어 층계로 올린다. 바울이 청해 층대에 서서 손짓하며 히브리 말로 입을 여는 한 줄로 닫힌다.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 성전의 사슬"
- 초별 부제: "만류의 눈물과 예언의 띠, 그리고 매인 채 입을 여는 자리"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성전 이방인 금지·나실인 서원·안토니아 요새·아가보 예언)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두로의 만류(4)와 바울의 올라감을 옳고 그름으로 가르치지 않고 본문 병치만 기록.
- 아가보의 예언(11)을 운명론으로 굳히지 않고 예언과 실제의 호응만 보존.
- 결례 권면(20-26)을 율법주의/율법폐기 논쟁으로 끌지 않고 본문 권면의 까닭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1장은 거둬진 만류와 아가보의 띠 예언을 지나, 바울이 "주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의 소동 끝에 사슬에 매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향해의 작별로 열린다. 두로와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거둬 만류하고,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자기를 묶으며 예루살렘의 결박을 예고한다. 그러나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만류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김으로 그친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율법에 열성인 이들 앞에서 결례로 본을 보이려 하지만, 이레가 차기 전 아시아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를 데려갔다는 오해로 "성전을 더럽혔다" 충동한다. 온 성이 요동하고, 달려온 천부장이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한다. 매인 몸은 침묵이 아니라, 층계에서 손짓하며 입을 여는 자리로 장을 닫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항해(1-3) → 두로(3) → 가이사랴(8) → 예루살렘(17) → 성전(hieron, 26) → 군영 층계(35). 배경 = 성전 이방인 금지·나실인 서원. 소품 = 띠·결례·쇠사슬.
2 첫 느낌·분위기	만류의 반복 → "주의 뜻대로"의 말김. 항해에서 성전으로 좁혀짐. 급한 끝 뒤 입을 여는 정지.
3 시작과 끝	시작 — 항해의 작별(1). 끝 — 매인 채 히브리 말로 입을 엮(40). 다음 장으로 열림.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아가보 / 야고보·장로 / 천부장. 만류와 결단의 반복. 사상 = theléma("주의 뜻대로", 14).
5 장면 컷	컷 1 두로(1-6). 컷 2 아가보(7-14). 컷 3 보고(15-19). 컷 4 결례(20-26). 컷 5 소동(27-30). 컷 6 체포(31-40).
6 의문·발견·정보	성령의 만류(4)와 올라감(13). 예언의 결(11). 고발이 오해(29). 예언의 띠와 실제 사슬(11·33).
7 동영상	작별 → 띠 예언·말김 → 보고 → 결례 → 소동·끌려남 → 체포·입을 엮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 성전의 사슬". 부제 — "만류의 눈물과 예언의 띠, 그리고 매인 채 입을 여는 자리".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가이사랴의 만류와 성전의 소동 결을 걸으며 "주의 뜻대로"라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만류에서 말김으로:** 두로와 가이사랴의 만류(4·12)는 바울의 각오(13)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14)로 그친다. 막으려던 사랑이 말김으로 바뀐다.
- 결 2 — 예언의 띠와 실제의 사슬:** 아가보가 띠로 자기를 묶으며 결박을 예고한(11절) 그대로, 천부장이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한다(33절). 예고된 결박과 실제 결박이 한 장에 호응한다.
- 결 3 — 조심과 소동:** 율법을 지키려던 결례(26절)가 도리어 오해(29절)와 소동의 자리가 된다. 본문은 그 고발이 오해였음을 독자에게 직접 밝힌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0:23** (결박의 예고, 11절과 닿음), **행 6:13** (성전·율법 비방의 고발 결, 28절), **행 22:3** (다소 사람 바울의 변론으로 이어짐).
- 다른 권 — **눅 22:42** ("주의 뜻대로"·갯세마네의 결, 14절), **민 6장** (나실인 서원 배경, 23-24절).
- 정경 흐름 — 21장의 체포는 사도행전 후반의 재판·로마 행로(22~28장)를 여는 경첩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언의 성취 결을 시작한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거듭된 만류의 눈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아가보의 띠 예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김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오해가 일으킨 성전의 소동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말김은 사슬 앞에서도 입을 닫지 않는다\*는 결을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주의 뜻대로"라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제자들이 거듭 "올라가지 말라" 만류한다
- [x] 아가보가 띠로 결박을 예고한다
- [x]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다
- [x]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친다
- [x] 결례로 본을 보이려 한다
- [x] 오해가 성전의 소동을 일으킨다
- [x] 바울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입을 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말김.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성령의 만류(4절)와 바울의 올라감은 어떻게 함께인가?

-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4)와 바울의 결단(13)이 한 장에.
- 만류와 향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아가보의 예언(11절)은 막으려는 것인가 알리려는 것인가?

- 결박을 예고하되 바울은 듣고도 올라감.
- 예언의 결은 본문이 단정하지 않음. 보류.

Q3. 율법을 지키려던 결례가 왜 체포의 자리가 되었는가?

- 본을 보이려던 결례(26)가 소동(27)의 배경이 됨.
- 조심과 화의 결은 보류.

Q4. 고발이 오해(29절)였음을 본문은 왜 곧바로 밝혔는가?

- 드로비모를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 독자에게 알린 까닭은 분포만 보존.

Q5. 매인 자가 왜 침묵이 아니라 입을 열려(40절) 했는가?

- 사슬에 매인 채 손짓하며 말하려 함.
- 닫는 방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예언의 띠(11)와 실제의 사슬(33)이 같은 장에 놓인 까닭은?

- 예고된 결박과 실제 결박이 한 장에.
- 호응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도행전 22장

ACT-022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성전 계단 위, 무리를 향한 회심 간증. '이방인에게로'라는 한 마디에 다시 일어나는 외침, 그리고 결박을 푸는 시민권.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성전 영문 계단 위(무리 앞) → 영문 안(채찍 신문) → 공회 앞(30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히브리 말(2절, 무리를 조용하게 함), 채찍·가죽줄(24-25절), 회상 속 정오의 큰 빛(6·11절).
- apologia(변명, 1절) 형식이 장 전체의 골격.
- "로마 사람"(Rhomaioi, 25·27절)·"시민권"(politeia, 28절)이 후반 소품.
- 아나니아 =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12절)으로 소개됨(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히브리 말에 무리가 "더욱 조용한지라"(2절) — 본문이 분위기를 직접 보고.
- "이방인에게로"(21절) 한 마디에 옷 벗어 던지고 티끌 날림(23절) — 정적에서 폭발로.
- 변론자 → 묶이는 자 → 풀리는 자로 처지가 세 번 바뀜.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부형들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 무리 앞 변론으로 열림.
- 30절: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 공회 앞으로 닫힘.
- 청중이 무리 → 영문 → 공회로 좁혀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무리 / 아나니아(12) / 천부장 루시아(24·28) / 백부장(25-26) / 회상 속 음성(7-8).
- 간증 골격 = 과거(3-5: 다소·가말리엘·박해자) → 회심(6-16: 큰 빛·아나니아) → 사명(17-21: 성전 환상·이방인).
- "이방인"(ethne, 21절)이 사명과 분노의 갈림에 놓임.
- "나는 나면서부터라"(28절) — 난 시민권 vs 산 시민권의 대비.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계단 위, 히브리 말, 과거 — 다소·가말리엘·박해자.
- 컷 2 (6-11): 정오의 큰 빛, "사울아 사울아", 보지 못함.
- 컷 3 (12-16): 아나니아, "다시 보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 컷 4 (17-21): 성전 환상,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 컷 5 (22-30): 폭발, 채찍 신문, 시민권, 결박 풀, 공회 소집.

## 6 — (1) 원어 카드

- apologia(ἀπολογία) — 변명·법정 변론. 1절. 장 전체의 형식.
- Hebraidi dialektō(Ἑβραϊδὶ διαλέκτῳ) — 히브리 말로. 2절. 무리를 조용하게 함.
- ethne(ἔθνη) — 이방인·민족들. 21절. 폭발의 분기점.
- epikaleo(ἐπικαλέω) — 부르다. 16절 "주의 이름을 불러" (뒤 25장 "상소"와 같은 어근).
- Rhomaios(Ῥωμαῖος) — 로마 사람. 25·27·29절.
- politeia(πολιτεία) — 시민권. 28절.

## 6 — (2) 문학 구조

- 한 편의 변론(apologia) — 과거(3-5)·회심(6-16)·사명(17-21)의 세 마디.
- 9장의 회심 서사가 1인칭 간증으로 재진술(화자 전환).
- "보다·듣다·증인 되다"(14-15)의 세 동사 묶음.
- 난 시민권(28절)과 산 시민권(28절)의 대비.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로마 시민은 정죄 없이 채찍질당하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음 — 25·29절의 반응으로 본문이 보고.
- "히브리 말"(아람어 포함 가능)이 청중을 조용하게 만든 정황 — 인물 반응으로 기록.
- "가말리엘 문하"(3절)는 바리새 율법 교육 배경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2 ↔ 행 9:1-19 (회심 서사, 화자 전환 재진술)
- 행 22 ↔ 행 26:12-18 (세 번째 회심 진술)
- 행 22:16 "주의 이름을 불러" ↔ 행 25:11 "가이사께 상소하노라"(epikaleo 어근)
- 행 22:25-29 ↔ 행 16:37-38 (로마 시민권 호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계단 위에 선 바울이 히브리 말로 변론을 연다. 무리가 더 조용해진다. 다소에서 나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고 이 도를 박해하던 자였다 말한다. 다메섹 길 정오의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신다. 보지 못하게 된 그에게 아나니아와 "다시 보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한다. 성전에서 환상으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들은 대목에 이르자 무리가 일어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린다. 천부장이 채찍으로 신문하려 매게 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을 정죄 없이 매느냐" 묻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임이 드러나 결박이 풀린다. 끝으로 공회가 모이고 그가 그들 앞에 세워진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부형들이 들으라 — 계단 위의 변론, 풀리는 결박"
- 초벌 부제: "조용해진 계단에서 폭발하는 무리로, 그리고 풀리는 결박"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시민권 법·히브리 말·가말리엘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이방인에게로"(21절)를 선교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ethne의 위치(사명·분노의 갈림)만 기록.
- 시민권 호소(25-29)를 처세 교훈으로 읽지 않도록 → 법적 정황만 배경으로 보존.
- 회심 재진술은 9장과의 화자 전환으로만 표시, 신학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2장은 성전 계단 위 한 사람의 회심 간증이 "이방인에게로"라는 한 마디에서 무리의 폭발로 갈라지고, 로마 시민권이 결박을 푸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히브리 말로 조용해진 무리 앞에서 과거-회심-사명의 변론을 펼친다. 다소·가말리엘·박해자였던 과거, 정오의 큰 빛과 아나니아의 회심, 성전 환상의 사명이 한 입에서 흐른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로"에 이르자 무리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린다. 채찍에 매이던 자리에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한 마디가 결박을 풀고, 끝에 공회 앞에 세워진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계단 위(무리) → 영문 안(채찍) → 공회 앞(30). 소품 = 히브리 말·채찍·가죽줄·정오의 큰 빛. apologia·politeia.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히브리 말에 더 조용(2). "이방인에게로"에 폭발(23). 변론자→묶인 자→풀린 자.
3 시작과 끝	시작 — 무리 앞 변론(1). 끝 — 공회 앞에 세움(30). 청중이 좁혀짐.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무리 / 아나니아 / 천부장 / 백부장. 과거·회심·사명의 세 마디. ethne의 갈림.
5 장면 컷	컷 1 계단·과거(1-5). 컷 2 큰 빛(6-11). 컷 3 아나니아(12-16). 컷 4 성전 환상(17-21). 컷 5 폭발·시민권(22-30).
6 의문·발견·정보	9장 서사의 1인칭 재진술. 난/산 시민권 대비. epikaleo의 먼 두 걸. "보다·듣다·증인" 동사.
7 동영상	히브리 말 변론 → 큰 빛 회상 → 아나니아 → "이방인에게로" → 폭발 → 시민권 → 풀림 → 공회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부형들이 들으라 — 계단 위의 변론, 풀리는 결박". 부제 — "조용해진 계단에서 폭발하는 무리로, 그리고 풀리는 결박".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계단과 영문을 걸으며 한 마디에 뒤집히는 무리 가운데 선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조용함과 폭발:** 히브리 말이 무리를 조용하게 하고(2절), "이방인에게로"가 무리를 폭발시킨다(23절). 같은 무리가 한 변론 안에서 두 극을 오간다.
- 결 2 — 세 마디의 변론:** 과거(3-5)·회심(6-16)·사명(17-21)이 한 입에서 흐른다. 박해자가 증인으로 옮겨 가는 길이 한 호흡에 담긴다.
- 결 3 — 결박을 푸는 한 마디:** 채찍에 매이던 자리에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28절)이 결박을 푼다. 묶임과 풀림이 한 절 사이에 있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9:1-19** (회심 서사), **행 26:12-18** (세 번째 회심 진술), **행 16:37-38** (시민권 호소).
- 어근 — **행 25:11** "상소"(epikaleo)가 22:16 "주의 이름을 불러"와 같은 어근으로 뒤에 놓인다.
- 정경 흐름 — 22장의 변론은 사도행전 후반 다섯 변론(22·23·24·26·28장)의 첫 자리로, 무리 → 공회 → 총독 → 왕 → 로마로 이어지는 사슬을 연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계단 위, 히브리 말로 조용해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정오의 큰 빛이 회상으로 펼쳐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방인에게로"에 무리가 폭발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채찍에 매이던 손이 시민권 한 마디에 풀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변론은 청중을 바꾸어도 같은 사슬을 잇는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 마디에 뒤집히는 무리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히브리 말이 무리를 조용하게 한다

- [x] 과거·회심·사명이 한 입에서 흐른다
- [x] "이방인에게로"에서 무리가 폭발한다
- [x] 채찍에 매이는 자리가 온다
- [x] 로마 시민권이 결박을 푼다
- [x] 끝은 공회 앞에 세워짐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변론.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회심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시작했는가?**

- 2절에서 그 말이 무리를 더 조용하게 함.
- 말 선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왜 "이방인에게로"(21절)에서 무리가 폭발했는가?**

- 22-23절에서 옷 벗어 던지고 티끌 날림.
- ethne의 어떤 결이 분노를 불렀는지 답하지 않고 보존.

**Q3. 왜 채찍을 매기 직전에야 시민권을 말했는가?**

- 25절에서 가족줄에 매인 뒤 백부장에게 물음.
- 때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위치만 보존.

**Q4. 난 시민권과 산 시민권의 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 28절에서 천부장은 돈으로, 바울은 "나면서부터"라 함.
- 대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나란히 둬.

**Q5. 9장의 회심과 22장의 재진술은 왜 다른 결로 놓이는가?**

- 같은 사건이 서술자(9장)와 1인칭 간증(22장)으로 두 번.
- 화자 전환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6. "주의 이름을 불러"(16)와 뒤의 "상소"(25:11)는 같은 어근으로 어떻게 멀리 놓이는가?**

- 둘 다 epikaleo 어근.
- 같은 동사의 두 결의 거리만 보존,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3장

ACT-023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공회를 둘로 가르 한 마디 '부활', 그날 밤 '담대하라'는 위로, 그리고 맹세한 자들을 피해 밤길로 떠나는 호송.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공회(산헤드린) 앞 → 영문 안 밤(11절) → 음모의 자리(12절) → 가이사랴 밤길(23절) → 헤롯궁(35절)으로 옮겨간다.
- 소품 = 군대 규모(보병 200·마병 70·창병 200, 23절), 천부장의 편지(25-30절).
- synedrion(공회) 안의 두 무리 = 바리새인·사두개인. 8절이 두 무리의 차이를 직접 설명.
- "부활"(anastasis, 6절)이 공회를 가르는 단어.
- 5절은 출 22:28("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인용(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그 입을 치라"(2)·"회칠한 담이여"(3) — 충돌로 열림.
- 큰 소란(9-10) → 밤의 "담대하라"(11) → 음모(12)로 분위기가 급변.
- 법정 → 위로 → 음모 → 호송으로 무대가 계속 이동.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 공회 앞 변론으로 열림.
- 35절: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 가이사랴에서 달함.
- 도시가 예루살렘 → 가이사랴로 옮겨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대제사장 아나니아(2) / 공회(바리새인·사두개인) / 주(11) / 바울의 생질(16) / 천부장 루시아 / 백부장 / 벨릭스(편지 수신).
- 사상 축 = "부활"(6). 그 한 마디로 공회가 갈라지고 바리새인 편이 9절에 변론.
- "담대하라"(tharsei, 11절) — 밤에 주께서 직접 위로.
- 맹세 3회(12·14·21) —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공회 앞, "입을 치라", "회칠한 담이여", 대제사장임 알지 못함.
- 컷 2 (6-10): "부활로 심문 받노라", 갈라짐, 큰 소란, 군인이 빼냄.
- 컷 3 (11): 그날 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

- 컷 4 (12-22): 사십여 명의 맹세, 생질이 듣고 알림.
- 컷 5 (23-35): 밤길 호송, 편지, 가이사랴, 헤롯궁.

### 6 – (1) 원어 카드

- synedrion(συνέδριον) — 공회·산헤드린. 1·6·15·28절.
- Pharisaioi(Φαρισαῖοι) / Saddoukaios(Σαδδουκαῖος) — 바리새인 / 사두개인. 6-8절.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6·8절. 공회를 가르는 단어.
- tharsei(θάρασει) — 담대하라. 11절. 밤의 위로.
- synomosia(συνωμοσία) — 함께 맹세함·음모. 13절(동맹).
- diasoso(διασώζω) — 끝까지 건져내다. 24절(안전히)·27절(구원).

### 6 – (2) 문학 구조

- 법정(1-10) → 밤의 위로(11) → 음모(12-22) → 호송(23-35)의 네 묶음.
- 중심에 11절의 "담대하라"가 소란과 음모를 가름.
- 맹세("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3회 반복(12·14·21).
- 천부장의 편지(25-30)가 사건을 요약하는 삽입.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사두개인은 부활·천사·영을 부인, 바리새인은 인정 — 8절이 직접 보고.
- 출 22:28("관리를 비방하지 말라")이 5절에 인용됨 — 본문 인용으로 기록.
- 로마 호송 규모와 절차(편지 동봉)는 당시 죄수 이송 정황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3:11 ↔ 행 18:9-10 / 행 27:23-24 (밤의 위로·환상)
- 행 23:6 ↔ 행 24:21 / 행 26:6-8 (부활을 변론의 축으로)
- 행 23:5 ↔ 출 22:28 (관리 비방 금지 인용)
- 행 23:16-22 ↔ 행 9:23-25 (음모를 피해 빠져나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하자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명한다. "회칠한 담이여" 하다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했다 한다. "부활로 심문 받노라"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라져 큰 소란이 일고, 천부장이 군인을 내려 그를 빼낸다. 그날 밤 주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이튿날 사십여 명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맹세하고, 바울의 생질이 이를 듣고 천부장에게 알린다. 천부장이 보병·마병·창병을 갖추어 밤에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하고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 보낸다.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편지와 바울을 인계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는 데서 닫힌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부활로 갈라진 공회, 밤의 담대하라 — 그리고 밤길 호송"
- 초벌 부제: "갈라진 공회에서 밤길 호송으로, 그 사이의 담대하라"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산헤드린 두 무리·출 22:28 인용·호송 규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부활"(6절)을 변론 전략으로만 읽지 않도록 → anastasis가 공회를 가르 위치만 기록.
- 11절의 위로를 섭리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소란과 음모 사이의 자리만 보존.
- 맹세(12-21)의 강도는 인물 반응으로만 두고 신학화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3장은 "부활"이라는 한 마디가 공회를 둘로 가르고, 그날 밤의 "담대하라"가 소란과 음모 사이에 놓이며, 맹세한 자들을 피해 밤길 호송이 가이사랴로 향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공회 앞 충돌로 열린다. "입을 치라"와 "회칠한 담이여"가 부딪고, "부활로 심문 받노라"는 한 마디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라져 큰 소란이 인다. 그날 밤 주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위로하신다. 이튿날 사십여 명이 맹세하지만 바울의 생질이 이를 듣고 알리고, 천부장은 군대를 갖추어 밤길로 가이사랴 까지 호송한다. 끝에 그는 헤롯궁에 지켜진다.

####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공회 → 영문 밤(11) → 음모 → 가이사랴 밤길(23) → 헤롯궁(35). 소품 = 군대 규모·편지. synedrion·anastasis.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입을 치라"의 충돌. 소란(9-10)→위로(11)→음모(12)의 급변.
3 시작과 끝	시작 — 공회 앞(1). 끝 — 헤롯궁(35). 예루살렘→가이사라.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대제사장 / 공회 / 주 / 생질 / 천부장 / 벨릭스. 축 = 부활(6). tharsei(11).
5 장면 컷	컷 1 공회 충돌(1-5). 컷 2 갈라짐(6-10). 컷 3 밤의 위로(11). 컷 4 맹세·생질(12-22). 컷 5 호송(23-35).
6 의문·발견·정보	위로가 소란·음모 사이에 박힘. 출 22:28 인용(5). 맹세 3회(12·14·21). diasoso(24·27).
7 동영상	공회 충돌 → 부활로 갈라짐 → 밤의 담대하라 → 맹세·생질 → 밤길 호송 → 헤롯궁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부활로 갈라진 공회, 밤의 담대하라 — 그리고 밤길 호송". 부제 — "갈라진 공회에서 밤길 호송으로, 그 사이의 담대하라".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공회와 밤의 영문과 호송의 길을 걸으며 소란·음모 사이에서 위로를 듣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1. **걸 1 — 한 단어의 분열:** "부활"(6절) 하나가 공회를 둘로 가른다. 한 마디가 청중의 걸을 갈라 놓는다.
2. **걸 2 — 소란과 음모 사이의 위로:** 낮의 소란(10절)과 밤의 음모(12절) 사이에 "담대하라"(11절)가 놓인다. 위로가 두 위협 가운데 박혀 있다.
3. **걸 3 — 맹세를 깨는 한 귀:** 사십여 명의 맹세(12절)가 바울의 생질이라는 한 사람의 들음(16절)에 깨진다. 큰 음모가 작은 귀에 무너진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8:9-10·행 27:23-24** (밤의 위로·환상), **행 24:21·행 26:6-8** (부활을 변론 축으로).
- 다른 권 — **출 22:28** (5절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인용).
- 정경 흐름 — 11절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27-28장의 항해와 로마 도착을 미리 가리켜, 사도행전 후반의 지리적 사슬을 연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공회 앞, "입을 치라"는 명이 떨어지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부활"에 공회가 갈라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그날 밤 "담대하라"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 생질의 귀에 맹세가 깨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위로는 소란과 음모 사이에 놓인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소란과 음모 사이에서 담대하라는 듣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부활"이 공회를 둘로 가른다
- [x] 큰 소란에 군인이 그를 빼낸다

- [x] 그날 밤 "담대하라"가 들린다
- [x] 사십여 명이 맹세한다
- [x] 한 생질이 음모를 듣고 알린다
- [x] 밤길 호송이 가이사랴로 향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담대하라.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궐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5절)인가?

- 입을 치라는 명에 격하게 대꾸한 뒤의 말.
- 알지 못함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부활"(6절)은 왜 공회를 둘로 가르는가?

- 8절에서 두 무리의 차이가 부활·천사·영에 있음.
- anastasis가 가르른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왜 위로(11절)가 소란과 음모 사이에 놓이는가?

- 10절 소란과 12절 음모 사이에 "담대하라".
- 가운데 덩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Q4. 사십여 명의 맹세는 어떻게 한 생질의 귀에 깨지는가?

- 12-16절에서 음모와 생질의 들음이 맞붙음.
- 맞붙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나란히 덩.

Q5. "담대하라... 로마에서도"(11절)는 왜 이 밤에 놓이는가?

- 증언의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미리 가리켜짐.
- 때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위치만 보존.

Q6. 편지(25-30)는 왜 사건을 다시 요약하는가?

- 천부장의 시선으로 사건이 한 번 더 정리됨.
- 삼입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4장

ACT-024 · 역사서(신약) · 헬라어

고용된 웅변과 담담한 변론이 총독 앞에서 마주 선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떨면서도 미루는 총독, 그리고 묶인 채 두 해.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 법정. 한쪽에 아나니아·장로·더들로, 다른 쪽에 바울.
- 소품 = 마주 놓인 두 연설(고소 2-8, 변론 10-21), 23절의 "약간의 자유".
- 같은 것을 두 이름으로 — "이단"(haireisis, 5절) vs "이 도"(hodos, 14절).
-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25절)이 강론의 세 단어.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더들로의 칭송(2-4)으로 매끄럽게 열림 vs 바울의 담담한 변론(10-).
- 25절 "두려워하여"의 출렁임 → 곧 "후에 부르리라"의 미륵.
- 끝의 "이태가 지나서"(27)로 멈춰 선 두 해.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 고소로 열림.
- 27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 미륵으로 닫힘.
- 열림은 또렷하고 닫힘은 결말 없이 흐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벨릭스 / 드루실라(24) / 대제사장 아나니아 / 변호사 더들로 / 장로들 / 바울.
- 고용된 웅변(더들로) vs 홀로 선 변론(바울)이 마주 섬.
- 사상 축 = 부활(15·21). 23장과 같은 못.
- 벨릭스 안의 두 결 — 두려움(25)과 돈 바람(26)이 함께.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더들로의 고소 — 칭송·"전염병 같은 자"·"이단의 우두머리".
- 컷 2 (10-21): 바울의 변론 — "이 도", "부활의 소망", "증인을 세우라".
- 컷 3 (22-23): 벨릭스의 연기 — "루시아가 오면", 약간의 자유.
- 컷 4 (24-27): "의·절제·심판"에 떨, 돈 바람, 두 해, 베스도 부임.

## 6 – (1) 원어 카드

- hegemon(ἡγεμών) — 총독. 1·10절. 벨릭스를 가리킴.
- apologeomai(ἀπολογέομαι) — 변명하다·변론하다. 10절.
- hairesis(αἵρεσις) — 분파·이단. 5·14절(고소 측 명명).
- hodos(ὁδός) — 길·도. 14·22절(바울·총독이 "이 도"로 받음).
- dikaiosyne(δικαιοσύνη) / egkrateia(ἐγκράτεια) / krima(κρίμα) — 의 / 절제 / 심판. 25절의 세 단어.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15·21절.

## 6 – (2) 문학 구조

- 마주 놓인 두 연설 — 고소(2-8) vs 변론(10-21)의 대칭.
- 이름의 대립 — "이단"(5) vs "이 도"(14)가 같은 대상에.
- 벨릭스의 두 결 병치 — 두려움(25)과 돈 바람(26).
- 23장과의 연결 못 — 부활(15·21).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더들로는 고용된 변호사(수사학적 칭송이 관행) — 2·4절 정황으로 기록.
- 드루실라는 유대인(24절) — 본문이 동행을 보고, 배경으로만.
-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22절) — 재판관의 사전 인지.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4:14 ↔ 행 9:2 / 행 19:9·23 / 행 22:4 ("이 도"·hodos 호칭)
- 행 24:15·21 ↔ 행 23:6 / 행 26:6-8 (부활을 변론 축으로)
- 행 24:25 ↔ 행 17:31 (장차 오는 심판)
- 행 24:27 ↔ 행 25:9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내려온다. 더들로가 총독을 높이며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소한다. 총독의 신호에 바울이 변론하여 "이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한다" 하고 증인을 세우라 한다. 벨릭스가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리라" 하고 미루며 약간의 자유를 준다. 며칠 후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듣다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강론에 두려워하며 "지금은 가라" 한다. 그 뒤로 돈을 바라 자주 부르더니, 두 해가 지나 베스도가 후임이 되고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한 채 떠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단인가 이 도인가 — 떨면서 미루는 총독"
- 초벌 부제: "마주 선 두 변론에서 떨면서 미루는 총독으로, 그리고 멈춘 두 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고용 변호사·드루실라·이 도 호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이단"(5)과 "이 도"(14)를 교리 논쟁으로 굳히지 않도록 → 두 이름의 나란함만 기록.
- 벨릭스의 떨림(25)을 회개 서사로 읽지 않도록 → 두려움·돈 바람의 병치만 보존.
- "의·절제·심판"(25)을 설교 주제로 퍼지 않도록 → 강론의 세 단어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4장은 고용된 웅변과 담담한 변론이 총독 앞에서 마주 서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떨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총독이 두 해를 멈춰 세우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변호사 더둘로의 화려한 고소로 열린다. "전염병 같은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에 바울은 같은 것을 "이 도"라 받으며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고 담담히 변론한다. 벨릭스는 재판관을 미루고,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듣다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은 가라" 한다. 두려움과 돈 바람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고, 두 해가 결말 없이 흐른 뒤 베스도가 후임이 된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이사라 벨릭스 법정. 소품 = 마주 놓인 두 연설·약간의 자유. hairesis vs hodos. "의·절제·심판".
2 첫 느낌·분위기	칭송(2-4)→담담한 변론(10-). 떨림(25)과 미룸. 멈춘 두 해(27).
3 시작과 끝	시작 — 고소(1). 끝 — 구류(27). 열림은 또렷, 닫힘은 흐림.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상황·사상	벨릭스·드루실라 / 더들로 / 아나니아·장로 / 바울. 고용 웅변 vs 홀로 변론. 축 = 부활(15·21).
5 장면 컷	컷 1 더들로 고소(1-9). 컷 2 바울 변론(10-21). 컷 3 미룸(22-23). 컷 4 뿔·돈·두 해(24-27).
6 의문·발견·정보	이름의 대립(5/14). "이 도를 아는"(22) 재판관. 두려움·돈 바람 병치(25-26).
7 동영상	화려한 고소 → 담담한 변론 → 미룸 → 떨림과 미룸 → 돈 바람 → 두 해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단인가 이 도인가 — 떨면서 미루는 총독". 부제 — "마주 선 두 변론에서 떨면서 미루는 총독으로, 그리고 멈춘 두 해".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법정을 걸으며 떨면서도 미루는 총독의 자리를 들여다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이름의 한 대상:** 같은 것을 고소 측은 "이단"(5절), 바울은 "이 도"(14절)라 부른다. 부르는 이름이 그 자리를 가른다.
- 결 2 — 두 목소리의 대칭:** 고용된 웅변(2-8)과 홀로 선 변론(10-21)이 같은 법정에 마주 놓인다. 화려함과 담담함이 한 무대에 선다.
- 결 3 — 떨면서 미루는 한 사람:** 벨릭스는 "의·절제·심판"에 떨면서도(25절) 돈을 바라 자주 부른다(26절). 두려움과 미룸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9:2·행 22:4** ("이 도" 호칭), **행 23:6·행 26:6-8** (부활 변론), **행 25:9**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다른 권 — **행 17:31** (장차 오는 심판의 결).
- 정경 흐름 — 24장의 미룬 재판은 25장의 "가이사께 상소"로 이어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는 사슬의 한 마디가 된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화려한 고소가 쏟아지는 법정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같은 것을 "이 도"라 받는 담담한 변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떠는 총독을 보며 멈춘다.
- **멈춤 3:** 떨면서도 미루고 돈을 바라는 한 사람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두려움은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떨면서도 미루는 총독의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화려한 고소가 먼저 쏟아진다
- [x] 바울은 같은 것을 "이 도"라 받는다
- [x] 부활을 변론의 뜻으로 박는다

- [x] 벨릭스가 재판을 미룬다
- [x] "의·절제·심판"에 떠난다
- [x] 두 해가 결말 없이 흐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미룸.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떠나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같은 대상을 왜 "이단"과 "이 도"로 달리 부르는가?**

- 5절은 고소 측의 hairesis, 14절은 바울의 hodos.
- 이름의 갈림은 답하지 않고 나란히 둬.

**Q2. 벨릭스는 왜 떨면서도(25절) 미웠는가?**

- 두려움과 "지금은 가라"가 붙어 있음.
- 미룸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3. 두려움(25)과 돈 바람(26)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함께인가?**

- 같은 벨릭스가 떨면서 자주 부름.
- 두 절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왜 부활(15·21)이 변론의 뜻으로 거듭 박히는가?**

- 23장에 이어 24장에서도 부활이 축.
- 거듭됨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5. 재판관이 "이 도를 더 자세히 아는"(22) 데도 왜 미웠는가?**

- 사전 인지와 미룸이 한 절에 함께.
- 앞과 미룸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결말 없이 멈춘 두 해(27)는 무엇을 남기는가?**

- 재판이 처결 없이 구류로 이어짐.
- 멈춤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5장

ACT-025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새 총독도 호의를 베풀려 문자 한 마디로 길이 바뀐다 —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죄목 없이 보낼 죄수를 두고 왕에게 사건을 퍼 놓는 자리.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1-5) → 가이사라 재판석(6-12) → 가이사라 왕 영접·설명(13-27).
- 소품 = 재판석(bema, 6·10·17절), 23절의 "크게 위의를 갖춘" 자리.
- "상소하노라"(epikaloumai, 11절)·"가이사"(Kaisar, 11·12·21절).
- "죄목 없음"이 7·18·27절에 세 번 올림.
- "황제"(Sebastos, 21·25절) 칭호 등장(배경).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부임 삼 일 만에 곧 움직임(1) — 빠른 시작.
- "가이사께 상소하노라"(11) 한 문장에 길이 바뀜.
- 법정 → 왕 영접 설명회로 결이 옮겨감. 끝은 난처함(27).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 새 총독 부임으로 열림.
- 27절: "죄목을 지적함이 없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 난처함으로 닫힘.
- 부임에서 난처함으로 옮겨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베스도 / 대제사장·지도자들 / 바울 / 아그립바 왕 / 버니게(13).
- 베스도의 동기 =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9) — 벨릭스(24:27)와 닮음.
- 분기점 = "가이사께 상소하노라"(11) → "가이사께 갈 것이라"(12).
- 베스도의 외부자 요약(19) — 부활을 종교 논쟁으로만 정리.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예루살렘, 청원·매복 음모, "가이사라로 오라".
- 컷 2 (6-12): 재판석, 증거 못 댐, "예루살렘에 가려느냐", "상소하노라".
- 컷 3 (13-22): 아그립바·버니게 도착, 사건 설명, "나도 듣고자".
- 컷 4 (23-27): 위의를 갖춘 자리, 죄목 없음, 왕 앞에 세움.

## 6 – (1) 원어 카드

- epikaloumai(ἐπικαλοῦμαι) – 상소하다·부르다. 11·12·21·25절. (22:16과 같은 어근)
- Kaisar(Καῖσαρ) – 가이사·황제. 11·12·21절.
- bema(βῆμα) – 재판석. 6·10·17절.
- aitiama(αἰτίαμα) – 고발 사건·죄목. 7·18절 계열.
- Sebastos(Σεβαστός) – 황제(아우구스투스 칭호). 21·25절.

## 6 – (2) 문학 구조

- 법정(1-12) → 왕 앞 설명(13-27)의 두 묶음.
- "죄목 없음" 3회 반복(7·18·27)이 골격을 짚는 실.
- 분기점 한 문장 "상소하노라"(11)를 축으로 길이 갈림.
- 베스도의 두 번 사건 요약(14-21, 24-27)이 외부자 시점을 제공.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로마 시민의 상소권 – 11-12절의 절차로 본문이 보고.
- "로마 사람의 법은 대면 변명 전에 내주지 않는다"(16) – 재판 절차 직접 인용.
- 아그립바 2세·버니게는 헤롯 가문 – 본문이 동행을 보고,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5:11 ↔ 행 22:16 (epikaleo 어근)
- 행 25:12 ↔ 행 23:11 / 행 27:24 (로마로 향함의 예고·성취)
- 행 25:9 ↔ 행 24:27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행 25:19 ↔ 행 26:8 (부활을 둘러싼 다툼)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부임한 베스도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옮겨 달라 청한다. 길에 매복할 음모가 있었으나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와서 고소하라" 한다. 재판석 앞에서 유대인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나 증거를 못 낸다.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는 물음에 바울이 "가이사랴의 재판석 앞에 섰으니 여기서 받아야 한다... 가이사랴에 상소하노라" 한다. 베스도가 배석자와 의논해 "가이사랴에 갈 것이라" 한다. 며칠 후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와 문안하고, 베스도가 사건을 설명하며 고발이 종교와 "죽은 예수를 살아 있다 하는" 문제였다 하자 왕이 "나도 듣고자 하노라" 한다. 이튿날 위의를 갖춘 자리에 바울이 끌려오고, 베스도가 죄목 없이 보내는 난처함을 말하며 왕 앞에 세운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가이사랴에 상소하노라 – 재판석의 한 문장"
- 초벌 부제: "재판석의 한 문장에서 바뀐 길, 그리고 죄목 없는 난처함"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5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상소권·로마 재판 절차·헤롯 가문)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가이사께 상소"(11)를 처세·전략 교훈으로 굳히지 않도록 → 길이 바뀐 분기점만 기록.
- 베스도의 부활 요약(19)을 신학 평가로 읽지 않도록 → 외부자 시점의 정리로만 보존.
- 죄목 없음(7:18·27)의 반복은 어휘 분포로만 두고 변증 결론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5장은 새 총독의 호의 제안 앞에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한 문장이 길을 로마로 바꾸고, 죄목 없는 죄수를 왕 앞에 세우는 난처함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베스도의 부임으로 빠르게 열린다.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매복하려 하나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부른다. 재판석 앞에서 고발은 쏟아지지만 증거는 비어 있고,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는 호의 제안에 바울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한 문장으로 길을 막고 연다. 며칠 뒤 아그립바와 버니게 앞에서 베스도가 사건을 설명하며, 죄목 없이 죄수를 보내야 하는 난처함을 고백한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1-5) → 재판석(6-12) → 왕 영접(13-27). 소품 = bema·위의를 갖춘 자리. epikaloumai·Kaisar.
2 첫 느낌·분위기	부임 삼 일 만의 빠름(1). "상소하노라"(11)에 길 바뀜. 끝난 난처함(27).
3 시작과 끝	시작 — 부임(1). 끝 — 죄목 없는 난처함(27).
	베스도 / 지도자 / 바울 / 아그립바·버니게. 동기 = "마음을 얻고자"(9). 분기 = "상소하노라"(11).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상황·사상	
5 장면 컷	컷 1 예루살렘·음모(1-5). 컷 2 재판석·상소(6-12). 컷 3 왕 설명(13-22). 컷 4 위의·죄목 없음(23-27).
6 의문·발견·정보	죄목 없음 3회(7·18·27). 로마 재판 절차(16). epikaleo의 먼 두 걸. 23:11과 25:12의 맞물림.
7 동영상	부임 → 음모 → 재판석 → 상소 → 길 바뀜 → 왕 설명 → 죄목 없는 난처함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 재판석의 한 문장". 부제 — "재판석의 한 문장에서 바뀐 길, 그리고 죄목 없는 난처함".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재판석과 왕을 맞는 자리를 걸으며 한 문장으로 길이 바뀌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한 문장의 분기:** "가이사께 상소하노라"(11절) 한 문장이 예루살렘행을 막고 로마행을 연다. 짧은 말이 긴 길을 가른다.
- 결 2 — 비어 있는 죄목:** 고발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7절)인데 증거는 없고, 같은 빈자리가 18·27절에 거듭 올린다. 많은 고발이 빈 죄목으로 모인다.
- 결 3 — 외부자의 요약:** 베스도는 사건을 "죽은 예수를 살아 있다 하는"(19절) 문제로 정리한다. 안의 부활이 밖의 눈에 종교 논쟁으로 비친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2:16** (epikaleo 어근), **행 23:11·행 27:24** (로마로 향함), **행 24:27** ("마음을 얻고자"), **행 26:8** (부활 다툼).
- 정경 흐름 — 25장의 "상소"는 27-28장의 항해를 법적으로 연다. 무리·공회·총독·왕을 지나 가이사로 향하는 사슬의 뜻이 박힌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새 권력이 부임해 곧 움직이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호의 제안 앞에서 "상소하노라"가 나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고발은 많고 죄목은 비어 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죄목 없이 죄수를 보내야 하는 난처함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한 문장이 길을 바꾼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 문장으로 길이 바뀌는 자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새 총독이 부임해 곧 움직인다
- [x] 고발은 많으나 증거가 없다
- [x] "가이사께 상소하노라"가 길을 바꾼다
- [x] 길이 로마로 정해진다
- [x] 아그립바 앞에서 사건이 설명된다

- [x] 죄목 없이 보내는 난처함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상소.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킴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바울은 호의 제안(9절)을 받지 않고 상소했는가?**

- 가까운 예루살렘 대신 먼 로마를 택함.
- 택함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왜 "죄목 없음"이 세 번(7·18·27) 올리는가?**

- 고발은 많고 증거는 빈.
- 반복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새 총독 베스도가 왜 벨릭스와 같은 동기(9절)를 보이는가?**

- 둘 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답음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Q4. "상소하노라"(11)와 22:16 "주의 이름을 불러"는 같은 어근으로 어떻게 놓이는가?**

- 둘 다 epikaleo 어근, 멀리 떨어져 있음.
- 두 곁의 거리만 보존, 관계는 보류.

**Q5. 베스도의 부활 요약(19)은 왜 외부자의 결로만 남는가?**

- "죽은 예수를 살아 있다 하는" 문제로만 정리.
- 외부자 시점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23:11의 밤과 25:12의 법정은 어떻게 같은 곳을 가리키는가?**

- "로마에서도 증언"과 "가이사께 갈 것이라"가 맞물림.
- 맞물림의 곁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6장

ACT-026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왕 앞에 펼친 세 번째 간증. '미쳤다'와 '적은 말로 권하여' 사이에서, 결박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비는 한 사람.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가이사랴, 위의를 갖춘 자리(25:23에서 이어짐). 아그립바·버니게·베스도·고관들이 둘러앉음.
- 소품 = "손을 들어"(1절) 변론 자세, 회상 속 정오의 빛(13절).
- "가시채를 뒷발질"(kentron, 14절) — 소 모는 막대기.
- 회심 음성이 "히브리 말로"(14절)임이 처음 명시됨.
- "회개"(metanoeo, 20절)·"미쳤도다"(mainomai, 24절)·"권하여"(peitho, 28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정중한 인사(2-3)로 열림.
- "네가 미쳤도다"(24)의 끼어들음으로 한 번 끊김.
- "적은 말로 권하여"(28)의 비껴감 → 무죄·풀 수 없음(31-32)으로 닫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손을 들어 변명하되" — 변론으로 열림.
- 32절: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 무죄·풀 수 없음으로 닫힘.
- 변론에서 풀 수 없는 무죄로 옮겨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아그립바 왕 / 베스도 / 버니게 / 회상 속 음성.
- 변론 세 마디 = 과거(4-11) → 회심(12-18) → 순종(19-23). 22장 골격에 사명이 더 자세.
- 사상 축 = 18절("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23절(고난·부활).
- "미쳤도다"(24) vs "참되고 온전한 말"(25). 끝에 "결박 외에는"(desmos, 29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손을 들어 시작, 정중한 인사.
- 컷 2 (4-11): 과거 — 바리새인·박해자·회당 형벌.
- 컷 3 (12-18): 정오의 빛, 히브리 말 음성, "가시채", 사명.
- 컷 4 (19-23): 순종, 회개 전함, 부활 선포.

- 컷 5 (24-32): "미쳤도다", "적은 말로 권하여", "결박 외에는", 무죄 평결.

## 6 — (1) 원어 카드

- apologeomai(ἀπολογέομαι) — 변명·변론하다. 1·2·24절.
- kentron(κέντρον) — 가시채·소 모는 막대기. 14절.
- metanoeo(μετανοέω) — 회개하다. 20절.
- mainomai(μαίνομαι) — 미치다. 24·25절.
- peitho(πείθω) — 설득하다·권하다. 28절.
- desmos(δεσμός) — 결박. 29·31절.

## 6 — (2) 문학 구조

- 변론 세 마디 — 과거(4-11)·회심(12-18)·순종(19-23).
- 9장·22장·26장의 세 번째 회심 진술(청중 전환: 서술→무리→왕).
- "미쳤도다"(24)와 "참되고 온전한"(25)의 대구.
- 변론의 끝이 호소가 아니라 기원("원하나이다", 29)으로 닫힘.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가시채를 뒷발질"(14)은 당시 격언의 결로 알려짐 — 음성의 말로 본문이 됨.
- 아그립바 2세는 유대 풍속에 밝은 분봉왕 — 3절이 그 인지를 전제(배경).
- "히브리 말로"(14) 명시 — 22장과 비교되는 새 정보로 기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6 ↔ 행 9:1-19 / 행 22:1-21 (세 번째 회심 진술)
- 행 26:18 ↔ 행 13:47 / 사 42:6-7 (이방의 빛·눈을 뜨게)
- 행 26:23 ↔ 행 23:6 / 행 24:21 / 행 25:19 (부활)
- 행 26:32 ↔ 행 25:11-12 (상소했기에 놓을 수 없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손을 들어 변론을 연다. 아그립바에게 너그러이 들어 달라 청하고,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 성도를 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형벌하며 외국 성까지 박해하러 갔던 과거를 말한다. 다메섹 길 정오,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다. 그 보이심을 거스르지 않고 회개를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잡으려 했고,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밖에 말한 것이 없다 한다. 베스도가 "미쳤도다" 하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 받고, 아그립바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자 "이 결박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다. 왕과 총독이 물러가 "사형이나 결박 당할 행위가 없다",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한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을 들어 — 왕 앞의 세 번째 간증, '적은 말로 권하여'"
- 초벌 부제: "정중한 변론에서 '적은 말로 권하여'로, 그리고 풀 수 없는 무죄"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가시채 격언·아그립바 인지·히브리 말 명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적은 말로 권하여"(28)를 전도 결과로 단정하지 않도록 → 비껴가는 한 마디의 위치만 기록.
- 18절 사명문을 신학 명제로 퍼지 않도록 → 회심 음성의 인용으로만 보존.
- 세 번째 회심 진술은 청중 전환으로만 표시, 비교 신학 보류.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6장은 왕 앞에 펼친 세 번째 회심 간증이 "미쳤다"와 "적은 말로 권하여" 사이에서, 결박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비는 기원으로 닫히고, 무죄인데도 풀 수 없는 역설로 끝나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손을 들어 정중히 변론을 연다. 바리새인·박해자였던 과거, 정오의 빛과 히브리 말 음성과 "가시채를 뒷발질"의 회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 그 뒤의 순종과 부활 선포가 한 호흡에 흐른다. 베스도의 "미쳤도다"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 받고, 아그립바의 "적은 말로 권하여"에 "이 결박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 기원한다. 왕과 총독은 무죄를 인정하지만, 상소했기에 풀 수 없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가이사라 위의를 갖춘 자리. 소품 = "손을 들어"·정오의 빛. kentron·"히브리 말로"(14).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정중한 인사(2-3). "미쳤도다"(24)의 끼어들. "적은 말로 권하여"(28)의 비껴감.
3 시작과 끝	시작 — 손을 들어 변론(1). 끝 — 무죄·풀 수 없음(32).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아그립바 / 베스도 / 버니게. 세 마디 변론. 축 = 18·23절. "결박 외에는"(29).
5 장면 컷	컷 1 인사(1-3). 컷 2 과거(4-11). 컷 3 회심(12-18). 컷 4 순종(19-23). 컷 5 미쳤도다·무죄(24-32).
6 의문·발견·정보	세 번째 회심 진술. 가시채 격언. "미쳤도다" vs "온전한 말". 기원으로 닫힘.
7 동영상	정중한 변론 → 과거 → 빛·음성 → 순종 → "미쳤도다" → "적은 말로 권하여" → 무죄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손을 들어 — 왕 앞의 세 번째 간증, '적은 말로 권하여'". 부제 — "정중한 변론에서 '적은 말로 권하여'로, 그리고 풀 수 없는 무죄".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위의를 갖춘 자리를 걸으며 "적은 말로 권하여" 앞에서 비껴가는 한 사람을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세 번째 간증:** 같은 회심이 9장(서술)·22장(무리)·26장(왕)에서 청중을 바꿔 세 번 놓인다. 한 사건이 듣는 자리마다 결을 더한다.
- 결 2 — 두 평가의 마주섬:** "미쳤도다"(24절)와 "참되고 온전한 말"(25절)이 같은 변론을 두고 부딪는다. 광기와 온전함이 한 자리에서 갈린다.
- 결 3 — 기원으로 닫는 변론:** 변론의 끝이 자기 변호가 아니라 "이 결박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29절)이라는 기원이다. 묶인 자가 듣는 자를 위해 빈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9:1-19·행 22:1-21** (회심 진술), **행 13:47** (이방의 빛), **행 25:11-12** (상소했기에 풀 수 없음).
- 다른 권 — **사 42:6-7** (눈을 뜨게·어둠에서 빛으로의 결).
- 정경 흐름 — 26장의 무죄 평결은 27-28장에서도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증인으로 로마에 닿는 길을 연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위의를 갖춘 자리에서 손을 들어 변론하는 한 사람을 본다.
- **멈춤 1:** 박해자였던 과거가 회심으로 돌아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미쳤도다"와 "온전한 말"이 부딪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이 결박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비는 기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변론은 자기를 풀려는 말이 아니라 듣는 자를 위한 기원일 수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적은 말로 권하여" 앞에서 비껴가는 한 사람\*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손을 들어 정중히 변론을 연다
- [x] 박해자였던 과거를 말한다
- [x] 정오의 빛과 히브리 말 음성이 펼쳐진다
- [x] "미쳤도다"와 "온전한 말"이 부딪는다
- [x] "적은 말로 권하여"가 비껴간다
- [x] 무죄인데도 풀 수 없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원.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28절)는 어떤 마음인가?

- 비웃음인지 흔들림인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 마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회심 이야기가 세 번째로 다시 놓이는가?

- 9장(서술)·22장(무리)·26장(왕)의 청중 전환.
- 거듭됨의 까닭은 목상에서 다시.

Q3. "미쳤도다"(24)와 "참되고 온전한 말"(25)은 왜 마주 서는가?

- 같은 변론을 두고 두 평가가 부딪힘.
- 마주섬의 결은 답하지 않고 나란히 둬.

Q4. "이 결박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29)은 왜 끝에 놓이는가?

- 변론의 끝이 호소가 아니라 기원으로 닫힘.
- 닫힘의 결은 목상에서 다시.

Q5. 14절에 "히브리 말로"가 새로 명시된 까닭은?

- 22장에는 없던 정보가 26장에 더해짐.
- 더해짐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위치만 보존.

Q6. 무죄인데도 풀 수 없는 끝(31-32)은 무엇을 남기는가?

- "행위가 없다"면서도 "상소했기에" 놓을 수 없음.
- 역설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7장

ACT-027 · 역사서(신약) · 헬라어

잔잔히 시작한 항해가 유라굴로에 삼켜진다. 모든 소망이 끊긴 열나흘, 밤의 한 음성, 그리고 배는 부서져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상륙.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 위. 가이사랴(2) → 시돈·무라·미항(8) → 그레데 → 멜리데 앞 파선.
- 소품 = 배를 비워 가는 것들(거룻배·짐·기구·돛·넷·줄)과 떡(35절).
- "유라굴로"(Eurakylon, 14절) = 동북풍. "금식하는 절기"(9절) = 늦은 항해 시기 배경.
- "구원의 여망"(20)·"구원"(34)·"구조"(44)가 sozo 계열로 한 장에.
- "이백칠십육 명"(37절)의 정확한 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평범한 여행기로 열림 → 유라굴로(14)부터 급변.
-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20)의 캄캄함.
- 21절부터 바울의 목소리가 어둠 한가운데 섬. 끝은 전원 상륙(44).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달리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 항해 작정으로 열림.
- 44절: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 파선 후 전원 상륙으로 닫힘.
- 배는 잃고 사람은 다 닿음 — 두 운명이 갈림.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우리"(누가) / 백부장 율리오 / 선장·선주 / 사공들 / 죄수들 / 총 276명.
- 바울의 자리 = 죄수(1) → 위기의 중심 목소리(21-).
- 사상 축 = 23-24절 밤의 천사("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다 네게 주셨다").
- "잃지 않으리라" 2회(22·34) — 생명·머리카락 하나도.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출항, 시돈·무라·미항, 어렵게 그레데.
- 컷 2 (9-12): 바울의 경고, 다수가 떠나기로.
- 컷 3 (13-20): 유라굴로, 짐·기구 버림, 여망 없어짐.
- 컷 4 (21-26): 바울 일어남, 밤의 천사,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 컷 5 (27-44): 열나흘째 밤, 닳 낫, 떡을 떼어 먹음, 파선, 전원 상륙.

### 6 — (1) 원어 카드

- ploos(πλοῦς) — 항해. 9·10절.
- Eurakylon(Εὐρακύλων) — 유라굴로·동북풍. 14절.
- cheimon(χειμών) — 폭풍·겨울. 20절(풍랑).
- angelos(ἄγγελος) — 사자·천사. 23절(밤의 사자).
- sozo(σώζω) 계열 — 구원·구조. 20(여망)·31·34·44절.
- diasothēnai(διασωθῆναι) — 끝까지 건짐받다. 44절(구조).

### 6 — (2) 문학 구조

- 출항(1-8) → 경고·결정(9-12) → 광풍·어둠(13-20) → 밤의 위로(21-26) → 상륙(27-44).
- 중심에 23-24절 밤의 천사가 어둠과 상륙을 잇는 못.
- "잃지 않으리라" 2회(22·34)가 약속의 후렴.
- "우리"(1인칭 복수) 항해기 형식 — 목격자 시점.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금식하는 절기"(9) = 대속죄일 무렵, 가을 늦은 항해의 위험 — 시기 배경.
- 유라굴로는 지중해 동북풍의 뱃사람 용어 — 본문이 그대로 둬.
- 닳 낫·거룻배·곡식 버림 등은 고대 항해 절차 — 배경으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7:23-24 ↔ 행 23:11 / 행 18:9-10 (밤의 위로·환상)
- 행 27:24 "가이사 앞에 서야" ↔ 행 25:11-12 (상소의 성취 방향)
- 행 27:35 "축사하고 떼어" ↔ 눅 22:19 / 행 2:46 (떡을 떼는 결)
- 행 27:34 "머리카락 하나도" ↔ 눅 21:18 (잃지 않음의 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백부장 울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배에 태운다. 시돈·무라를 거쳐 배를 옮겨 타고 어렵게 그레데 미항에 닿는다. 바울이 항해가 위태하리라 경고하나 다수가 떠나기로 한다. 곧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쳐 짐과 기구를 버리고,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다. 굶주린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두려워 말라, 어젯밤 사자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한 섬에 걸리리라" 한다. 열나흘째 밤 닳 낫을 내리고, 도망하려는 사공을 막으며, 날이 새려 할 때 떡을 떼어 감사하니 276명이 안심하고 먹는다. 날이 새자 배를 모래톱에 댔으나 배는 부서지고, 해엄과 널조각으로 다 상륙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유라굴로와 열나흘의 어둠 — 부서진 배, 건진 모두"
- 초벌 부제: "끊긴 여망에서 밤의 위로로, 그리고 부서진 배와 건진 모두"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유라굴로·금식 절기 시기·고대 향해 절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23-24절의 밤 위로를 섭리 교리로 굳히지 않도록 → 어둠과 상륙을 잇는 위치만 기록.
- 24절 약속과 31절 조건("배에 있지 않으면")의 긴장은 두 절의 병치로만 보존, 관계 보류.
- 35절 떡·축사를 성례로 읽지 않도록 → 폭풍 한가운데 감사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7장은 잔잔히 시작한 향해가 유라굴로에 삼켜져 구원의 여망마저 끊긴 열나흘을 지나, 밤의 한 음성에 떡을 떼고, 배는 부서져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평범한 향해기로 열린다. 시돈·무라·미항을 지나 어렵게 그레데에 닿고, 바울의 경고에도 다수가 떠나기로 한다. 곧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쳐 짐과 기구를 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다. 그 어둠 한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 어젯밤 사자의 말을 전하며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한다. 열나흘째 밤 닳을 내리고, 폭풍 가운데 떡을 떼어 감사하니 276명이 먹는다. 날이 새자 배는 모래톱에서 부서지지만 모두 상륙해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바다 위 내내. 가이사랴 → 미항(8) → 멜리데 앞 파선. 소품 = 배를 비워 가는 것들·떡. Eurakylon(14).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여행기 → 유라굴로(14)로 급변. "여망마저 없어졌더라"(20). 끝은 전원 상륙(44).
3 시작과 끝	시작 — 향해 작정(1). 끝 — 파선 후 전원 상륙(44). 배는 잃고 사람은 달음.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우리" / 율리오 / 사공 / 276명. 죄수→중심 목소리. 축 = 23-24절 밤의 천사.
5 장면 컷	컷 1 출항(1-8). 컷 2 경고(9-12). 컷 3 광풍·어둠(13-20). 컷 4 밤의 위로(21-26). 컷 5 닻·떡·상륙(27-44).
6 의문·발견·정보	"잃지 않으리라" 2회(22·34). 금식 절기 시기(9). 폭풍 속 떡·축사(35). 276명(37).
7 동영상	출항 → 경고 → 유라굴로 → 어둠 → 밤의 위로 → 닻·떡 → 파선 → 전원 상륙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유라굴로와 열나흘의 어둠 — 부서진 배, 건진 모두". 부제 — "끊긴 여망에서 밤의 위로로, 그리고 부서진 배와 건진 모두".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흔들리는 배와 열나흘의 어둠을 걸으며 여망마저 끊긴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끊긴 여망의 바닥:**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20절). 어둠이 가장 깊은 자리가 한 장의 한가운데 놓인다.
- 결 2 — 어둠 위의 한 음성:** 그 바닥에서 바울이 일어나 어젯밤 사자의 말을 전한다(23-24절). 캄캄한 바다 위에 한 목소리가 선다.
- 결 3 — 부서짐과 건짐:** 배는 모래톱에서 부서지지만(41절) 276명이 다 상륙한다(44절). 배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이 끝에서 갈린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23:11·행 18:9-10** (밤의 위로), **행 25:11-12** ("가이사 앞에 서야"의 성취 방향).
- 다른 권 — **눅 22:19·행 2:46** (떡을 떼는 결), **눅 21:18** ("머리카락 하나도").
- 정경 흐름 — 27장의 향해는 23:11과 25:12의 "로마"를 향한 길을 바다 위에서 잇는다. 28장 멜리데·로마로 이어지는 마지막 다리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잔잔히 떠나는 배 위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유라굴로에 모든 것이 휩쓸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는 바닥에서 멈춘다.
- **멈춤 3:** 어둠 위로 "두려워 말라"가 들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배는 부서져도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여망마저 끊긴 배 위\*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잔잔히 시작한 항해가 유라굴로에 삼켜진다
- [x] 짐과 기구를 다 버린다
- [x]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다
- [x] 밤의 사자가 "않지 않으리라" 한다
- [x] 폭풍 한가운데서 떡을 떼어 먹는다
- [x] 배는 부서지고 276명이 다 상륙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건짐.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꺨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20절)가 한가운데 놓이는가?**

-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바다.
- 바닥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24절의 "다 네게 주셨다"와 31절의 "배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함께인가?**

- 약속과 조건이 같은 장에 나란히.
- 두 절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3. 왜 폭풍 한가운데서 떡을 떼어 감사(35절)하는가?**

- 열나흘 굶주림 끝의 감사.
- 때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이백칠십육 명"(37)이라는 정확한 셈은 무엇을 남기는가?**

- 위기 한가운데의 또렷한 숫자.
- 정확함의 결은 목상에서 다시.

**Q5. 죄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배의 중심 목소리가 되는가?**

- 1절의 죄수가 21절부터 사실상 이끄.
- 자리 바뀔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위치만 보존.

**Q6. 배는 부서지고 사람은 다 건짐(44)은 무엇을 남기는가?**

- 두 운명이 끝에서 갈림.
- 갈림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도행전 28장

ACT-028 · 역사서(신약) · 헬라어

독사를 떨쳐 버린 손, 섬의 치유, 그리고 로마의 셋집. 막히지 않은 두 해의 가르침,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로 열린 채 닫히는 책.

## 관찰된 사실

### 사도행전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멜리데 섬(1-10) → 수라구사·레기온·보디올(12-13) → 로마 셋집(11-31)으로 옮겨간다.
- 소품 = 불(2절), 나뭇가지·독사(3절), 보블리오의 집, 병자들, 셋집(30절).
- "독사"(echidna, 3절)·"원주민"(barbaroi, 2·4절, 당시 구분어).
- 섬 사람의 평가가 "살인한 자"(4) → "신"(6)으로 뒤집힘.
- 마지막 부사 "거침없이"(akolutos, 31절)가 책을 닫음.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폭풍 뒤 불과 환대(2)로 따뜻하게 열림.
- 독사(3)의 섬뜩함 → "상함이 없더라"(5)로 풀림.
- 끝(31)이 완결이 아니라 진행형 —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 한 섬 상륙으로 열림.
-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로마에서 막힘 없는 가르침으로 닫힘.
- 섬에서 제국의 심장으로, 닫히되 열린 채 끝남.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 / "우리"(누가) / 멜리데 원주민 / 보블리오와 부친(8) / 병자들 / 마중 나온 형제들(15) / 유대 지도자들(17) / 셋집 방문자들(23·30).
- 바울의 자리 = 죄수(16) → 셋집에서 가르치는 자(23·30).
- 사상 축 = 손의 치유(8)와 입의 가르침(23·31).
- 이사야 6장 인용(26-27) + "구원이 이방인에게로"(soterion, 28).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상륙, 불·환대, 독사, "살인자"→"신", 상함 없음.
- 컷 2 (7-10): 보블리오 부친 치유, 섬 병자들 나옴, 후한 대접.
- 컷 3 (11-16): 출항, 수라구사·레기온·보디올, 형제들 마중, 로마 입성.
- 컷 4 (17-24): 유대 지도자 청함, 하루 종일 강론, 믿음·불신 갈림.

- 컷 5 (25-31): 이사야 인용, "이방인에게로", 두 해 셋집, "거침없이".

#### 6 — (1) 원어 카드

- echidna(ἔχιδνα) — 독사. 3절.
- barbaroi(βάρβαροι) — 원주민·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들. 2·4절(구분어).
- theos(θεός) — 신. 6절("그를 신이라").
- soterion(σωτήριο) — 구원. 28절("이방인에게로").
- parresia(παρρησία) — 담대함. 31절.
- akolutos(ἀκωλύτως) — 거침없이·막힘 없이. 31절(책의 마지막 단어).

#### 6 — (2) 문학 구조

- 멜리데(1-10) → 길(11-16) → 로마(17-31)의 세 묶음.
- 평가 뒤집힘 — "살인자"(4) ↔ "신"(6)의 대구.
- "이방인에게로"가 책의 양 끝(22:21, 28:28)에 호응.
- 마지막 부사 akolutos(31)로 열린 채 닫힘 — 결말 없는 결말.

####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원주민"(barbaroi)은 멸칭이 아니라 헬라어 비사용자를 가리키는 구분어 — 배경으로만.
- "압비오 광장·트레이스 타베르네"(15)는 로마 진입로의 실제 지명 — 본문이 길의 이름을 뒀.
- 이사야 6:9-10 인용(26-27)은 옛 본문의 끌어옴 — 인용으로 기록.

#### 6 — (4) 교차 참조 노트

- 행 28:26-27 ↔ 사 6:9-10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
- 행 28:28 ↔ 행 22:21 / 행 13:46-47 ("이방인에게로")
- 행 28:8 ↔ 행 3:6-7 / 행 9:34 (치유의 결)
- 행 28:31 ↔ 행 1:8 (땅 끝까지 증인 — 책의 수미)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멜리데에 닿으니 원주민들이 비 오는 추위에 불을 피워 영접한다. 나뭇가지를 불에 넣을 때 독사가 손을 물자 사람들이 "살인한 자라" 하다, 그가 떨어 버리고 상함이 없자 "신이라" 한다.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와 안수로 낮게 하니 섬의 병자들도 나음을 받고 후히 대접한다. 석 달 후 떠나 수라구사·레기온·보디올을 거치고, 형제들이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니 바울이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로마에 들어가 따로 거하며, 유대 지도자들을 청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선지자로 예수를 권하니 더러는 믿고 더러는 안 믿는다. 이사야를 인용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 하며, 만 두 해를 셋집에 머물러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친다 — 금하는 사람이 없이.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독사를 떨친 손에서 로마의 셋집으로 —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 초벌 부제: "독사를 떨친 손에서 로마의 셋집으로, 그리고 열린 채 닫히는 끝"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6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barbaroi 구분어·로마 진입로 지명·이사야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독사·치유(3-9)를 표적 신학으로 굳히지 않도록 → 섬 사람 평가의 뒤집힘만 기록.
- 이사야 인용(26-27)을 예정 교리로 퍼지 않도록 → 옛 본문의 끌어옴으로만 보존.
- "거침없이"(31)의 열린 끝을 결말 단정으로 매우지 않도록 → 진행형 단힘의 위치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도행전 28장은 독사를 떨쳐 버린 손과 섬의 치유가 로마의 셋집에 이르러, 막히지 않은 두 해의 가르침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열린 끝으로 책을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폭풍 뒤 멜리데의 불과 환대로 열린다. 독사가 손을 물자 섬 사람들은 "살인자"라 하다 상함이 없자 "신이라" 하고,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의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다. 석 달 후 길을 이어 로마의 형제들이 압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다. 셋집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는다. 이사야를 인용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 하며, 만 두 해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친다 — 금하는 사람이 없이.

####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멜리데(1-10) → 길(11-16) → 로마 셋집(17-31). 소품 = 불·독사·셋집. echidna·akolutos(31).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불과 환대(2). 독사(3)의 섬뜩함→폴립(5). 끝은 진행형(31).
3 시작과 끝	시작 — 멜리데 상륙(1). 끝 — 막힘 없는 가르침(31). 섬→로마, 열린 채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 / "우리" / 원주민 / 보블리오 / 마중 형제 / 유대 지도자 / 셋집 방문자. 죄수→가르치는 자. 손의 치유·입의 가르침.
5 장면 컷	컷 1 상륙·독사(1-6). 컷 2 치유(7-10). 컷 3 로마의 길(11-16). 컷 4 강론·갈림(17-24). 컷 5 이사야·두 해(25-31).
6 의문·발견·정보	"살인자"↔"신"(4·6). 압비오 광장(15). "이방인에게로"의 양 끝 호응(22:21·28:28). 마지막 부사 akolutos.
7 동영상	독사를 떨친 손 → 섬의 치유 → 로마의 길·마중 → 셋집 강론 → 이사야 → 두 해의 거침없는 가르침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독사를 떨친 손에서 로마의 셋집으로 —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부제 — "독사를 떨친 손에서 로마의 셋집으로, 그리고 열린 채 닫히는 끝".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섬의 불과 로마의 셋집을 걸으며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로 열린 채 끝나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뒤집히는 말:** 같은 손을 두고 섬 사람들은 "살인자"(4절)라 하다 "신"(6절)이라 한다. 사람의 평가가 한 장면 안에서 두 극을 오간다.
- 결 2 — 양 끝의 한 마디:** "이방인에게로"가 22장에서는 무리를 폭발시키고(22:21), 28장에서는 셋집에서 차분히 선언된다(28:28). 같은 말이 책의 양 끝을 묶는다.
- 결 3 — 열린 채 닫히는 끝:** 책은 재판도 순교도 아니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31절)로 닫힌다. 결말이 결말 없이 열려 있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행 1:8** (땅 끝까지 증인 — 책의 수미), **행 22:21·행 13:46-47** ("이방인에게로"), **행 3:6-7·행 9:34** (치유의 결).
- 다른 권 — **사 6:9-10** (26-27절 인용).
- 정경 흐름 — 28장은 1:8의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를 로마에서 막힘 없이 잇는다. 행 22~28장의 변론·항해·도착의 사슬이 여기서 닫히며, 결말 없는 결말로 다음을 연다.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폭풍 뒤 섬의 불 곁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독사를 떨쳐 버려도 상함이 없는 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압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형제들 곁에서 멈춘다.
- **멈춤 3:** 셋집에서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는 갈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책은 결말 없이 열린 채 닫힌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로 열린 끝\*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독사를 떨쳐 버려도 상함이 없다
- [x] 섬의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다
- [x]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 나온다
- [x] 셋집에서 믿음과 불신이 갈린다
- [x]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선언된다
- [x] 두 해를 거침없이 가르치며 열린 채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침없이.

## 미해결 질문

사도행전 2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섬 사람의 평가가 "살인자"(4)에서 "신"(6)으로 뒤집히는가?**

- 같은 손을 두고 말이 두 극을 오감.
- 뒤집힘의 까닭은 본문이 더 말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Q2. 왜 책이 재판 결과가 아니라 "두 해 가르치더라"(30-31)로 끝나는가?**

- 결말이 비워진 듯 진행형으로 닫힘.
- 비움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이방인에게로"(28)는 22:21과 어떻게 책의 양 끝에 놓이는가?**

- 한쪽은 무리를 폭발시키고, 한쪽은 차분히 선언됨.
- 양 끝의 호응은 묵상에서 다시.

**Q4. 이사야 인용(26-27)은 왜 마지막 장에 끌려오는가?**

-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 믿음·불신 갈림 뒤에 옴.
- 인용의 자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죄수가 어떻게 막힘 없이 가르치는 자로 끝나는가?**

- 16절의 죄수가 31절에 "거침없이" 가르침.
- 자리 바뀐의 까닭은 본문이 밝히지 않음. 위치만 보존.

**Q6.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의 열린 끝은 무엇을 남기는가?**

- 닫는 말인데 문이 열린 채 끝남.
- 열린 끝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